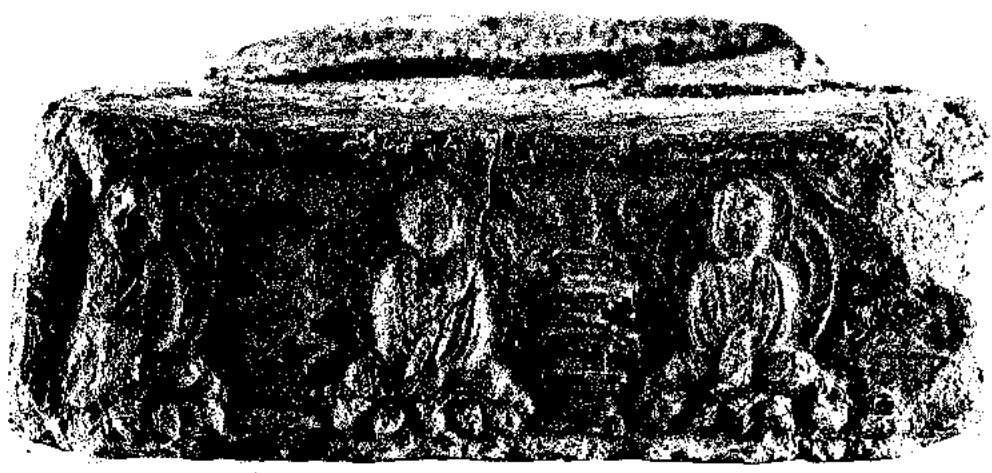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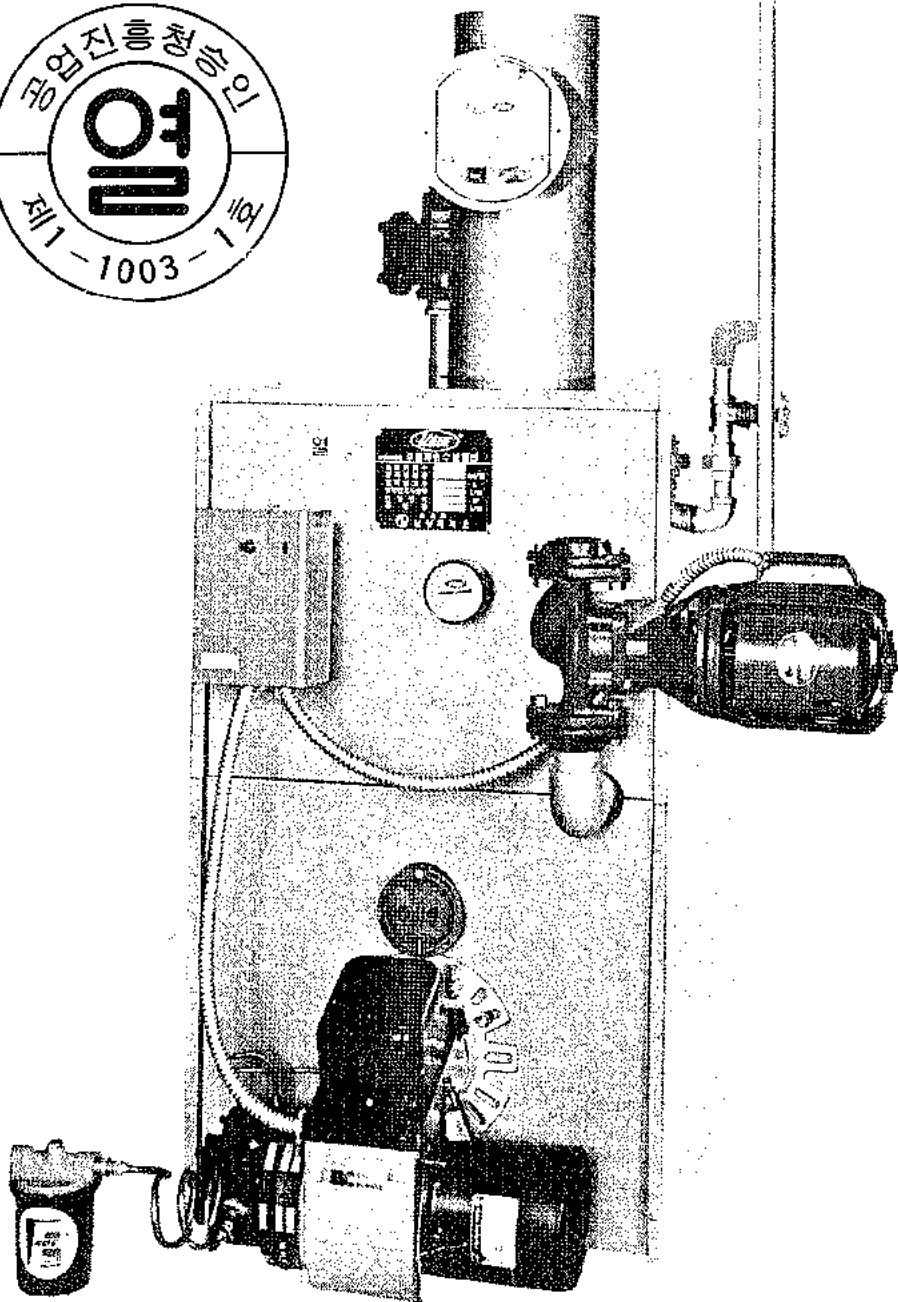


Cast Iron Boilers

놀라운 성능 · 연료비 절감 · 영구적인 수명

※ 난방 / 급탕 겸용 ※

Utica **유티카** **신**
자동 **보일러** **제품**



製造元：三成製作所

유 보 商 事

서울特別市 中区 忠武路 4 街 126-1 号

進洋商街 1 층 2 동 나열 109 号

TEL: 26-2807 · 26-8015

새 시대 새設計는 새로운 유리 솔라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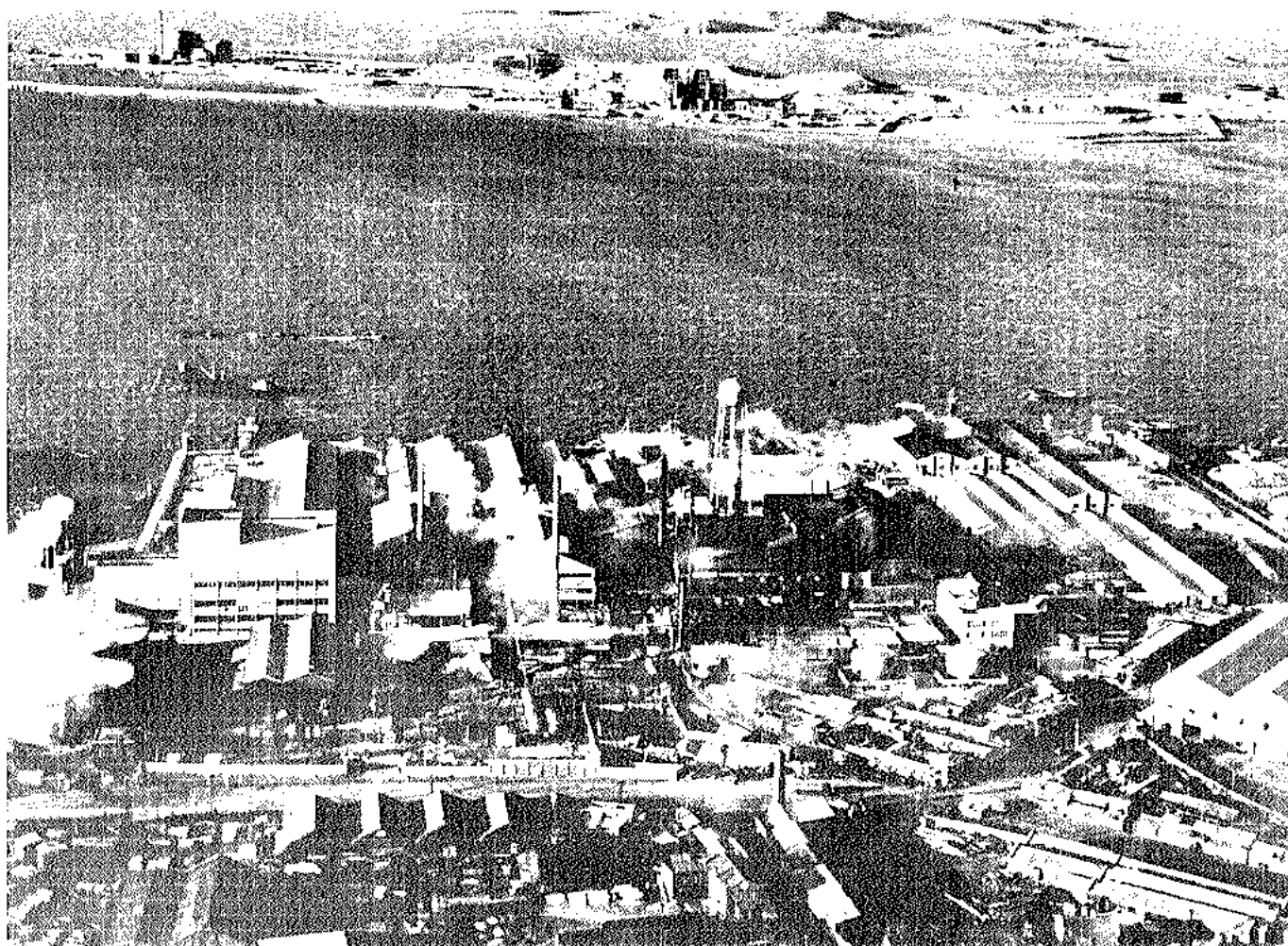
■ 한국유리에서 새로 生産 公供給하는 熱線吸收유리 (회색)는
現代建築物에 不可缺한 製品입니다.

◎ 熱線吸收유리의 特徵

- 흡열성 (吸熱性)
- 방현성 (防眩性)
- 색채효과 (色彩效果)

◎ 熱線吸收 유리는

사무실. 호텔. 병원. 식당
주 택. 차량. 가구. 거울
기타. 等 用途가 多様하다.



韓國유리工業株式會社

本社 : 서울特別市 中区 西小門洞 75 ②37141~5, 777-8022~5

仁川工場 : 仁川市 東区 萬石洞 2 仁川 ③0111~0119

釜山工場 : 慶南 梁山郡 日光面 伊川里 釜山 ⑤4066~40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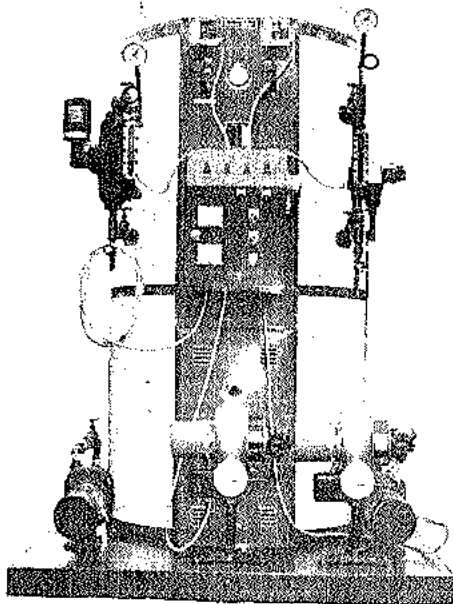
Rocket Boiler

연료비 40% 절약!

**로켓트
보일러**

工產品 品質管理法에 의한 優秀商品 指定

燃料 使用器機大會 商工部 優秀賞受賞



□ 사우디아라비아 · 일본으로 수출되는
ROCKET BOILER

ROCKET BOILER 는

고 압 보 일 러

0.5 TON ~ 15 TON 연탄식보일러

증기용전자동보일러

1 TON ~ 20 TON 수증식보일러

0.5톤, 0.2톤 소형전자동증기보일러가 필요하신 (압력 3.5kg/cm²) 섬유공장, 증기다리미, 세탁, 염색기, 세탁, 기계사 1,000명이상 위 사용, 화학반응기 등에 적용하기 용이하며 설치할 수 있으며 전자동이므로 관리원이 필요치 않으며 연료비와 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선박용 보 일 러

1,500 TON 미만의 선박난방 및 온수 공급용 전자동 보일러

건조용 보 일 러

전조성의 온도를 자유 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전자동전자동 (증기, 온수) 보일러 (이력공장, 섬유공장, 식품공장, 화학공장)

공장 난방용 보 일 러

전성 20평 ~ 600평 까지 난방용 순환동 증기, 온수 (관리자가 필요없음) 보일러

음 료 수 용 보 일 러

시간당 20 TON 미만의 순수온수 (보일러내 수 와선도급) 가 필요한 공장 등에 온수공급용 전자동 온수보일러

가정용 온수 보 일 러

가정용 난방 급탕 겸용 전자동 온수보일러

전자동 오일 버너

미국 하니웰 사, 전도 스프링 밸브 등, 부품 을 직수입하여 제작된 신식 오일버너

연 탄 보 일 러

온수, 난방, 취사 겸용한 20평 미만의 소형 연탄 보일러

※ 관리 유지비가 없고 최고의 안전도 저렴한 시설투자, 연료비 40%를 절약하시려면 Rocket Boiler에 問議하십시오.
※ Rocket Boiler의 보조품에 유익하시고 Rocket 상표를 확인하십시오.

※ 건축사를 위한 로켓트 보일러 특성표 ※

TYPE	종 류	로켓트기름보일러 (가정용 공장용)										로켓트스틸보일러				
		단 위	KR-40	KR-60	KR-80	KR-100	KR-150	KR-200	KR-300	KR-400	KR-500	KPS-200	KMS-500	KR-102	KR-132	KR-150
발 열 량	Kcal/hr		20,300	33,000	50,000	70,000	100,000	150,000	200,000	300,000	400,000	120,000	370,000	3,110	6,220	9,330
난방가능면적	Heating Area		20-30평	30-50	70	80	130	180	210	300-400	400-500	200	480-600	3-4	6-8	12-15
순수용량	ℓ		105	122.9	166.6	178	303	395	624	920.9	1,280	-	-	34	81	105
연료소비량	L/HR		3-5	5-3.5	6.5-8	8-11	11-15	15-20	24-27	32-36	44-58			19공탄	19공탄	19공탄
수압시험압력	kg/cm ²		5.25	5.25	5.25	5.25	5.25	5.25	5.25	5.25	5.25	5.25	8	2	2	2
배관규격	吋		50	50	65	65	75	75	75	100	100	65	75	32	40	40
연통규격	吋		150	150	200	200	250	250	300	350	400	250	360	100	100	100
바나나	吋		1/2	1/2	1/2	1/2	1/2	1/2	1/2	1	1	3/4	1			
오일켓수	O		470	540	610	675	895	800	1030	1300	1400	800	1100	430	650	950
오일켓수	H		1150	1150	1280	1450	1600	1750	1850	2000	2300	1750	2200	590	590	590
중량	kg		320	340	420	440	780	800	1,000	1,300	1,400	1,200	2400	780	1,320	203
로켓트보일러이동가	공장도		177,700	216,900	299,200	325,600	444,400	654,400	939,700	1,245,200	1,382,700			53,900	89,100	117,700
로켓트바나나이동가	공장도		132,500	192,500	192,500	249,700	249,700	249,700	338,800	440,000	440,000					
보일러·바나나·연계공	공장도		365,200	411,400	480,700	575,300	693,700	904,100	1,248,500	1,685,200	1,822,700	1,584,000	3,113,000			



고려강철주식회사
KOREA STEEL PRODUCTS CO., LTD.

本社 · 工場 : 京畿道 富川市 陶唐洞 185-13 (032) ☎ 2343, 2366

여의도영업부 : 서울 영등포구 여의노동 1-697 (우정빌딩 308호) ☎ 7373, 7387, 87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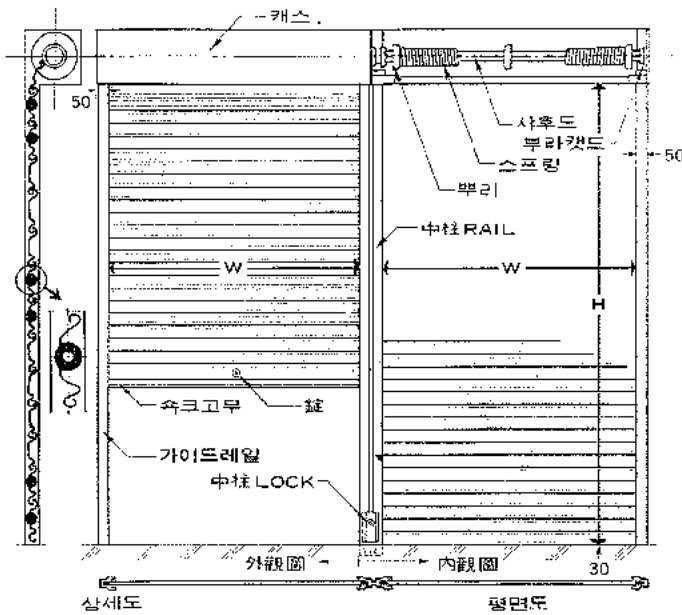
대 리 점 : 「가」동 ☎ 6074 ☎ 3263, 마포동 ☎ 0751, 영등포 ☎ 3726

관악 ☎ 3477, 보문동 ☎ 3202, 동작동 ☎ 8119, 동부 ☎ 2333, ☎ 5333

부산 ☎ 1585, 광주 ☎ 0729, 전주 ☎ 1521, 안성 16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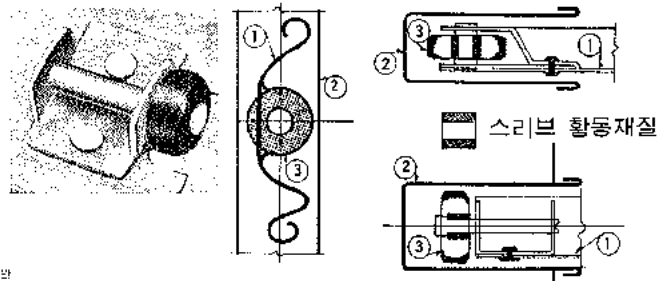
동아샷다 새時代 새設計는 新開發品으로 !!



회轉자가 附着된 샷다의 특징

- 1 샷다의 승강시 상하 작동을 원활히 해준다.
- 2 샷다의 작동시 레일(RAIL)과 슬랫(SLAT)의 접촉할 때 생기는 불쾌한 마찰을 제거한다.
- 3 샷다의 작동시 레일과 슬랫의 접촉시 마찰을 피하고 동시에 슬랫의 피복을 보호한다.
- 4 샷다의 승강시 작동을 하는데 힘드리지 않고 간편하게 승강작동을 한다.
- 5 샷다 시공시 마찰이 가장 심한 곳에만 상·중·하로 구분 부착한다.
- 6 샷다의 가격은 시중 협 단가와 동일함.
- 7 본 샷다는 실용신안 특허 등록제 14009호 제품입니다.
- 8 샷다의 수평 이동을 방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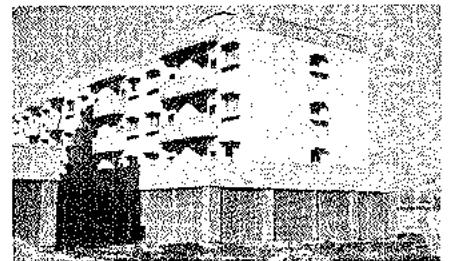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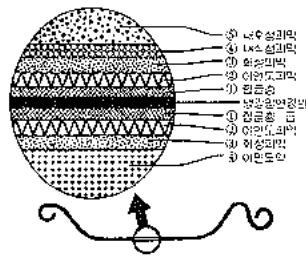
- ① 슬랫(SLAT) ② 레일(RAIL) ③ 회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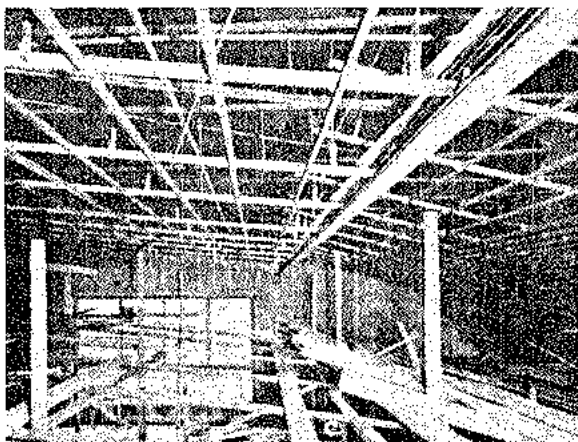
샷다의 새로운 資材

着色亜鉛鍍銅板(C.C.G.I)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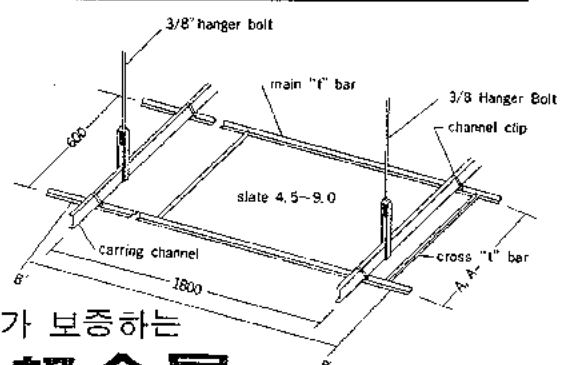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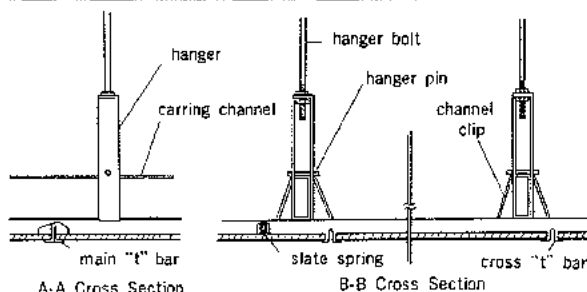
- 特性
- ◎ 色상이 아름답다.
 - ◎ 氣候变化에도 變質되지 않는다.
 - ◎ 完全한 不燃製品이다.
 - ◎ 經濟的인 새로운 製品이다.
 - ◎ 무게가 가볍다.



不燃天井 輕量鐵骨天井



Carring Channel	Main "I" Bar	Cross "I" Bar	Carrying Joint



로-루 호-밍구의 파이오니어가 보증하는
輕量形鋼製造元 **東亞輕金属**

大邱市東区新川洞740-4

TEL 44-0832

실용신안특허 13255호 ◎ 기름보일러의 겸용설치최우수품
 실용신안특허 13752호 ◎ 집을 새로 지으실분
 의장등록번호 19229호 ◎ 재래식 보일러로 사용하고 계신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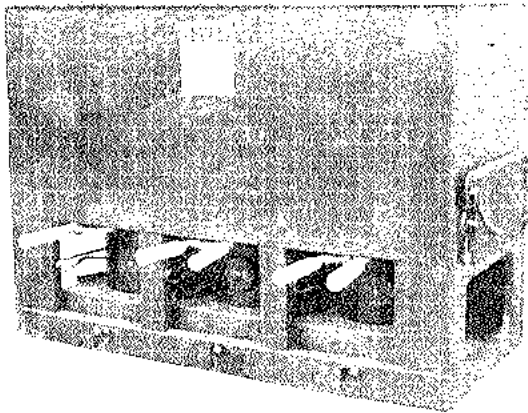
제4회 전국우수 발명 경연대회

과학기술처장관 최우수금상수상

제3보일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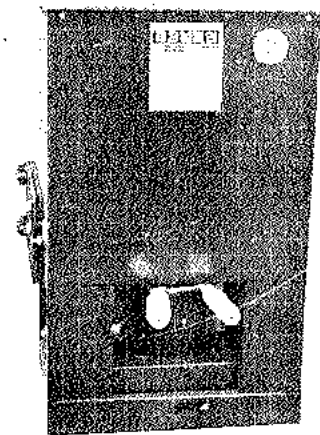
K. S. 자재로 3가지가 새롭게 설계 제작되었습니다.

※ 국내 최우수품생산



JS-303

3탄 3구 26평 가로 × 세로 × 높이
 3탄 3구 온수겸용... 22평 98.5cm × 41.5cm × 8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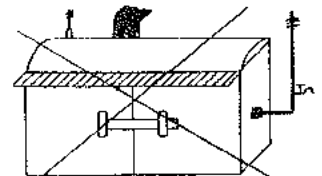


JS-301

3탄 1구 8평 — 44.5cm × 41.5cm × 80cm

※ 전국대리점모집중
 ※ 시공업자문의환영

1. 탄 교체 방법이 간단하여 고장이 없고 사용하기 편리함. (누구나 할 수 있음)
2. 국내 최초로 간단한 청소구가 설계제작되어 가정에서 누구나 청소할 수 있음.
3. 보일러 내통에 불연, 방청, 노로(F.P.C)의 피막으로 부식을 방지해 주므로 수명장수함.
4. 열효율을 최대로 높여 설계제작 되었으므로 P.V.C 연통으로 사용 가능함.
5. 미연소 가스를 완전연소(2차연소장치) 시킴으로 열량이 월등이 강함.
6. 설치장소를 마음대로 선정 취사를 겸할수 있음.



(재래식 연탄보일러)

第三機械CO.제3보일러제조원

☎ 37 6011 39 245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용암동 96-14

〈일본 기술을 도입〉

콘크리트, 몰탈, 푸라스타(石灰) 防水·防湿用

하이너루 防水劑

수성페인트混和劑

사용후 다시찾는 防水工의 마약



◆ 特徴 · 利點 ◆

- * 防水콘크리트로 母体防水가 可能함.
- * 塩類, 酸類에 強하며 金屬性부식이 全無.
- * 用途가 다양하고 사용이 간편하다.
- * 防水, 防湿, 防腐效果는 100%이다.
- * K. S 規格에 맞은 優秀品質.
- * 수성페인트 混和劑는 100% 방수효과를 낸다.
- * 價格低廉, 經濟性이 倍加.

◆ 用 途 ◆

- * 터-널 地下室 屋上 벽체 욕실防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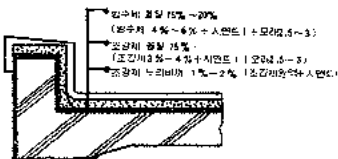
◆ 사 용 법 ◆

- * 콘크리트용은: 시멘트중량비 2%이상.
- * 몰탈용은: 시멘트중량비 4%이상
- * 석회용은: 석회중량비 4%이상.
- * 使用水量에 混和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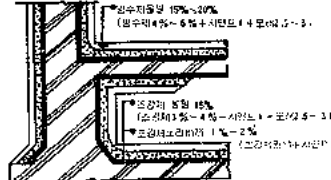
◆ 제품성능 ◆

- * 국립건설연구소(KS규격에 합격), 대한주택공사(KS규격에 합격), 국립공업시험원(KS 규격에 합격), 상용레이콘시험실(強度시험), 日本工業規格(JIS)에 의한 시험성적이 品質을 보증함.

① 屋上, 베란다等 防水工法



② 地下室等 防水工法



하이너루工法에 의한 소요재료

재료	시 멘 트	모 래	하이너루원액소요량			비 고
면적			조강페스트	조강몰탈	방수몰탈	기준량 이 상 점가요
100M ²	(42.75포) 1,710kg	3.0M ³	70% 42kg	3% 27kg	4% 30kg	

※ 방수콘크리트는 시멘트 중량비 2%이상 첨가.

예: 320kg (1 M³) × 2% = 6.4kg (하이너루방수제)

四季節 土木建築工事を 용이하게하는

하이너루 防凍劑 早強劑

시멘트混和劑의 最新 · 最優秀製品

◆ 特徴 · 利點 ◆

- * 1日, 3日, 7日 強度가 보통 콘크리트 3日, 7日, 28日 強度와 同一.
- * A, E劑, 減水劑, 分散劑役割
- * 工事費의 減少, 工期短縮, 凍害防止.
- * 強度増大로 Cement 절감.

◆ 品 質 ◆

- * 性能은 국립건설연구소, 국립공업시험원, 日本工業規格(JIS A-6101에 의한 시험 성적), 大韓住宅公社 시험성적이 外國産을 능가 함을 증명한다.

◆ 用 途 ◆

- * 初期強度를 要하는 工事 * 突貫工事, 水中工事
- * 凍期工事(-15℃), 緊急을 要하는 工事
- * 시멘트 2次製品
- * 早強 Cement를 要하는 工事
- * 防水工事に 止水劑로 사용.

◆ 使用法 ◆

- * 早強효과: 시멘트중량비 1~5%첨가
- * 防凍효과: 시멘트중량비 6~12%첨가
- * 止水효과: 100%원액을 사용
- * 사용水量에 稀釋사용

◆ 納品実績 ◆

* 상용양회공업주식회사 * 대한주택공사(경남기열, 미성건설, 정우개발) * 부산시청 * 부산세관 * 수협중앙회 * 자명건설Co. * 총성건설Co. * 태평양건설Co. * 삼익주택(여의도Apt) * 삼부토건(여의도타워형Apt) * 부산시청 영도제2대교가설공사(종파공업) * 대한주택공사 사직동아파트(경남기열) * 부산제7부두육조공사(동아건설)의 200여처

三龍化學工業株式會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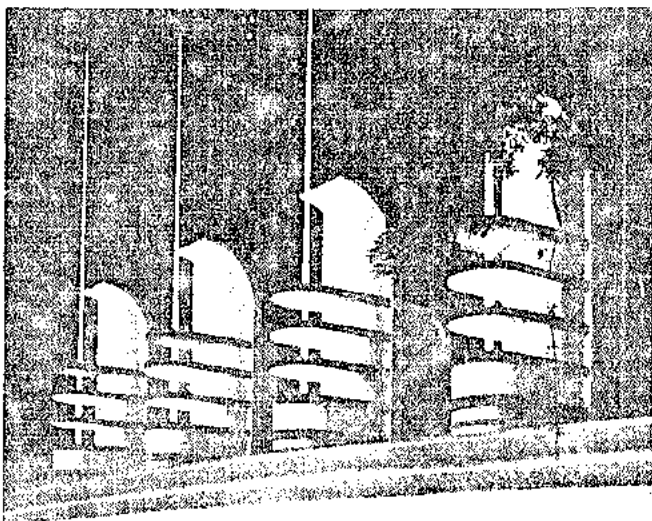
서울 ㉠ 5377 · 7892 부산 ㉢ 0777 ㉣ 6789 ㉤ 6969 대구 ㉦ 1797 이리 2945 인천 ㉧ 5125 성남 ㉨ 1807 청주 ㉩ 1020



welton becket와 walter wurdeman



영화배우들의 住宅中の 하나의 例



pan pacific
AUDITORIUM IN L.A.

풍으로 조잡하게 치장되었다. 그때부터 우리는 언제나 全体的인 디자인을 우리에게 맡겨줄 건축주를 찾으려고 하였다. 그리고 세계 제 2 차대전을 통해서 그들은 군인가족 및 전쟁종사자들을 위한 住居들을 계획하며 그들의 기반을 굳혀나갔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된 것은 戰后 pasa dena 의 백화점을 디자인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마치 훌륭한 주택처럼 디자인되었다. 그들은 상점을 설계한 경험이 없었지만, 다른사람들이 그들이 마치 백화점에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열심히 백화점을 조사 研究하였다. 그리고 그 성과는 아주 좋은 것이었으며 그 결과 그들은 그후 많은 백화점을 설계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pasa dena 의 백화점계획은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하나의 方向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Becket 와 wurdeman 의 哲學을 發展시키는 데에 하나의 이정표가 되었다. 즉 建築은 建築家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建築主를 위한 것이라는 그들의 신념을 확신시켜 준 것이다. 이것은 이후 이들에 의하여 계속 發展되어질 하나의 重要的 발걸음을 이었다. 그 以後의 그들의 모든 建築活動을 통해서 이 신념, 즉 TOTAL DESIGN 의 원칙이 적용되었으며 WB와A 는 一般的인 建築 및 엔지니어링을 포함해서, 실내디자인, 가구 선택 기타 장치물까지를 취급하였다. 어떤때에는 이런 것이 많은 종류의 새로운 家具의 디자인으로 유도되었다. 그리고 WB와A 는 全國으로 부터 인식되기 始作하였다. 그러나 이때에 walter wurdeman 이 뜻하지 않게 4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그 以後 그는 계속 혼자서 사무실을 이끌고 나가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中心의 思想이었던 "TOTAL DESIGN"은 그대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다. 그리고 이런 것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은 캔사스市에 있는 kaiser center 에서이다. 그는 이 建物の 디자인에서 그 自身이 보조의 역할을 하고 다른사람-대개 建築主가 이끌어 나가도록 하였다.

또한 수많은 세월을 통해서 Becket 의 또 하나의 훌륭한 점은 재능있는 사람들을 선택하고 모으는 것이다. 그리고 또 그들이 그와 함께 일하도록 성실성을 불어 넣어주는 그의 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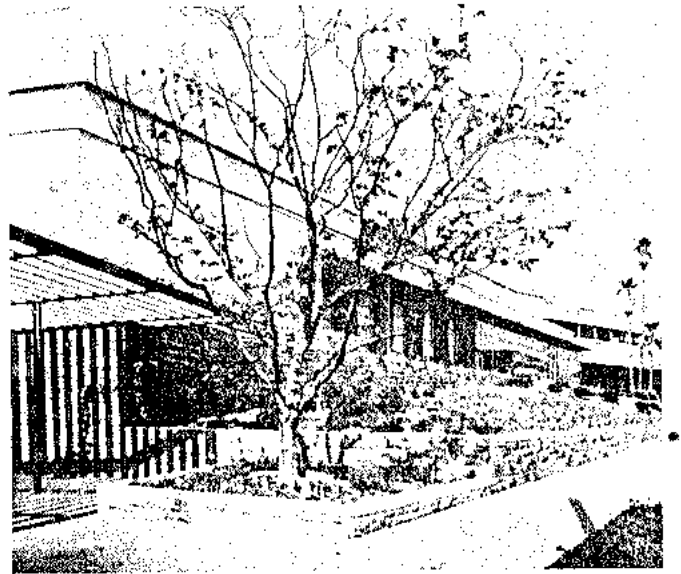
Becket 자신은 이것을 두가지 면으로 풀이 했다. 즉 作業條件과 급여가 다른 사무실보다 훨씬 좋은 점과 또한가져 WB와A 가 젊고 참신한 인재를 등용하여 그에게 처음부터 크고 중요한 책임을 맡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WB와A 에서 수년간을 일해온 사람들은 Becket 의 人間性을 더욱 중요한 것으로 認識하고 있다.

세월이 흐르고 그리고 사무실의 作業量이 많아짐에 따라 WB와A 는 1949년에 san francisco 에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new york 에 1960년에는 houson 에 1970년에는 chicago 에 지점을 설치했다. 이들은 l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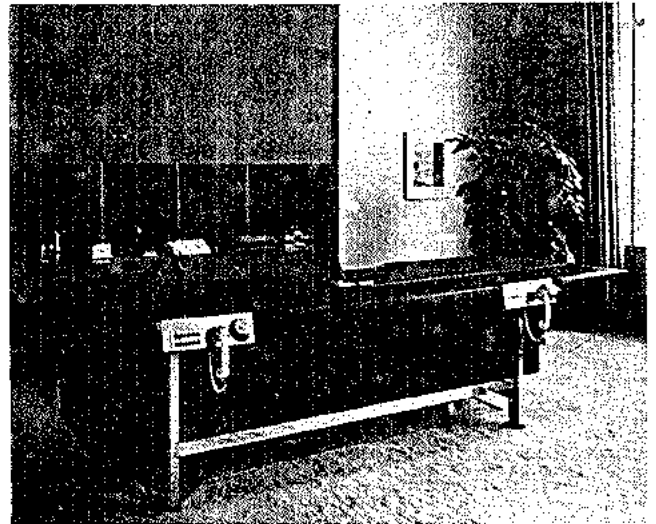
Angeles 의 본사부실의 단순한 지점이 아니고 이들 모두가 'TOTAL DESIGN'을 할 수 있는 설계 사무실들이다. 그리고 los angeles Becket 의 오랜꿈인 建築研究에 쓰여질 사무실이 건설되고 있었다. 이러한 때에 1969년 Becket 는 심장마비로 쓰러졌으며 그는 1月16日 6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대체적으로 '人間은그의 전성기에 떠나가게 마련'이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Becket 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그는 최고에 달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다시 그 자신에 맞는 더 위대한 정점을 향해 전진하고 있을때였기 때문이다.

-BECKET의 建築哲學-

TOTAL DESIGN, 이것은 위에서 살펴본 Becket 와 그의 사무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들은 그들의 프로젝트를 단지 작은 소망으로 부터 시작한다는 것이다. 즉 어떤 회사가 건물을 원한다. 혹은 커뮤니티가 예술의 활동을 위한 건물을 원하거나 혹은 의료센터를 원한다면지 혹은 시의 재개발이라든지, 어떤 호텔체인이 새로운 시설을 원한다면지 백화점이 교와의 지점을 원한다면지... 등과 같이...WB와A는 建築主의 요구와 희망을 우선적으로 존중하며, 그 構造物이 그것이 놓일 주변에 미칠 영향과 반대로 그 주변의 상황이 그 構造物에 미칠 영향-즉 교통, 수송, 주차, 소음, 공해, 공공시설, 상점, 식당과 같은 부수시설등-을 고려한다. 그리고 그들은 이 條件으로부터 展開될 來來의 發展을 제시한다. 여기에서부터 WB와A는 적합한 家具및 장치물및 예술품을 포함한 project 를 총괄할 준비가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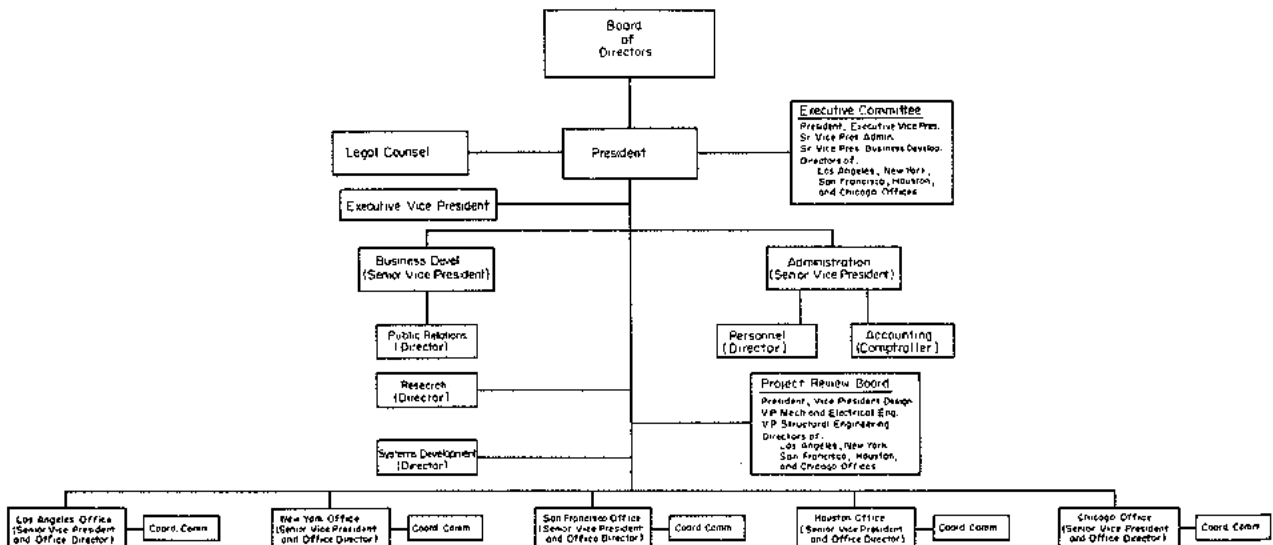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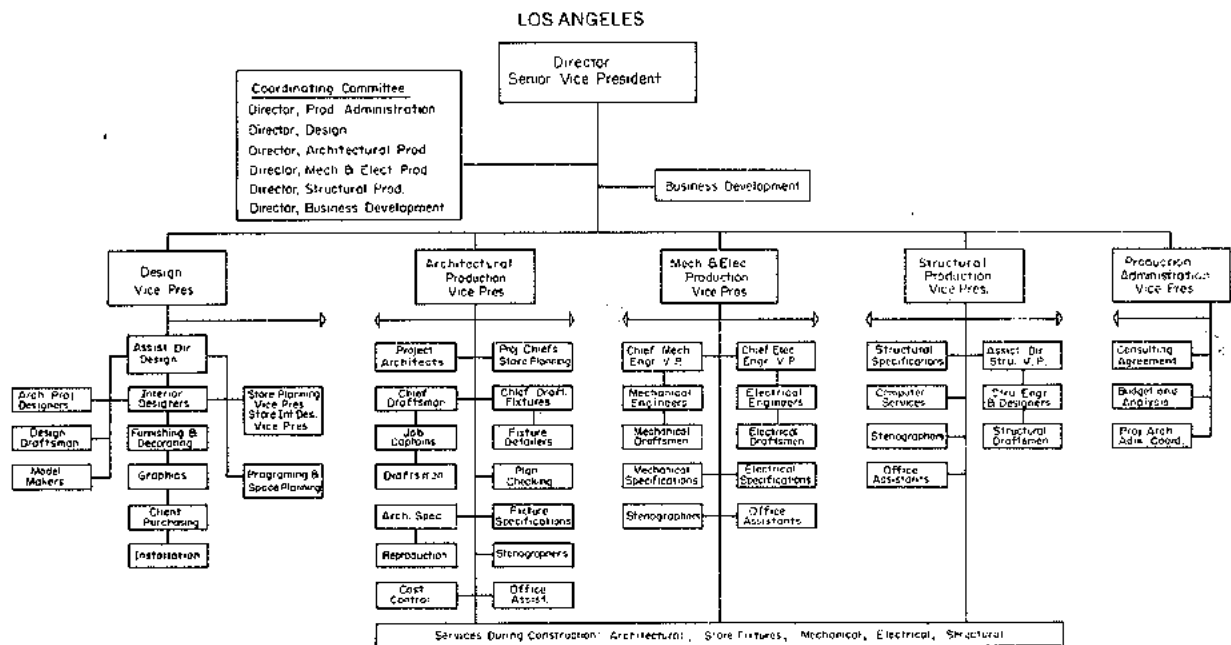
dept. store in PASADENA



kaiser center. interior

CORPORATE ORGANIZATION CHART





los angeles 사무소 기구

오늘날 복잡하고 다양한 이 시대에 WB와A는 아마 좀 복고적이라고 이야기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建築家들이 그들의 現在の 役割에 대하여 거의 不確信하고 또 더구나 未來에 대하여 더욱 不確信하고 있는 이 때에 WB와A의 사람들은 열심히 建築과 그의 創造에 헌신하고 있다. 勿論 그들도 建築의 未來에 대하여 약간의 의구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WB와A의 모든 사람들은 未來의 建築의 디자인과 都市의 디자인에 크나큰 도전과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그 기회와 도전을 맞도록 도와줄 根本원칙에 -TOTAL DESIGN- 대하여 거의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아마 WB와A의 建築의 정의에 대해서 또는 그것이 행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혹은 설계된 建物이나 혹은 다른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모두 다 잘 遂行되고 있으며 그리고 建築主들은 그것을 좋아하고 있으며 또한 실제로 그 결과는 매우 훌륭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많은 建築家들을 유혹하는 施工業이나 기타 다른 분야에 물들지 않고 그의 確固한 信念으로 이루어진 建築이다. WB와A의 哲學의 根本은 'TOTAL DESIGN'에 있다. 이것은 사무실의 모토(motto)이었으며 사명이며 일하는 신조이었다. 이것의 힘은 이 사무실이 하는 모든 것, 즉 일의 性格, 기구의 pattern, 建築主에 대한 서비스에서 보여지고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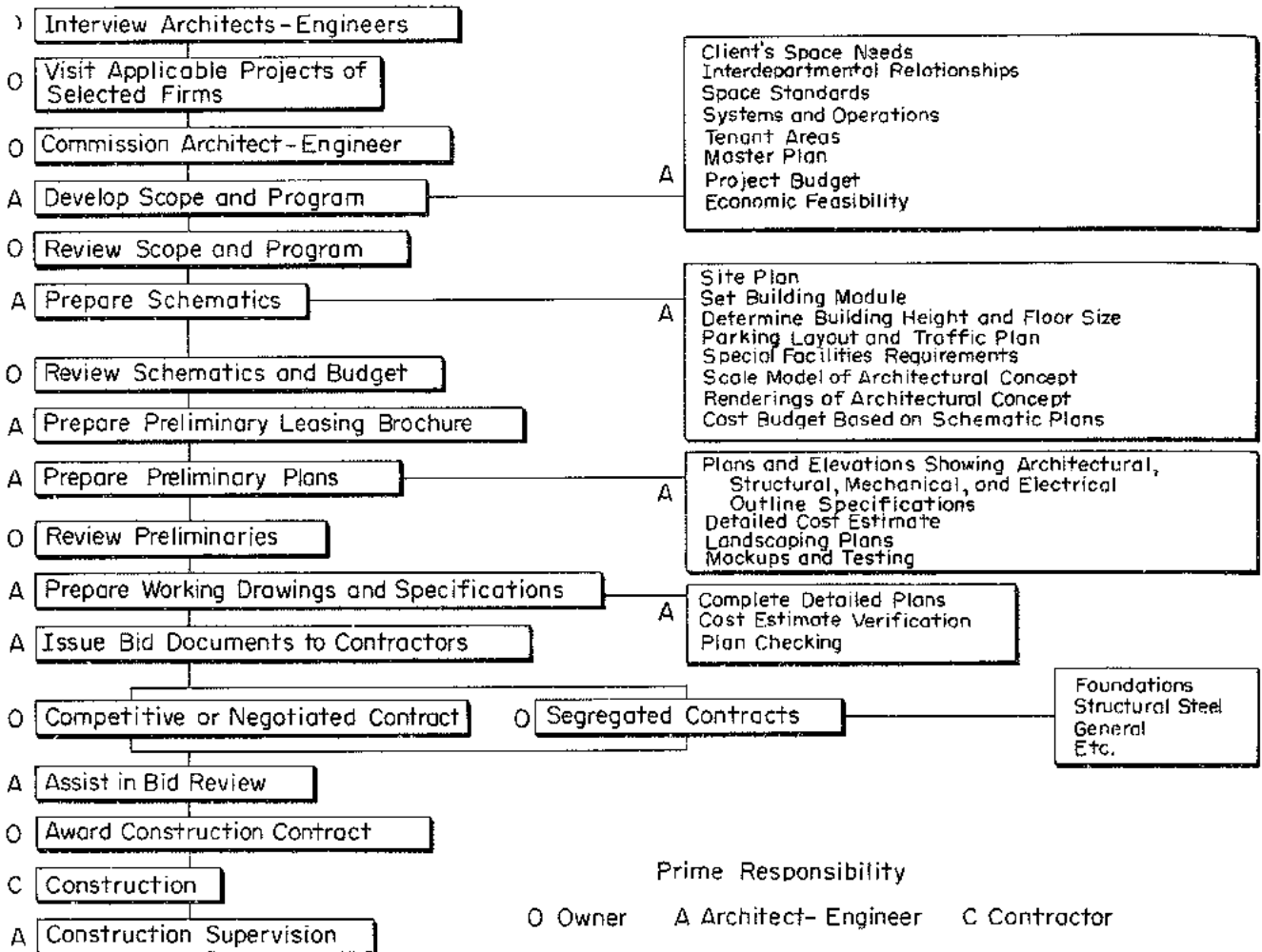
그러면 과연 TOTAL DESIGN이란 무엇인가? 이 간

단한 용어에는 어떤 建築的 問題를 分析하고 그 問題를 풀기위해 必要한 研究와 調査를 하고 그 解決을 建物이나 建物의 集團으로부터 그 家具의 detail, 조각 그리고 다른 藝術品, 造景, 장치물(재털이, 메뉴, 성냥갑등에이르는)까지 要求되는 모든 서비스를 포함하는 것 즉 建築의 哲學과 실행을 동시에 나타내는 意味가 담겨져 있다. TOTAL DESIGN은 이 정의에 의하면 모든 전통적인 建築의 기능과 engineering 뿐 아니라 실내 디자인, 건물과 그 주위의 産業디자인 master planning, space planning 그리고 기타 다른 기능까지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 모든 기능은 실제로 그 말의 넓은 의미에서의 디자인의 한 부분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것의 적절한 施工을 위한 工事中的의 서비스까지도 포함한다. 반면에 TOTAL DESIGN은 本質的으로 디자인이 아닌 것은 어떤 것도 포용하지 않는다. 해를 거듭하면서 WB와A는 끊임없이 engineer, 실내디자이너, graphic designer space planner store planner 등, 그리고 다른 디자인에 관계된 전문가를 늘려왔다. 그러나 WB와A는 부동산업자나 자본가나 혹은 시공에 관계되기를 철저히 피해왔다. 여기에서 그들의 깊은 確信이었던 것은 부동산업, 제정, 시공 등은 本質的으로 디자인이 아니며 그리고 또한 建築의이 아니며 또한 전문적 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確信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실이 이런 경향으로 빠져들려고 하면 그것은 언제나 저지되고 극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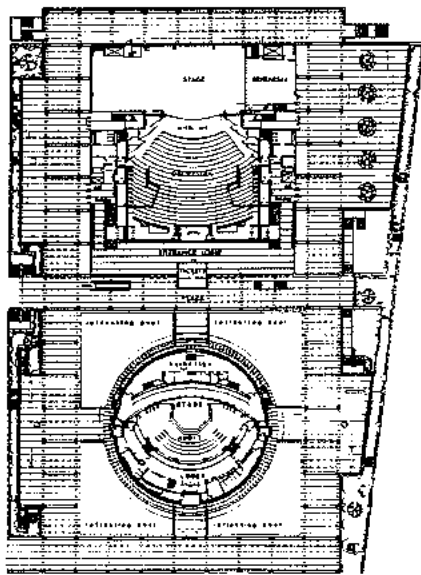
이것은 WB와A가 建築主들에 의해 要求되는 부지선택 혹은 基地組合 재정, 혹은 시공등의 조사나 分析이나 기타研究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WB와A에는 이런 종류의 일이 아주 많이 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사무실이 건축주에게 하여야 하는 것과 하지 않을 것에 대하여 그리고 그의 일을 맡은 태도에 대하여 아주 신중한 선택이 있다. 위에서 이야기 한 모든 것과 아울러 建築이 늘어나는 要求와 폭발적인 기술의 發展으로 점점 더 복잡해 짐에 따라 WB와A는 건축주의 오늘 그리고 미래의 要求와 수요

를 充足시키기 위해 그의 서비스의 幅을 늘리려고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전문적이고 디자인적인 일에만 국한 되어 왔다. 지금까지는 이런점이 잘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未來에 있어서의 고민은 아마도 어느 것이 전문적이고 아닌지 또는 디자인인지 아닌지를 정의하는 일일 것이다. 쉽게 가릴 수 있는 時代는 지나가고 있다. 그리하여 WB와A의 未來의 主人公들은 항상 변화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하겠다. 그리하여 TOTAL DESIGN의 개념을 실제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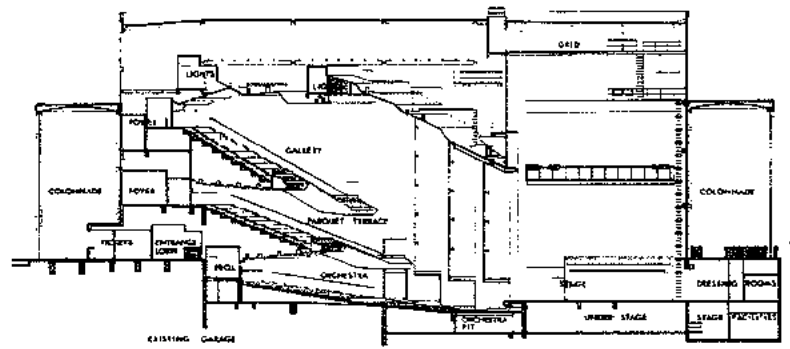
PROJECT PROCED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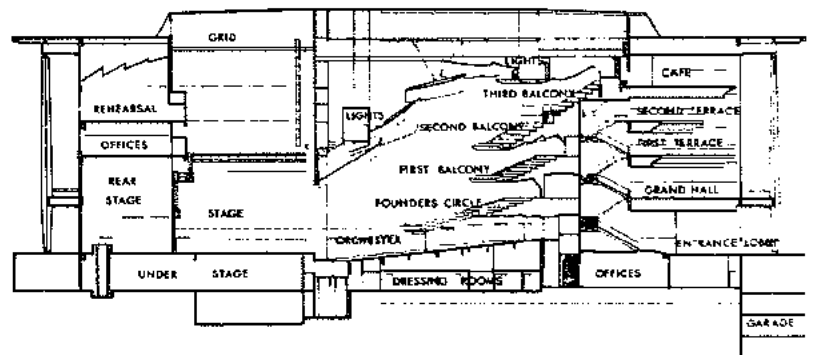
프로젝트 진행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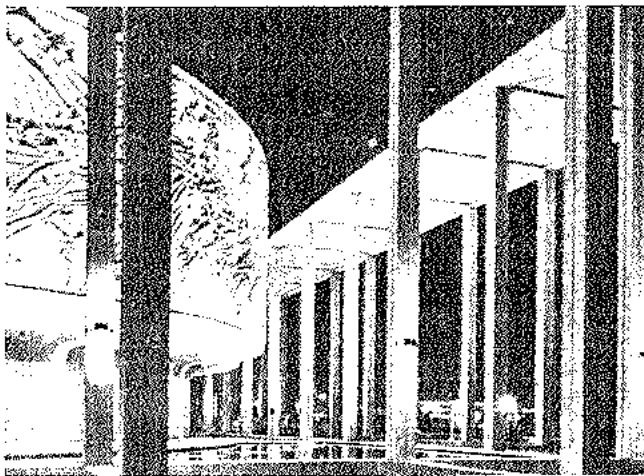
MARK TAPER FORUM
& AHMANSON THEAT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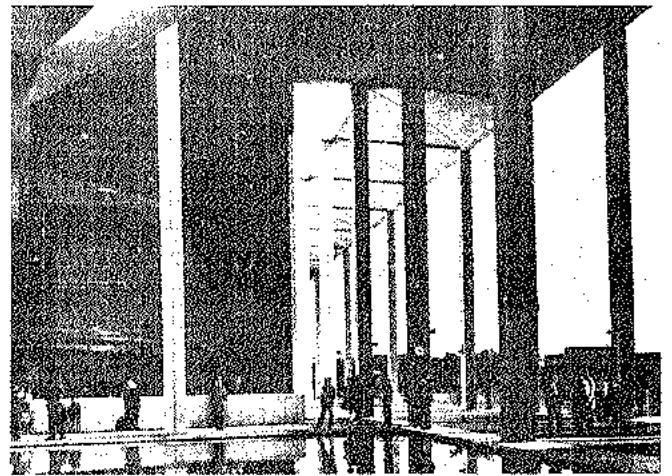
AHMANSON THEAT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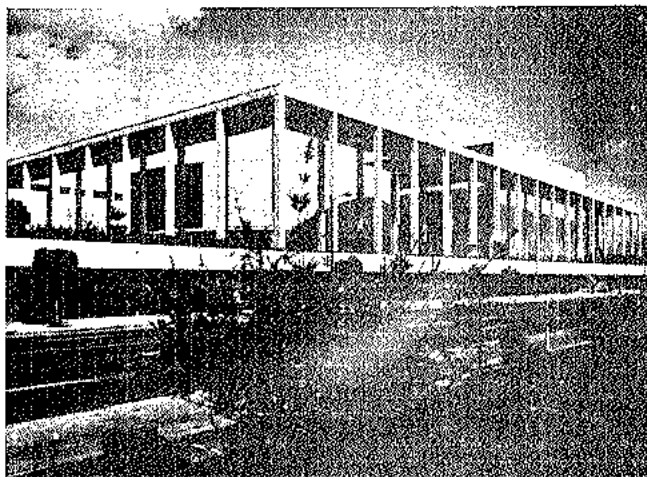
DOROTHY CHANDLER PAVILION



Forum 外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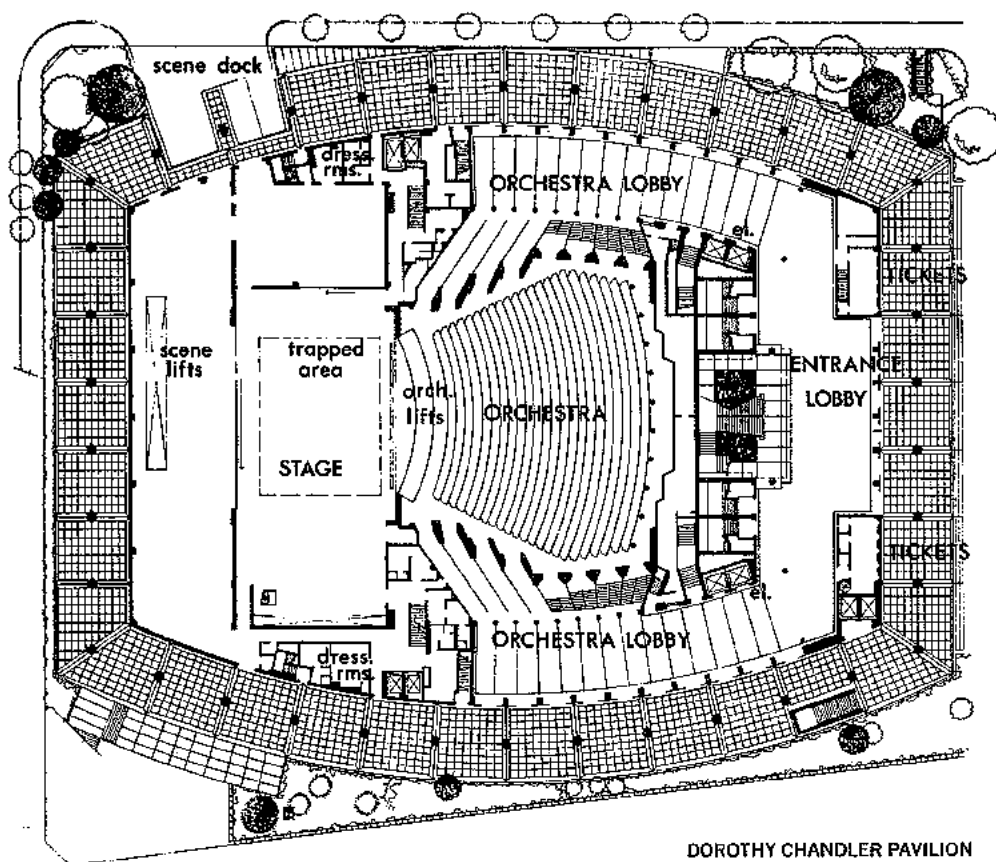
Pavilion 内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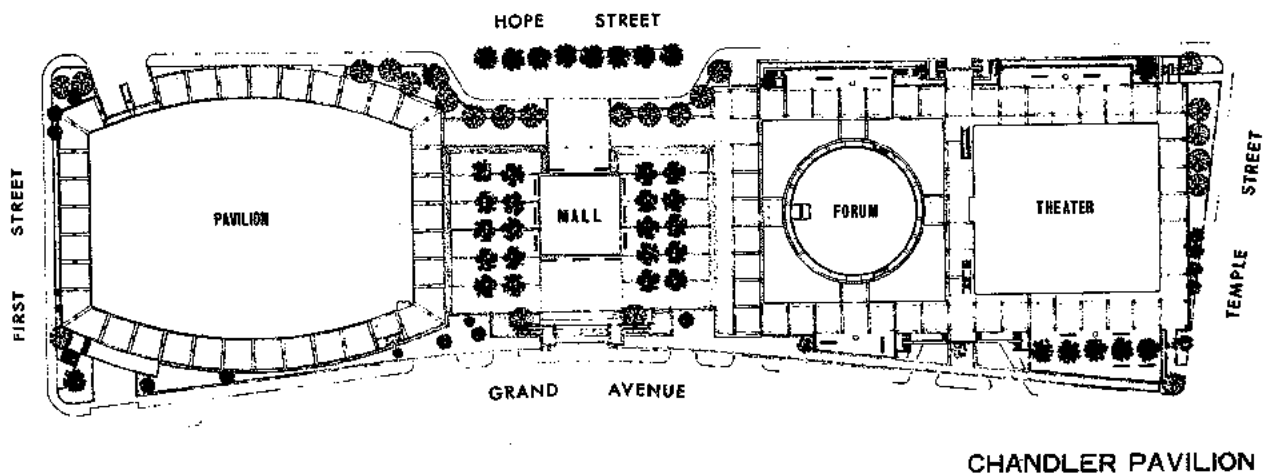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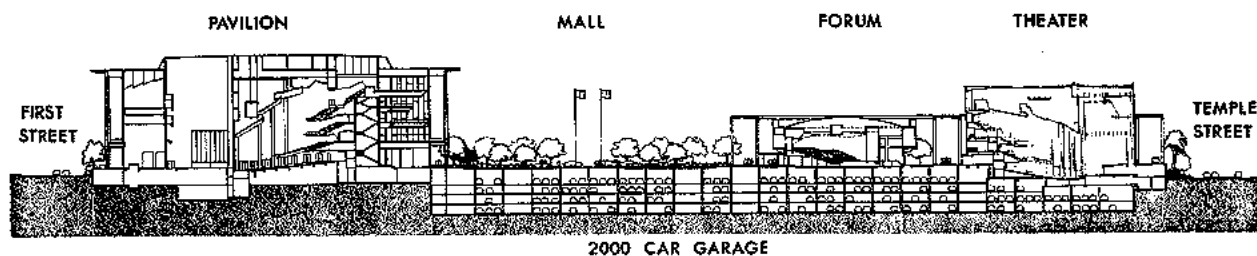
Forum 外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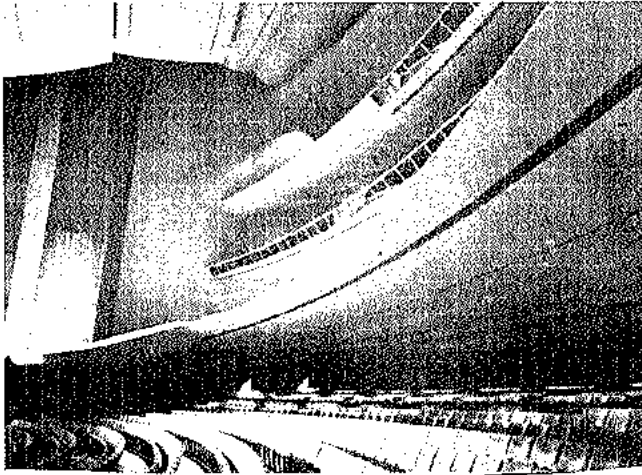


大韓建築士協會誌通卷第109号



In the plans shown on these pages may be seen two fundamentals of the scheme developed for the Los Angeles Music Center. As may be seen, the most basic decision was to develop three completely separate theaters, each tailored to its purpose, and to relate each to the others with arcades, a great plaza and similarities in exterior treatment.





Theatre 内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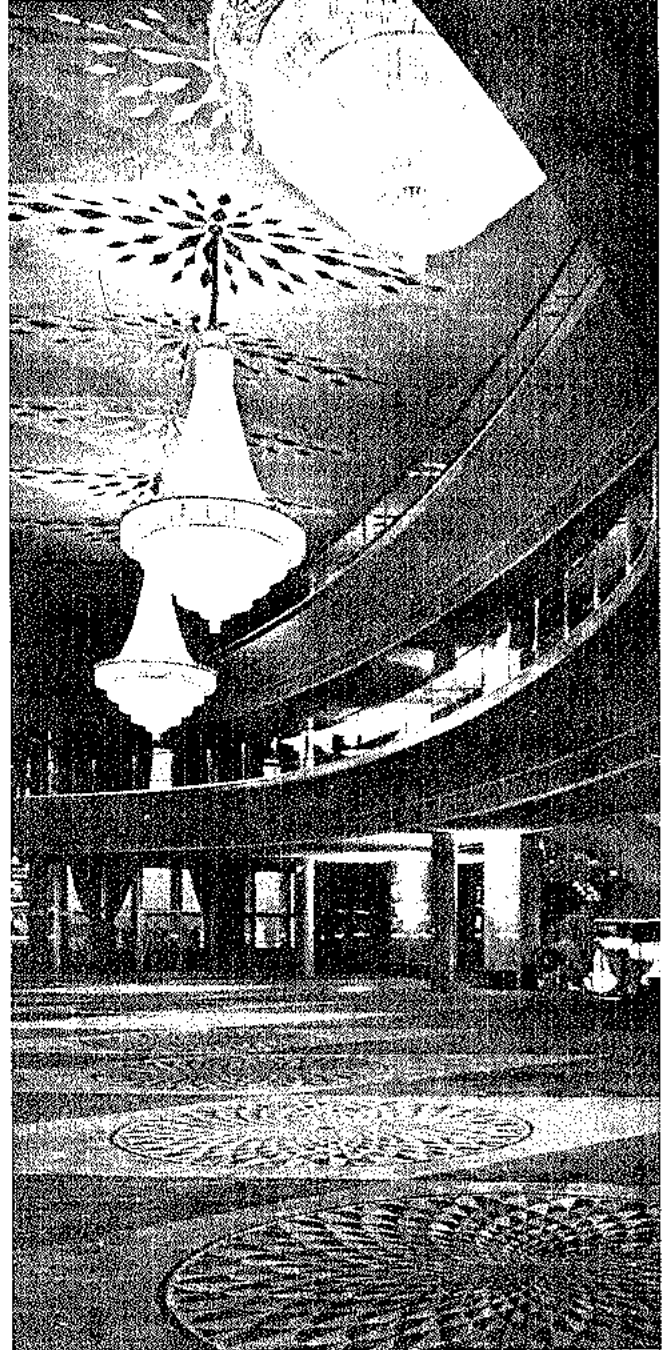
Pavillion 표지판의 Graphic Design



Restaurant Table



Pavillion 의 현당식 Poster



Pavillion 内部Grand hall

国土綜合開發計劃과 經濟成長

(2)

盧 椿 熙

〈目 次〉

II. 經濟成長 拠点으로서 都市

1. 生産單位로서 都市
2. 集積利益
3. 外部經濟

III. 工業化와 都市化

1. 産業構造의 高度化
2. 經濟的 隔差와 人口移動

IV. 結 言

II. 經濟成長 拠点으로서의 都市

生産單位(Unit of Products)

都市의 歷史는 紀元前 5,000年을 前後하여 西曆人은 祭神의 場所로 都市를 만들었고 로마人들은 軍事, 産業土心要에 依하여 都市를 만들었다고 한다.

人類文明의 祭神地인 “메소포타미아”는 그 土地가 肥沃하고 큰 江의 溪谷을 찾아 最初에 보리와 밀農事를 하게 된 150名의 遊牧民 조르마(Jorma)人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들은 “유프라테스”와 “타그리스”江邊을 따라 都市文明을 이루기 始作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에집트는 나일江, 파키스탄은 인더스江 그리고 中國은 黃河를 찾아서 또한 서울의 경우는 漢江을 따라서 都市가 자리를 잡고 發展하게 되었던 것이다.

都市의 出現은 社會的 文化的 發展을 促進시키게 되었으며 그 後 輸送技術의 發展은 人口를 分散시키는 데 크게 貢獻하게 되었다.

따라서 都市는 하나의 江과 山을 向邊에 두고 中心을 이루고 點에서 線으로 線에서 다시 面으로 面에서 다시 線을 이어 계속 연결되어 뻗어나가게 되는 것이다.

都市中心은 그 地域에서 살고 있는 人들을 爲하여 必要한 서비스를 生産할 수 있는 地域平面을 이루게 되었고 그 後 輸送이 發達됨에 따라 멀리 갈 수 있는 能力에 依하여 鐵道와 海岸을 따라 他地域까지 線을 연결할 수 있게 되었다.

“헨리 프랑크”의 말을 빌면 “文明이란 都市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 까닭은 都市는 技術革新을 爲한

環境을 提供해주고 있고 技術革新은 都市의 成長과 擴大를 可能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進歩된 技術은 점점 複雜해 저가는 分業化에 依存性을 가지게 되었다. 左右間 都市는 人間의 繁榮을 가져다 주었음에는 틀림이 없겠다. 따라서 人間의 無數한 接觸에 依해서 만들어진 人間關係의 集積은 文化가 되고 이 文化는 다시 다음 世代로 傳承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왜 많은 人들이 都市로 集中되고 있는가를 보면 經濟的 動機(Economic Motivations)와 非經濟的 動機(Social motivation)라고 할 수 있겠다.

經濟的 動機란 個人의 就業機會가 많은 것을 말하게 되며 또한 높은 所得源泉의 機會가 農村보다 많다는 것이다.

서울市 轉入人口의 轉入動機를 分析하여 보면 全體의 57%가 經濟的 動機임을 發見할 수 있겠다(表11)

그러므로 人들은 좀 더 좋은 生活을 營爲하려고 都市로 물려들게 되며 따라서 所得의 極大化와 居住와 就業進拔의 自由라는 基本權은 結局 社會發展의 原動力(Power)이 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集積利益(Agglomeration of Economy)

都市의 魅力(Attraction)은 資本의 集積과 欲望의 集積이라고 할 수 있겠다. 企業이나 人은 이 두가지 魅力을 찾아서 끊임없이 都市로 集結하게 된다. 따라서 企業이나 個人의 移動은 그에 依하여 새로운 集積을 낳고 集積은 集積을 낳게 된다.

〈表11〉 서울시轉入人口의 轉入動機

分類	轉入動機	1965 ¹		1970 ²		1973 ³
		家口轉入		單獨轉入		農村單獨轉出者 (%)
		No.	(%)	No.	(%)	市道間移動 (%)
經濟的動機	職場關係	131 (29.1)	(57.5)	188 (38.7)	(54.7)	(52.9)
	求職	99 (22.0)		73 (15.0)		(5.7) (59.6)
	轉就業	29 (6.4)		5 (1.0)		(1.0)
社會文化的動機	婚姻關係	4 (0.9)	(12.0)	28 (5.8)	(25.6)	(4.4)
	子女教育	27 (6.0)		1 (0.2)		(12.2) (19.0)
	進就學	9 (2.0)		63 (13.0)		(2.0)
	家族關係	35 (7.8)		32 (6.6)		(0.4)
	軍事關係	3 (0.7)				
心境的動機	懷鄉	22 (4.9)	(25.1)	45 (9.3)	(19.7)	(1.6)
	轉居地가 싫어서	13 (2.9)		8 (1.6)		(20.0)
	전업이불러고	78 (17.3)		43 (8.8)		(18.4)
	其 他					(1.4)
	計	486 (100.0)		450 (100.0)		(100.0) (n=756) (n=1 068 571)

1) 人口問題研究所, 人口問題論集, 第3號, 1966, 表3~14, p. 77

2) 尹鍾淵, 農村出生力 및 轉出人口에 관한 研究, 1971, 表 7~11, p. 156.

3) 경제기획원, 이동통계연감, 1973, 表10, p. 254 (住民登錄記錄에 의한 것임)

다시 말하면 돈은 돈을 부르고 일은 일을 부르고 消費는 消費를 낳고 文化는 文化를 부르게 된다. 또한 政府資本의 集積은 民間資本을 모으고 民間資本은 社會資本을 集積하게 된다. 이와같은 都市集積이야말로 企業이나 사람에게 있어서 都市의 魅力이라 하겠으며 經濟的 魅力外에 社會的, 文化的 生活의 魅力으로 大別할 수 있다. 都市의 經濟的 魅力을 供給과 需要面에서 살펴 보면 經濟的으로 供給面(生産)의 3要素인 大地(Land) 勞動(Labor) 資本(Capital)이 서비스와 企業의 存位을 可能하게 하며 需要面에서는 企業과 公給서비스가 成立되어 이들이 生産에 必要한 生産財의 需要와 이에 從事하는 從業員의 生必品 및 財貨 서비스의 需要를 創出하게 된다. 그러므로 供給과 需要의 兩要素는 相互依存性이 있음으로 都市人口 및 企業의 集中으로 經濟主體의 生産活動에 必要한 生産要素를 만들어 낸다. 一般的으로 都市의 發展過程에서 보면 이미 人口와 産業의 集積이 있는 地域에 對하여 資本과 技術의 集中과 蓄積이 이루어지게 되어 그 地域에 勞動力이나 서비스施設의 集積을 가져오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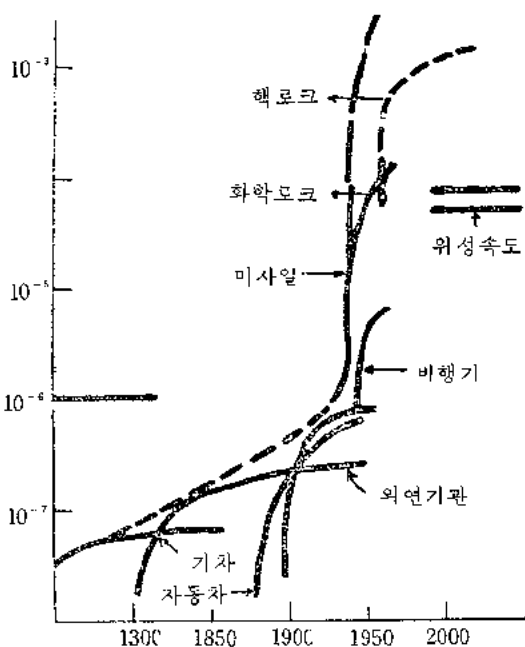
이와같은 循環波皮의 過程을 되풀이 하여 都市의 集積은 累積的으로 擴大하여 가며 企業은 採算을 有利하게 하는 條件 다시 말하면 外部經濟(External Economics)의 集積이 存在하게 된다는 것이다. 外部經濟란 Alfred Marshall이 처음 使用한 말로서 生産・消費面에서 他人의 經濟活動이 自己의 生産, 消費等の 經濟活動에 利益을 가져

오며 이러한 利益에 對한 反對給付로서 自己는 그 代價를 支拂하지 않는 關係에 있는 경우를 말하게 된다. 都市에 있어서 外部經濟要因은 政治, 經濟, 産業, 商業, 通信, 教育, 文化, 情報等 各種의 中心地라는데서 都市人은 有利한 經濟活動을 할 수 있는 外部經濟의 利益을 누리게 된다. 外部經濟의 實例로서는 財貨서비스에 對한 購買力의 集積과 關聯産業部門 및 多樣한 工業生産部門의 集積과 區域에 걸치는 輸送, 交通, 通信等 中樞的인 集積과 行政, 政治, 文化, 信用, 情報, 技術, 販賣等 直接的으로 場의 生産을 担当치 않는 第3次 機能의 集積과 高學歷者와 젊은 層等의 勞動力의 集積을 例로 들 수 있겠다. 이러한 外部經濟의 利益과 資本의 集積을 찾아서 企業이 모이게 되며 就業機會와 欲望의 集積을 찾아서 人口가 集中하게 된다. 歷史적으로 人口나 産業의 集積이 있는 地域에 資本과 技術의 蓄積이 이루어졌으며 그 地域으로 勞動力이나 施設의 集積을 가져 오게 되어 이것이 다시 原動力이 되어 새로운 産業과 人口를 부르게 되어 必要한 情報 및 文化等を 集積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으로 생긴 高度의 諸機能이 갖는 外部經濟利益과 大規模화된 市場이 다시 産業・人口・情報・文化・娛樂機能을 불러 集積을 累積的으로 擴大해주어 大都市와 같은 높은 生産성과 많은 所得 및 많은 就業機會를 實面시키게 된다.

지금까지 經濟動機를 살펴 보았다. 그러면 非經濟的인 動機로서는 먼저 生活의 魅力으로 下水道, 가스, 道路,

公園等과 그리고 生活에 便한 交通, 病院, 娛樂施設等은 즐거운 餘暇를 보낼 수 있고 文化的 魅力으로서는 苦術, 知職, 教育等이 農村에서 볼 수 없는 點을 가지고 있다. 都市는 農村보다도 더 많은 富와 더 많은 技術 더 많은 科學 더 많은 離婚 더 많은 出産, 死亡, 더 많은 富者와 貧者 그리고 더 많은 어리석은 사람과 賢明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 善이 있는가 하면 惡이 있고 美가 있는가 하면 醜가 있는 것과 같이 都市란 모든 것을 함께 가지고 같이 살아 나가는 것이다. 特히 古代都市는 消費만을 爲한 都市로서의 性格을 가지고 있었으나 오늘날의 都市의 性格은 生産과 消費를 兼하고 있게 되었다. 아담 스미스(Adam Smith)는 말하기를 土地는 반드시 剩餘農産物을 生産하여 都市人口를 먹여 살려야 한다고 하였다. 이말은 都市가 반드시 農土를 가지고 直接 農事를 짓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에집트”에서는 紀元前 3世紀에 必要한 食糧의 3배나 더 生産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로마”時代에는 이미 都市人口 한 사람이 都市生活를 營爲하는데 必要한 生産을 爲하여서는 農村人口 50~80명이 있어야 했다고 한다. 그러면 現今은 어떠한가? 美國의 例를 살펴 보면 오늘날 美國에서 태어난 한 어린이가 消費하는 資源은 아프리카 사람 80명이 消費하는 量에 相當한 資源을 大量으로 消費한다는데 注目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같은 都市生活의 急激한 變化는 무엇이 原因이 되었나를 보면 먼저 技術의 發達이라고 할 수 있겠다. 人間의 知職의 在庫는 지금으로부터 335年前 이태리의 天文學者 갈릴레오(Galileo)時代보다 200萬倍 나 (表12) 늘었다고 한다.

〈表12〉 速度曲線



Source: Courtesy Robert U Ayres. Hudson Institute
大韓建築士協會誌通卷第109号

이와 같은 結果는 教育과 研究開發의 成果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눈부신 科學의 研究가 200年以内に 이루어졌다는 것과 더욱 놀라운 일은 지난 10年間에 急速히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눈부신 結果는 頭腦産業育成을 爲한 投資比率에서 찾아볼 수 있겠다. 1971~1972年을 基準으로 蘇聯은 4.6% 美國은 3.9% 英國은 2.8% 西獨은 2.7% 日本은 2.2%, 프랑스 2.0%의 投資水準을 各各 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政府가 強力히 推進하고 있는 重化學工業育成이나 技術開發의 確立과 科學技術의 土着化를 爲한 科學技術開發投資를 本格的으로 擴大投入함으로써 現在의 國民總生産의 0.5% 水準인 研究開發投資를 1981년에는 1%以上 擴大 集中投資할 計劃이다 (表13)

〈表13〉 研究・開發・投資의 國際比較

單位: 對GNP(%)

韓 國 (1976)	日 本 (1973)	美 國 (1972)	英 國 (1970)	프랑스 (1971)	西 獨 (1970)
0.5	2.2	3.1	2.8	2.9	2.1

拠点開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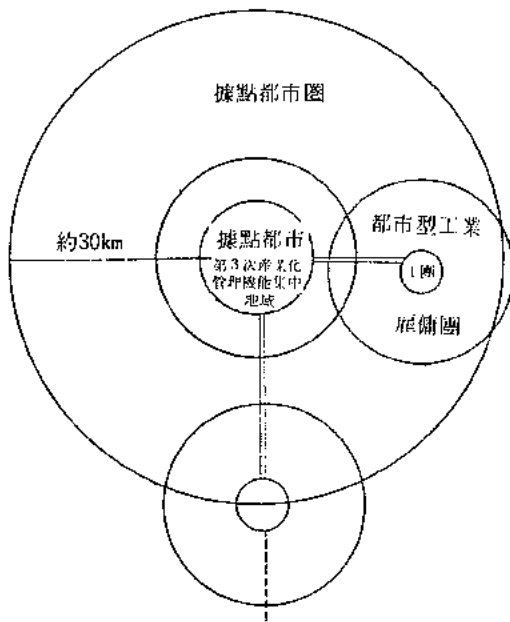
經濟成長面에서 보면 以上과 같은 過程은 大都市로 企業을 集中시키는 結果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어떤 特定 大都市에 擴大作用을 誘導하거나 抑制하기 爲해서는 投資로써 開發을 하여왔다.

F. Perrovx는 이 開發方法을 經濟成長拠点이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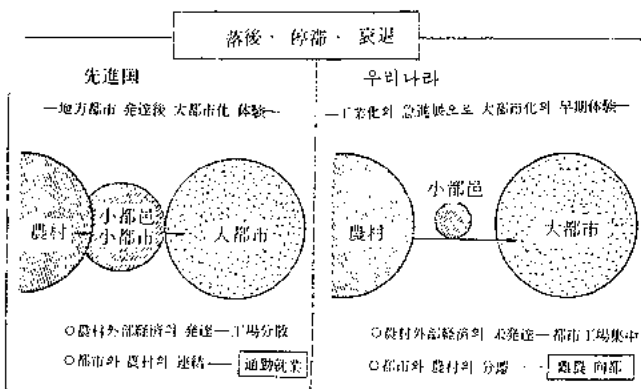
成長拠点は 特定地域과 그 周辺地域을 爲하여 많은 富와 市場을 創出해 낼 뿐 아니라 이런 過程을 反復하므로써 經濟活動 中心地를 이룩하여 同地域밖의 拠点地域(Pale Regions)에 까지 그 波反作用을 擴大하여 여러 低開發地域까지 開發의 力量을 拡散시키자는 것이다 (表14) 그러나 이러한 集中的인 投資는 다음과 같은 條件을 가지고 있느냐를 配慮하여야 한다. 먼저 低開發地域에 賦存되어 있는 資源을 어느 特定한 停滯되어 있는 中心地域에 集中投下하므로써 投資된 資源에 對한 代價를 보다 크고 빠른 方法으로 回收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判斷되었을 때, 그리고 既存의 賦存資源을 계속 集中的으로 投資하므로써 地域自體의 成長뿐만 아니라 地域的에 보다 큰 收益 域은 所得과 雇傭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두가지 條件을 考慮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한편 物價安定政策이 國家經濟成長政策의 目標가 相衡되듯이 相互背馳되는 것이다. 따라서 國家經濟成長 政策의 追求는 地域階層間에 隔差의 幅을 크게 하는 것이다.

地域隔差解消方案으로 大都市의 人口및 産業活動을 地方 或은 落后地域으로 移動시키려는 政策(表15)과 또 다

〈表14〉



〈表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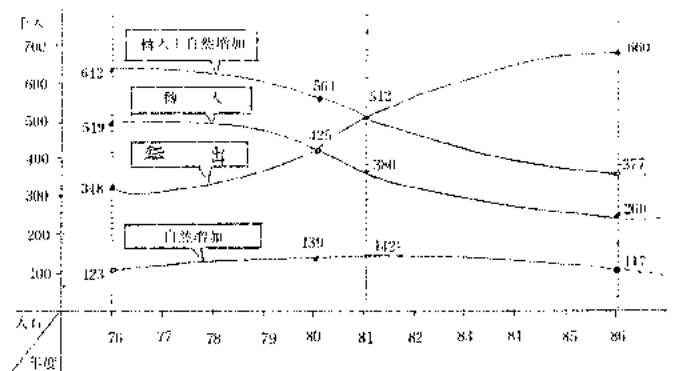


는 方法으로서 地方中小都市를 보조하여 大都市로의 移動의 流入을 막는 方法이 있겠다. 過密된 都市生活을 落后地로 移動시킨다는 것은 都市規模性(Economic of Scale) 自体가 주는 能率性(Efficiency)을 喪失한다는 弱點이 있다고 볼 수 있고 한편 地方中小都市를 補助한다는 社會間接部門의 莫大한 投資가 있어야 한다는 弱點等이 있다는 것을 들 수 있겠다. 따라서 豊饒한 先進國으로서는 기꺼이 人口 및 産業을 落后地域으로 옮기는 것이 어렵지 않겠지만 財政이 貧困한 我們은 지금 經濟成長과 能率性의 創造를 至上目標로 삼고 있으면서 成長과 相衡되는 大量投資型의 方法을 取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많은 資本投資를 要하는 地方中小都市의 物量의 育成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比較的 많은 資本을 要하지 않는 手段을 動員하여 人口 및 産業移動因子들을 緩和 내지는 除去시켜 나가는 方法을 取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므로써 大都市의 自然의 人口成長을 除去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社會的 增加를 最小化하여 自然增加에 収斂하도록 努力하는 政策이 追求되어야 하겠다.

農村地域에서 同地域을 떠나 大都市로 向하는 移動人口의 年令構造는 가장 勞動生産性이 높은 16~45세 사이인데, 그들이 과밀도시로 들어오면 就業하지 못하는 失業群이 되고 이때문에 農村의 可能性은 줄어들게 되며 國家經濟面에서는 都市에서 就業하지 못한 豊富한 人力資源을 浪費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都市問題는 農村으로 부터 流入된 人口때문에 住宅難, 交通混雜, 公害等이 加重하여 都市 公供施設의 費用支出이 增大하게 된다. 그러므로 大都市行政은 急増하는 都市人口가 유발하는 公共서비스의 需要에 미처 対応하지 못하게 되며 都市全体에 物理的 精神的 道德的 頹退가 따르게 마련이다.

國家 都市政策上 大都市問題에 비중이 큰 것이 사실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지방의 群小都市들이 相對的으로 過小都市化되어 있어 自体推進의(Self Propulsive)인 都市成長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게 되며 따라서 그들 都市가 中心이 되고 있는 地域經濟를 統合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점에서 볼 때 國家都市政策의 目標은 全的으로 空間經濟 效率性을 向上시킬 뿐만 아니라 大都市體系(Urban System)의 均衡의 發展 좀더 나아가서는 地域間의 隔差解消을 目的으로 하는 均衡의 追求와 國土의 環境保存을 前提로 한 大都市의 肥人化를 줄이고 그만큼의 都市流入人口를 과소도시와 地方의 中小都市로 誘導하여 過密都市化(Over Urbanization)와 過小都市化(Under Urbanization)의 二問題를 同時に 解決하여야 할 것이다. (表16)

〈表16〉 轉入轉出의 逆調整目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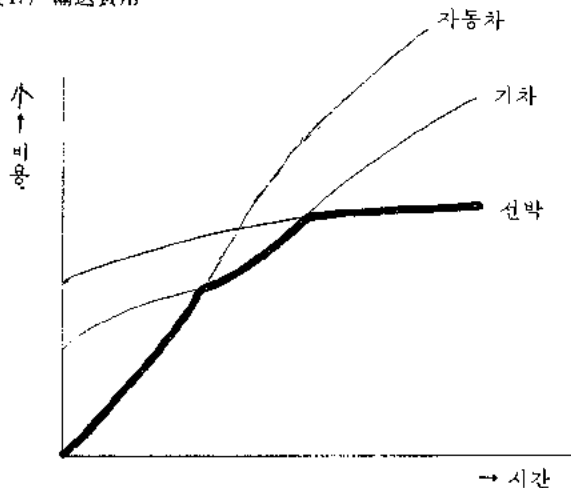
工業化(Industrialization)와 都市化

都市化(Urbanization)가 工業化를 隨伴하는 工業化가 都市化를 뒤따라가든 兩者間에 相互補充的 相關關係가 있음을 누구도 否認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1962년부터 始作한 第1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이 實施된 以來 우리나라의 工業은 國民經濟의 積極的인 高度成長을 主導한 先導成長部門으로서의 機能을 다하여 왔고 그 量과

質, 兩面에서 割日할 만큼 發達하게 되었다. 지난 70餘年間的 工業發達過程을 時期別로 類型化를 보면 1960年代 中盤까지 纖維, 飲食品, 고무, 皮革等を 주로 한 初期消費財工業開發段階 그리고 1960年代 中盤에서 1960年代初에 이르러서는 化學肥料 精油工業等の 中期 中間財工業開發段階 그리고 1970年代 中盤以後의 鉄鋼, 造船, 機械等 資本財工業開發을 內容으로 하는 工業化의 成熟段階로 区分할 수 있겠다. 이와같은 戰略的인 工業化推進過程을 통하여 工業化率은 1961年の 10.6%에서 1975년에는 32.1%로 上昇되었고 工業構造高度化의 象徵的 指標로 되고 있는 重化學工業化率도 同期間中 29.6%에서 42.4%로 높아지게 되었다.

“존슨”같은 經濟學者는 말하기를 發展途上國家의 都市는 먼저 오랜 歷史동안 그 나라의 首道로서 政治 行政의 인 힘을 가지고 다른 余他國土空間을 支配하여 왔다고 하였다. 그리고 大都市와 小都市를 연결하는 交通網보다는 大都市間을 연결하는 線型的 交通網때문에 大都市와 余他地域間에 여러가지 隔差를 생기게 한다고 하였다. 交通網이란 迅速・正確한 大量的 輸送利點과 輸送費의 節減(表17)等 需要와 供給을 相對的으로 빨리 調節하고 地域間 價格差의 解消와 物價安定과 消費者에 利益으로서 流通마진의 減少等을 들 수 있겠다. <表18>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産業體의 立地(Location)는 살펴보면 高速道路 沿邊 輸出産業體 總數 2,660個産業體中 그 87%에 該當하는 2,326個産業體가 高速道路 左右 沿邊 30km以內에 位置하고 있음을 發見할 수 있는가 하면 또한 그 輸出実績에서는 1972年の 12億弗에서 1975년에는 42億弗로써 3.6倍 以上の 伸張率을 보여주고 있어 高速道路의 立地條件은 工場誘致와 그 分散과 더불어 地域所得과 雇傭의 地域間 均衡發展에 크게 寄与하였으며 또한 地域開發의 促進濟가 되었다고 본다.

<表17> 輸送費用



<表18> 高速道路沿邊輸出産業의 發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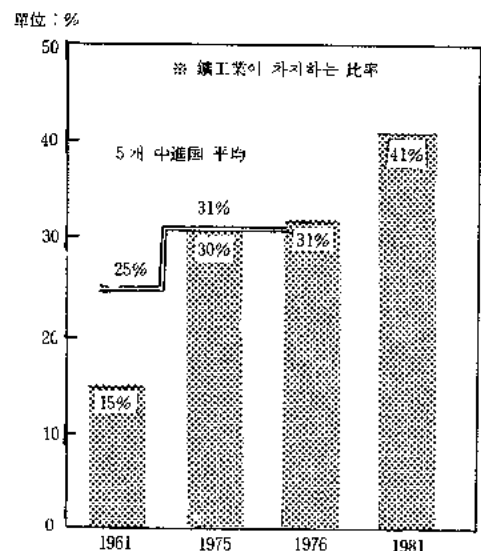
() : 構成比

區 分	沿邊事業體數(個)			輸 出 額(千\$)		
	1972	1975	增加率 (%)	1972	1975	增加率 (%)
高速道路沿邊	981 (70.8)	2,326 (87.4)	136.2	1,244,986 (78.2)	4,296,446 (89.6)	245.1
高速道路沿邊外	404 (29.2)	334 (12.6)	△17.3	347,166 (21.8)	497,038 (10.4)	43.2
合 計 (全 國)	1,385 (100.0)	2,660 (100.0)	92.1	1,592,152 (100.0)	4,793,484 (100.0)	201.1

産業構造의 高度化

人間의 自己所得 極大化를 爲한 本性和 居住 및 職業의 自由選擇權은 無限한 經濟發展의 動力이 되어 왔고 農村對 都市의 所得隔差는 工業化를 爲한 勞動供給의 源泉이 되어 왔다(表19). 우리나라의 工業化水準은 50%로서 先進國인 美國의 工業化水準인 95.4%와 日本의 89.5%에 훨씬 未達하고 있으나 工業化의 水準은 先進國을 뒤따르게 되어 머지않아 75%의 水準에 到達할 것이다. 이와같은 工業化가 進行됨에 따라 必然的으로 産業構造는 變化하게 되어 製造業을 包含한 第2次産業의 比重이 높아지며 農業의 比率이 漸次 減少하게 되고 나아가서 서비스産業과 4次産業인 研究事業의 總量은 增大하게 될 것이다. (表20) 따라서 産業構造의 變化는 雇傭

<表19> 産業構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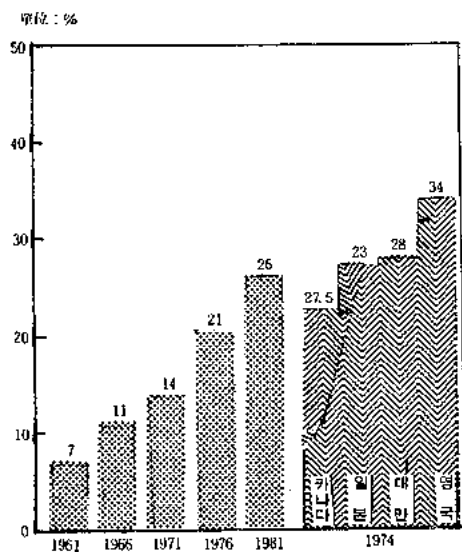


構造의 變化를 隨伴하게 되며 經濟發展에 따라 一次産業의 從事者인 農村의 人口를 3次産業으로 옮기게 한다.

産業構造의 高度化에 따른 GNP에서 製造業의 比重을 보면 1976년에 製造業이 35% 그리고 重化學工業이 41%를 나타내고 있어 繼續的인 成長을 示顯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表21).

우리나라 經濟發展의 制約要因으로는 國內市場의 狹少와 資本의 不足을 打開하여야 함으로 對外指向的인 工業化戰略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工業化戰略의 追求는 必然的으로 勞動集約的인 輕工業 中心인 工業化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輕工業對 重工業의 比率는 1975年 現在 55對 45로 落后性을 免치 못하고 있다.

(表20) 雇傭構造(鑛工業都市部門)



(表21) 産業構造의 高度化

단위: %

	1966	1971	1976
農 林, 水 産	35.4	28.9	24.7
鑛 工 業	20.1	22.8	31.1
製 造 業 (중화학공업)	18.5 (35.9)	21.7 (39.2)	30.0 (41.1)
社會間接資本및 기 타	44.3	48.3	44.2

註: 經常價格基準
資料: 韓銀 經濟總計年報

이는 우리나라의 1975年 所得水準과 비슷한 日本의 1955年 43對 57에 크게 未達하고 있다. 그러나 重化學工業에서 機械工業의 比重은 不過 10% 水準에 있고 電子, 金屬製品은 15.1%에 지나지 않는데 日本의 경우 1955年 22.5% 1953年의 西獨, 네덜란드 및 벨기에는 26~29%의 水準을 各各 보이고 있어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單純勞動集約的인 輕工業 爲主의 工業化過程은 그 스스로의 限界에 부딪쳐 더이상 成長의 原動力役割을 期待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勞動集約的인 輕工業製品의 需要는 一般的으로 所得彈力性이 낮기 때문에 市場의 擴大에 限界가 있음으로 우리나라 經濟의 持續的인 成長의 基盤을 마련하기 爲해서는 重化學工業을 中心으로 한 工業構造의 改編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全國 各 都市地域의 工業集中은 몇개 地域을 除外하고 大都市일수록 製造業 從事者의 數가 많은 것을 알 수 있겠다. 이는 都市人口增加와 製造業 從事者의 數와의 關係를 알 수 있으며 特別히 大都市의 人口增加는 國家의 工業化政策과 密接한 關係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表22) 우

(表22) 輸出工業團地現況(1975)

	分讓現況(千坪)		入住(業體)	• 編(千名)
	可用面積	分讓面積	1,346	189.7
1975末	8,671	7,044		256.6(1976)

料料: 公傭단지란 • 話

리나라의 製造業의 業種別 地域別 集中은 業種間的 關聯效果 및 産業關聯 關係보다는 市場指向的이거나 技術이나 勞動力에 따라서 集積하거나 分散되는 것이다. 從業員의 都市規模別分布를 보면 都市規模가 千을 80人 以上の 製造業에 從事하는 人口數의 比重이 높음을 알 수 있겠다. 1971年의 鑛工業센서스 結果에 依하면 全國 製造業 附加價值의 3% 以上을 生産하고 있는 都市로서는 서울이 34.7% 釜山이 13.7% 울산이 8.8% 仁川이 7.8% 그리고 大邱가 3.4%의 比率를 占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全體 製造業 從事者中에서 차지하는 比率는 77%이고 釜山 大邱가 74% 그리고 其他 50萬 以上の 都市들이 71%인데 對해서 人口 50萬 未滿인 경우 50%의 낮은 率을 示顯하고 있다.

製造業種의 人口指向的인 原因은 무엇보다도 工業化의 初期에 있어서 大都市에만 近代的인 工業에 從事할 수 있는 勞動力을 싼 값으로 求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工業化가 本格的으로 이루어지기 前인 1960年代 以前에는 大道市들은 이미 相當한 量의 人口를 收容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렴한 勞動力 供給源이 될 수 있었다. 따라서 大都市로 물려든 勞働人口는 이미 相當한 程度의 教育을 받은 人口였기 때문에 初期工業이 勞働訓練을 爲한 새로운 投資를 하지도 않고 必要한 勞働生産性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高度의 技術을 要하는 業種에 있어서는 充分한 勞動力을 求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經濟的 隔差(Economic Disparity)와 人口移動

地域間 不均衡 發展은 經濟的 社會的 變化에 依하여 이루어지는 同時 地域間的 不均衡 發展은 相互影響을 주고 받고 하는 依存關係를 가지고 있다. 相互依存關係에 있는 代表的인 것은 經濟 社會的 變化로서 財貨와 人口의 移動을 들 수가 있다.

Adam Smith가 그의 “國富論”에서 荷物中에서 人間만큼 輸送하기 어려운 것은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人口의 移動을 解決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物資와 人口는 同一한 投入量에 對한 單位時間當 產出이 많은 地域으로 移動하게 되므로 自然히 여러 個의 地點으로 集中하게 된다. 物資와 人口가 集中되어 있는 곳은 規模經濟性(Economic of Scale)의 原理에 依하여 그들이 集中되어 있지 않는 地域에 比하여 絶對적으로 높은 利益을 生産하게 되며 이것이 바로 經濟的 集積利益의 原理인 것이다. 따라서 財貨와 人口가 모이는 곳은 더 많은 利益을 生産하고 그 結果로 더 많은 財貨와 人口를 끌어오게 하는 輸送反應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人口의 集積과 資本의 集積 및 情報의 集積은 強한 相互依存性을 基礎로 勞働의 分業과 空間의 分業 및 時間의 分業 등으로 機能的 集積을 이룰 때 비로소 그들은 人類社會의 높은 發展의 素材를 發見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一般적으로 그 地域經濟가 發展한다는 것은 그 地域의 産業構造가 第1次 産業보다는 2次 産業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3次 産業으로 그 比重이 옮겨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産業構造의 分析은 그 地域社會 發展의 基盤인 經濟力과 그 發展을 알아보기 爲한 手法이기도 하다. 따라서 地域隔差를 是正하기 爲한 計劃的인 地域開發計劃을 模索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經濟는 1950年代에 年平均 成長率이 4.8%였던 것이 經濟計劃에 힘입어 1960年代에 9.9%로 飛躍的 發展을 이루었고 또한 國民所得은 2倍以上으로 增大되었고 2次 産業은 4倍로 增加하였다. 1971年 第2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終3年度의 産業構造 構成比는 1次 産業이 26.48% 2次 産業이 24.42% 그리고 3次 産業이 49.1%로 變貌되었다.

國家經濟發展의 바람직한 目標은 經濟成長의 極大化와 地域間 隔差의 極小化에 있다고 생각된다.

大韓建築士協會誌通卷第109號

經濟發展 初期段階에 있는 나라는 經濟成長의 伸張에 따라 地域間 隔差가 擴大되는 것이 一般的인 傾向이다.

따라서 成長과 地域間 隔差의 屬性은 언제나 比例하여 變한다고는 할 수 없겠다. 地域間 經濟的 不均衡을 가져다 주는 原因은 資本과 勞動力 및 技術의 相異에서 찾을 수 있고 다른 한편 自然 및 人間資源의 不均等한 分布와 天然資源의 地理的 集中에 따른 集積經濟性의 差異 및 規模經濟性의 相異에서 究明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不均等に 影響을 주는 여러가지 要素들은 時間과 場所에 따라 그 影響의 程度가 다르게 되므로 隔差要因分析은 空間과 時間이란 次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地域間的 經濟的 隔差에 比較的 敏感한 反應을 받는 것은 人口移動이다. 따라서 均衡의 發展을 爲한 地域間의 人口移動의 크기와 要因은 分析 研究되어야 한다. 더욱 重要的인 것은 移動하는 人口가 “어디에서-어디로-언제-얼마의 數가” 移動하는가를 알아야 되고 또한 사람이 움직이는데 반드시 動機(Motive)가 있음으로 “왜 移動하고 있나”를 알아야겠고 다시 移動人口는 出發地 및 定着地에서 “무엇이-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를 綜合적으로 分析研究가 되어야겠다.

結 言

1. 隔差(Disparity)

所得의 增大는 生活水準의 向上을 가져오며 그것은 또한 生活環境水準의 要求를 高度化하여 한 特定地域은 다른 어떤 地域보다도 量的·質的으로 強한 公共投資 壓力에 作用을 한다. 그 結果 生活環境의 隔差는 한 地域에 有利하게 擴大되어 特定地域人口를 誘引하는 要因이 된다. 이것은 또한 未就業 勞働人口를 誘引하는 것 뿐만 아니라 公共投資에 따른 産業聯關效果는 特定地域에서의 企業集積을 통해 더욱 이 地域으로 사람들을 誘引하게 된다. 따라서 生産環境 隔差는 社會資本水準에 민감한 費用構造를 가진 企業의 擴大 新設에 있어서 立地選址은 特定地域에게 有利하게 하며 또한 人口와 雇傭을 集中시키는 要因으로서 作用하게 된다.

經濟成長面에서 보면 以上과 같은 過程은 大都市로 人口나 企業을 集中시키는 結果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어떤 特定 大都市의 擴大作用을 誘導하거나 抑制하기 爲하여서는 集中的 投資로써 開發을 하여 왔다.

F. Perroux는 이와 같은 開發方法을 經濟成長拠点이라고 하였다. 成長拠点は 特定地域과 그 周邊地域을 爲하여 많은 富와 市場을 創出해 낼 뿐 아니라 이런 過程을 反復하므로써 經濟活動 中心地를 이룩하여 同地域밖 에까지 拠点地域(Pole Region)에도 그 波及作用을 擴大하여 여러 低開發地域까지 開發의 力量을 擴散시키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集中的인 投資는 다음과 같은 條件을 가지고 있느냐를 配慮하여야 한다. 먼저 低開發地域에 賦存되어 있는 資源을 어느 特定한 停滯되어 있는 中心地域에 集中投下함으로써 投資된 資源에 對한 代價를 보다 크고 빠른 方法으로 回收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判斷되었을 때 그리고 또한 既存의 賦存資源에 계속 集中的으로 投資함으로써 地域自體의 成長뿐만 아니라 地域內에 보다 큰 收益 或은 所得과 雇傭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된다는 두가지 條件을 생각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價格安定政策이 國家經濟成長政策의 目標과 相衡되듯이 相互背馳되는 것이다. 따라서 國家經濟成長政策이 追求되는 地域계통간에 隔差의 幅을 크게 하게 되는 것이다. 地域隔差解消方案으로 大都市의 人口 및 産業活動을 地方 或은 落后地域으로 移動시키려는 政策과 또한 方法으로서 地方 中小都市를 保存하여 '大都市'의 移動의 流入을 막는 方法이 있겠다. 過密된 都市活動을 落后地로 移動시킨다는 것은 都市規模性(Economic of Scale) 自體가 주는 能率性(Efficiency)를 害한다는 短点이 있다고 볼 수 있고 한편 地方中小都市를 補助한다는 社會間接部門의 莫大한 投資가 있어야 한다는 弱点이 있다는 것을 들 수 있겠다. 따라서 豐饒한 先進國으로서는 גיע이 人口 및 産業을 落后地域으로 옮기는 것이 어렵지 않겠지만 財政이 貧困한 우리는 지금 經濟成長과 能率性의 創造를 至上目標로 삼고 있으면서 成長과 相衡되는 大量 投資型의 方法은 取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많은 資本投資를 要한 地方中小都市의 物量의 育成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比較的 많은 資本을 要하지 않는 手段을 動員하여 人口 및 産業移動因子들은 緩和 내지는 除去시켜 나가는 方法을 取하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大都市의 自然의 人口成長을 除去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社會的 增加를 最少化하여 自然增加에로 收斂하도록 努力하는 政策이 追求되어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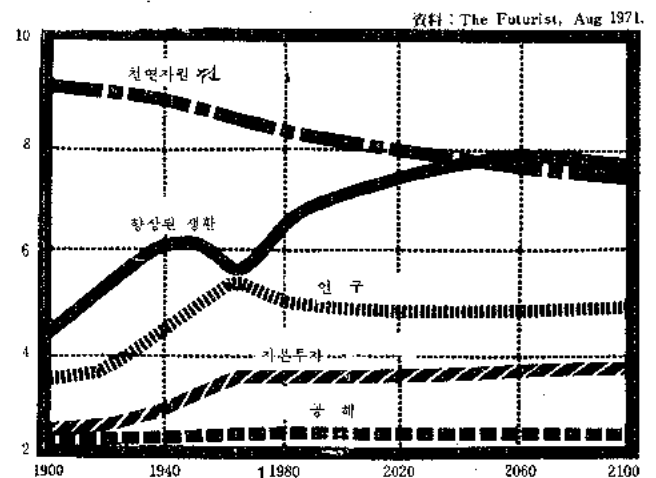
특히 教育 등은 적은 投資를 要하는 人口移動因子이면서도 能率과 關係가 있음으로 地方都市의 教育施設과 制度를 補強하여 偏在된 教育機會를 均等화시킴으로써 中小都市를 育成하는 方案이 되는 것이다.

高度의 技術의 發達은 豐饒한 社會를 이룩하여 大量消費 時代 餘暇善用(Leisure Boon)의 重要性이 두드러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前世代의 社會의 資源이 土地였으나 工業社會의 資源은 機械였고 脫産業社會의 資源은 情報(Information)으로써 情報機能이 重要한 社會의 位置를 占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雇傭面에서는 1次 2次産業의 人口가 減少되는 反面 3次 産業人口는 50%가 넘는 先進國과 같이 서비스業은 계속 膨脹할 것이다.

農村은 都市를 낳게 만들었고 都市發達은 工業化를 이르게 되었다. 또한 工業化는 技術革新(Technical Innova-

tion)을 가져 오게 되었다. 따라서 技術革新은 우리들의 生活向上을 爲하여 더 많은 便宜와 더 많은 日常用 財貨를 大量生産할 수 있게 하여 더욱 많은 消費를 可能하게 하였다. 이러한 끊임없는 變化와 樣相은 오늘날과 같은 脫産業社會(Post industrial Society)를 만들게 되었다. 産業社會의 特徵으로는 종래 所得의 源泉을 農業이나 工業에서 求하였으나 脫産業社會의 所得은 貿易, 金融運輸, 娛樂, 衛生, 教育, 研究等 專門的인 職業群(White Color Work)으로 變貌하게 되었다. 따라서 宿命的으로 變化過程을 어떻게 다루어야 人間이 바람직한 生活를 계속 영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들의 重要한 課題라고 생각한다(表23)

〈表23〉 바람직한 生活



2. 圈域(Region)

圈域이란 어느 한 時点에서 생각할 때 人間이 生活하여 가는데 있어서 하나의 空間(Space)의 限界를 定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空間的 範圍를 發見 或은 人爲的으로 設定하여 人間生活의 福利와 便宜를 爲하여 合理的으로 適用한 地域範圍를 가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圈域은 人間의 움직임과 生活의 變化에 따라 變할 수 있는 流動的 可變的인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地理學에서 보는 概念은 自然의 環境(Natural Environment)과 人文現象을 있는 그대로 發見하려는 데 있으나 國土計劃에서의 圈域은 將來의 目的과 適正規模에 따라 人間의 知慧와 슬기를 짜내어 만들어진 地域(Area)을 말하게 된다.

또한 社會學 내지 政治學에서 말하는 地方主義와는 다르다. 왜냐하면 地方主義(Regionalism)은 政治的 配慮下에서 使用되며 後天의 要素에 重點을 두고 있으나 圈域이란 自然的인 要因과 人爲的인 要因을 同時에 가지고 있다.

따라서 長期 國土綜合開發의 窮極的 目標은 보다 效率的인 空間의 利用과 生産條件의 改善 및 各個人을 즐겁게

하는 機會를 賦與하는 등 여러가지 目的을 同時에 實現하기 爲하여 人口 및 諸施設의 適正한 分散과 配置가 이루어져야 한다.

圈域(Region)을 決定하는데 重要な 要因으로서 産業中心 다시 말하면 生産圈計劃과 또한 人口中心인 生活圈計劃으로 大分할 수 있겠다.

生産圈計劃(Production Plan)은 生産力의 賦存狀態에 따라 決定될 수 있으며 生活圈은 人口의 配分狀態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國家計劃으로서 生活圈과 生産圈을 가장 合理的으로 管理하고 發展시키기 爲한 施設計劃을 同伴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施設(Establishments)計劃은 人口資源(Human Resources)確保와 保護策 動力(Power)確保와 工場立地・輸送計劃과 文化施設計劃 教養 및 慰樂計劃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된다.

生活圈은 生活의 安定을 爲하여 人口配分, 勞動力의 完全雇傭(Full employment)親和와 統合을 爲한 空間的 國民生活의 再編成이라고 하면 生活圈은 國民의 生活安定을 爲한 食糧自足과 土地利用(Land use)高度化, 天賦勞動力活用과 그 能率化로서 産業配置의 合理化를 目標로 하여야 한다.

生活圈을 計劃함에는 다음과 같은 重要な 事項이 포함하여야 한다.

첫째, 人口配分計劃

둘째, 完全雇傭計劃

셋째, 生活水準高揚計劃

네째, 生活物資確保 및 配分計劃

다섯째, 生活便宜計劃 등이 따라야 하며 나아가서 技術生活計劃, 人口資源計劃이 있어야 하며 특히 우리나라 經濟計劃에서 各産業別 人口計劃, 國民所得 增加計劃 등을 全國의 범주에서 計劃하고 있으나 이는 어떤 地方은 어떻게 어떤 水準으로 할 것인가를 計劃해야 하는 것이 生活圈計劃이라고 할 수 있다.

生活圈은 生産力의 源泉으로서 把握할때 資源의 賦存狀態 및 既存生産施設의 調整을 通하여 人口의 배양에 적당하게끔 計劃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點을 重要 戰略으로 삼는다.

첫째, 農地計劃, 農業組織計劃

둘째, 動力確保計劃

셋째, 工業立地 및 建設計劃

네째, 消費産業配置計劃

이와같은 生産圈計劃을 作成하는데는 資源計劃論, 立地論(Location) 등에 知識이 要求되며 이와같은 調査가 充分히 되었을때 地域計劃은 健全한 基礎위에 서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 나라의 圈域設定은 生活圈中心 다시 말하면 都市中心으로 圈域을 設定하는지 아니면 生活圈中心 大韓建築士協會誌通卷第109號

즉, 資源開發 및 産業開發中心으로 하던지 어느 한편을 무시하고는 그 實踐의 타당성이 뚜렷하지 못하게 된다.

한편 다른 基準으로 圈域을 区分해 볼때 그것은 經濟的 發展의 流通機能에 따른 区分이다.

經濟的 發展단계에 依한 区分은 所得隔差의 發見 및 不振地域의 調整을 爲하여 使用되는 方法으로 地域別 所得이 算出되어야 한다. 所得의 地域別 差異는 時間的 개념을 무시하고 一定期間에 把握하는 方法도 있으나 長期的인 計劃을 爲해서는 時差(time Lag) 및 時系列 算出方法에 의해 開發의 方向을 모색하여야 한다.

다음 流通狀態에 依한 区分으로서 流通은 資本과 商品의 移動을 意味하는 바로서 現實의 으로는 商品圈 또는 市場圈(Trade areas or marketing)으로 나타나게 된다. 商圈에 依한 圈域의 形成은 生活圈과 一致하는 것이 例外이며 人口移動에 따라 通商圈도 變動하게 되는 것이다. 商易圈은 市場을 中心으로 하여 形成되므로 市場調査가 必要하며 市場의 去來額의 多寡에 따라 商圈의 範圍는 擴大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中央都売市場, 都売市場, 常設市場, 定期市場으로 나눌 수 있으며 大體로 商圈은 中央都売市場이 位置한 大都市圈과 相應하며 그 以下市場들의 所在地를 中心하여 生活圈이 形成되어지고 있다.

圈域設定의 前提條件

圈域設定過程에는 다음과 같은 4個條件이 있다고 본다.

1. 目的의 明示

한 圈域은 最小限 하나의 뚜렷한 目的을 가져야 한다. 大都市 人口分散을 爲한 大都市圈, 水資源의 利用開發을 中心으로 하는 開發計劃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目的은 國家의 能力으로 보아 担当할 바 있다는 現實的인 基礎위에서 設定되어야 한다.

그 計劃의 目的이 多目的 혹은 單一目的이나에 따라서 다르다. 單一目的의 경우 例로서 水力發展만을 目的으로 한다면 댐(Dam)建設과 發電에 最小經費가 드는 범위 내에서 圈域이 決定될 것이다. 따라서 單一目的에서 보면 同質水域이 될 것이고 多目的으로서 發電, 水利관개, 排水, 水道, 토양보존, 慰樂 등 여러가지 目的을 爲하여 計劃됨에 있어서 그 地域은 自然히 많은 要素를 考慮한 複合圈域이 될 것이다.

2. 規模의 適正性

政治的 与件을 無視하고 보면 世界全體를 하나의 圈域으로 볼 수 있겠다. 왜냐하면 해안지역개발을 爲한 國際的 協助 등을 볼 때 圈域은 國家밖으로 擴大하여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現實의 으로 이러한 超地方計劃(Super regional Planning)은 可能性은 어렵고 國家全體를 한 圈域으로 보는 有機體的 理論이 가장 큰 圈域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 국가를 하나의 圈域으로 본다면 너무나 보편
 이며 광범위하고 異質적이고 混合된 狀態이기 때문에
 이와같은 圈域을 設定한다는 것은 實際 큰 意味가 없다.
 또한 너무나 협소한 地域을 圈域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
 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200,000個의 自然部落이 散在 되어
 있어 이를 하나 하나 調整하기란 困難한 것이다. 따라서
 現實的인 問題로는 圈域은 國家全體와 그 局部的 地方을
 연결하는 中間크기의 地域으로 設定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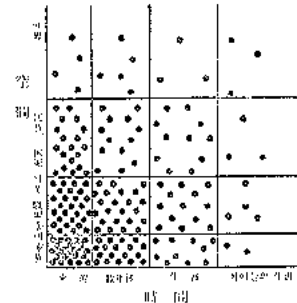
3. 時限性和 變遷性

圈域은 恒上 變化한다. 圈域은 流動的인 것이며 計劃
 實踐의 目標에 따라 變化한다. 圈域의 時限性이란 한 圈
 域을 設定하면 몇십년이고 固定的인 것이 아니고 時間이
 흐름에 따라 修正되어야 한다. 最長期計劃(Perspective
 Plan)으로 普通 15~25年 이라는 時間的 限界를 가진다.
 急激한 變化가 일어나는 곳은 15年, 停滯的 社會構造에
 서는 25年으로 定하여 恒常 修定할 자세를 갖추어야 한
 다. 또한 끝으로 圈域形成要素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考
 慮하여야 한다.

1. 地形的 要素로서 平原, 山脈, 流域, 河川, 습지, 湖水, 海안.
 2. 歷史的 要素로서는 民族, 人種, 歷史的 経路, 伝統, 行政區域.
 3. 資源의 要素로서 資源의 賦存狀態 개간토지면적上 地의 經濟力.
 4. 流通의 要素로서 産物과 交通手段이 集結하는 方向.
 5. 人口의 要素로서 人口의 適正規模定度, 增加, 移動性, 移動方向.
 6. 經濟的 要素로서는 地域別 所得水準, 所得隔差에 따른 不振地域 經濟發展度.
 7. 計劃上 特別 必要한 戰略的 要素로서 計劃效果의 波及 等 以上과 같은 여러가지 要素의 科學的인 分析이 끝나고 調査가 進行되었으면 반드시 하나의 地域(map 에 限界線을 나타낼 수 있다.
- 사람이 만든 都市보다는 새들이 만든 都市가 아름다울
 것이다. 그러나 그런 都市들은 새만이 살 수 있을 것이지
 사람이 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찾아 헤매고 있게 된다. 예나 지금이나 偉大한 都市는 사
 람의 모임으로 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都市는 文明의
 道具가 되었고 이와같은 道具들은 人間에게 傳統과 삶에
 目的을 주기도 했다. 그리고 多樣性和 成長의 潜在力을
 길러 주기도 했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말하기를
 “都市에 사는 사람들은 나의 스승이다”라고 까지 말하였
 다. 또한 都市는 前에 없었던 일들이 생기게 되고 都市는
 더 많은 発見과 아름다운 藝術作品 그리고 高貴한 價值
 等을 創造하게 된다.

그런가 하면 40年前에는 都市를 말하려면 대개 建物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아름다움은 印象的인 유물들을 이야
 기했고 또한 不良地區를 이야기하는 것이 普通일이었다.
 그러나 25年前에는 都市를 말하려면 交通問題를 이야
 기하게 되었고 10年前에는 社會的 問題를 이야기하다가 이
 제는 環境, 資源問題를 이야기하게 되었다.

〈表24〉 人間の 視野



그러므로 (表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람들의 視野는
 空間的으로나 時間的으로 다르지만 모든 人間の 關心은
 어느 部分에 該當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의 關心(Interests)
 은 家族(Family) 또는 親旧(Friendship)等 短期的인
 事物에만 限定되는 例가 많게 된다. 따라서 너무 좁은 範圍
 를 視野(Visions)로 限定시키는 것은 失望을 가져올
 수도 있고 눈앞에 部分的인 問題의 解決에 온 힘을 다해
 서 努力해 보았지만 보다 더 큰 關聯아래 일어나는 것들
 에 依해서 許多한 努力이 수포로 돌아가는 例가 많다. 많
 은 사람들은 時間的으로 앞을 내다보는 未來指后的(Future
 - Oriented)마음이다. 國家等 광범위한 事物에 關心을 갖
 고 있다. 그러나 極少數의 사람들만이 먼 未來에 널리 퍼
 질 全世界의 關心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끝

〈參考文獻〉

1. 韓國開發研究院：長期經濟社會發展(1973~1991) 1973. 12
2. 第1 無任所長官：首都圈人口再配置計劃(1971~1986) 1977. 11
3. 建設部：國土建設의 概觀. 1971.
4. EPB：第4次 經濟開發 5 個年 計劃. 1976.
5. 國務總理 企劃調整室：重化學工業建設에 關한 研究 1977. 11
6. EPB：1978年度 經濟運用計劃 1978.
7. 建設部：業務計劃 1978.
8. Sponcer w. Hanlick：The Urban organism, macmillan Publishing 1974.
9. John Freedman and William Louso：Regional policy. Redings in Theory and Applications：The MIT. Press 1975
10. Time：November 14. 1969.
11. Edward S. mills：URBAN Economic, Scott Foresman and Co, 1972.
12. John Freedman："The Strategy of Deliberate Urbanization：AIP 34. November. 1968.
13. Wilbur R. Thompson, A preface to Urban Economics, Tohn Hohn Hopkins, Baltimore, 1968.
14. Walter Isard, methods of Regional molysis and introduction to Regional Science, MIT press 1960.
15. Edward Ullman："A Theory of Location for Cities" AIP XLVI may 1941.
16. J. John Paleu：The urban world, mc graw-Hill Book co. 1975.
17. Richard B Andrews：Urban Land Economic and Public Policy：The Free Press. 1975

세계 현대건축의 경향들③ - Brutalism

趙英武

차례 ③

3. 1958년~1966년 현대건축제 2기 - Brutalism

- 3-1 정의
- 3-2 Alison & Peter Smithson 부처의 작품들
- 3-3 International Brutalism의 선고자들
- 3-4 British Brutalism의 예들
- 3-5 개념원리
- 3-6 International Brutalism-작품들

3. 1958년~1966년 현대건축제 2기 - Brutalism

여기에서 Brutalism을 광의적으로 논하려면, 역시 일련의 제한들과 유보들을 연결적으로 해둘 필요가 있다. 이것은 주로 전체적질서에 대한 온갖 고려들, 그만큼 더 한층 현대란 사대의 이념조류들이 문제되는 것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있게 마련인 잘못된 해설들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여튼 상당한 건축가들에게서 brutalism이란 언어로써 형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가려낸 것은 확실하다. 그뿐더러 brutalism, 또는 적어도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주 상반되는 두가지 발전과정들을 거쳐왔다. Smithson부처주변과 영국에서 거론할 때 정의되는 것과 같이 제한된 언어의미의 brutalism과 뒤이어서 발전된 International brutalism을식별할 필요가 있다. 요는 전체적전화에 비하여 선구적인 것이든 병행적인 것이든 간에, 그러나 부정할 길이 없이 brutalism의 특징들을 지니고 있는 언어작품의 자체의 발표들을 식별하여야 한다.

「New Brutalism」이란 언어는 1953년초부터 Alison & Peter Smithson부처주변에서 사용되었다. Reyner Banham에 의하면, New brutalism이란 언어는 Hans Asplund가 1950년에 처음으로 Bengt Edman과 Lennard Holm과 같은 Michael Ventris, Oliver Cox, 및 Graeme Shankland에 의하여 1951년 런던에 수입되어 그 해부터 사용되었고 그리고 Smithson부처에 의하여 채용되었다는 것이다. Cox 및 Shankland그룹은 이 brutalism이란 언어를 가지고 Mies van der Rohe와 타협하지 않는 건축을

정의하였다. 그러나 Smithson부처는 66년Reyner Banham의 brutalism에 관한 방대한 책을 거론하면서 이런 해석을 반박하였다. 그들에 의하면, brutalism이란 언어는「New Empiricism」에 대한 일종의 팔장난으로서 Alison Smithson의 우연한 발견물이며, 또한 brutal이란 언어는 Le Corbusier의 「마르세이유의 주거단위아파트(1948~1952)」를 비판하는 논문속에 추출해낸 발견물이므로, Banham이 존중하였던 사건들과 인물들을 전혀 모른채 생각해내어 사용하였다고 한다.

무엇보다 제일 먼저 국제적용어속에 이 언어의 신속한 보급을 설명하고 있는 세번째 해석은 이 두가지 해석들과 상반될 수 있다. 이 세번째 해석에 의하면, 이 언어의 기원은 Le Corbusier의 「béton brut(brute concrete)」란 표현속에서 찾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Le Corbusier의 건축구조적형태들이 International brutalism을 위한 표본들이 되었다고 추측한다면, 상당한 건축가들이 이 언어에다가 결부시켰던 Smithson부처의 이념들을 물랐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Jürgen Joedicke에 의하면, New brutalism이란 언어가 1950년대초에 영국에서 또 특히 이렇게 미학이 아니라 논리를 정의하였던 Smithson부처 주변에서 사용된 것만큼은 다소 확실하다고 한다. 이 언어를 적용할수있는 건축이 존재하기 이전에 이 언어가 Smithson부처에 의하여 사용되었다는 것. (Hunstanton교교는 1948년 설계현상안으로 1952년~1954년 이 언어가 영국에서 벌써 사용되었

을 적에 완성되었다)과 그 후에 Smithson부처가 내렸던 의미와는 전혀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하도록 1950년대말경 국제적용어숙에서 이 언어가 허용되었다는 것을 시인하게 되므로 혼동이 전혀 가지지 않고 있다. 이 언어의 세계적 보급은 기존하고 있는 일반적분위기에다가 전형적 표현을 제공하였다는 사실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Brutalism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현대적인 건축적 표현의 가능한 채택할 만한 방법들(alternatives) 중의 하나, 또는 brutalism이 그의 최초의 힘을 잃기 시작하고 또 우리시대의 모든 표현양식들을 수정시키고 있는 이 노쇠현상의 희생물이 되었다는 징후들을 벌써 식별하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들 중의 하나이었던 한 건축개념을 가르키고 있다. Brutalism은 오늘날 존재하였던 것을 다시 문제삼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것은 혁명적이지 아니라 오히려 진화적인 운동이었다. Jürgen Joedicke는 그 당시까지 근대속에 뿌리박았던 원리들과 방법들에 대한 새로운 해석, 우리시대와 그 요구들에 적합시킨 해석처럼 brutalism을 정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이런 근대와의 자작적판짜가 근대를 비판들에 의하여 문제삼고 있는 다른 현대적개념들로부터 brutalism을 구별하고 있다.

처음에는 brutalism은 기본개념에 비하여 형태 또는 재료들의 문제가 적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개념은 면들의 brutalism경향의 표현처리방법을 의도하는 구조화덕택에 포기되었다.

이렇게 international brutalism을 정의하기 전에 Smithson부처의 몇가지 이론의 입장들을 자세히 밝혀야 한다. Smithson부처의 견해는 책임, 진실, 객관성 또는 목적, 재료사용 및 모양그대로(transparence)와 그 시공과 정확 등 일련의 보충적관념들을 총괄하고 있었다.

책임이란 언어는 무엇보다도 먼저 사회와 대결하는 건축가의 참여와 관계된다. 그런데 이것은 또한 독립되어 있는 각개의 작품과 전체적인 방법으로 사회에 의하여 또 도시계획요구들에 의하여 확정된 테두리안에서 일체화한다는 경관구성 간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다. 확실히 Smithson부처는 이 명제에 대한 많은 다른 주창자들과 똑같은 잘못된 결론, 즉 그들이 건설하기 위한 사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끄집어내고 있다. 그런 사회는 단지 건축가의 미래상속에서만 존재한다. 반대로 존재하고 있는 사회는 흔히 이해부족때문에 전위적건축가들의 결작들과는 상반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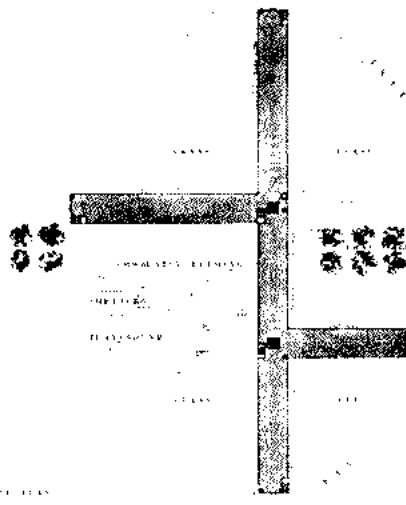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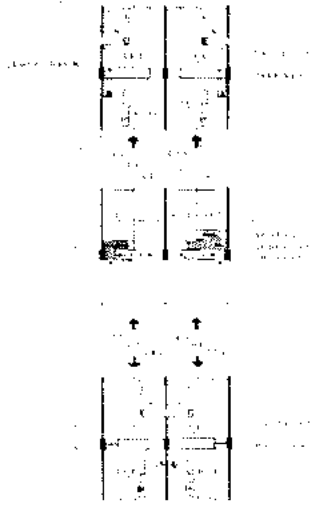
진실이란 언어는 주로 건축공법과 관계된다. 건물은 그 건축양식을 보여 주어야 한다. 여기에 Louis Kahn이 내린바 있던 건축적공간에 관한 정의를 인용할 필요가 있다: 『I think an architectural space is one in which it is evident how it is made』. Smithson부처는 「Hunstanton고교」에서 배관들과 같은 부대기능들을 조금도

감추지 않고 벽에서 끄집어내어 떼어놓을 정도이었다. 이런 배치구성은 벌써 Berlage의 「Amsterdam 증권거래소(1898~1903)」에서도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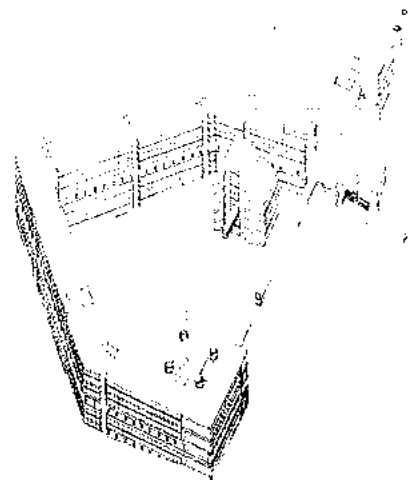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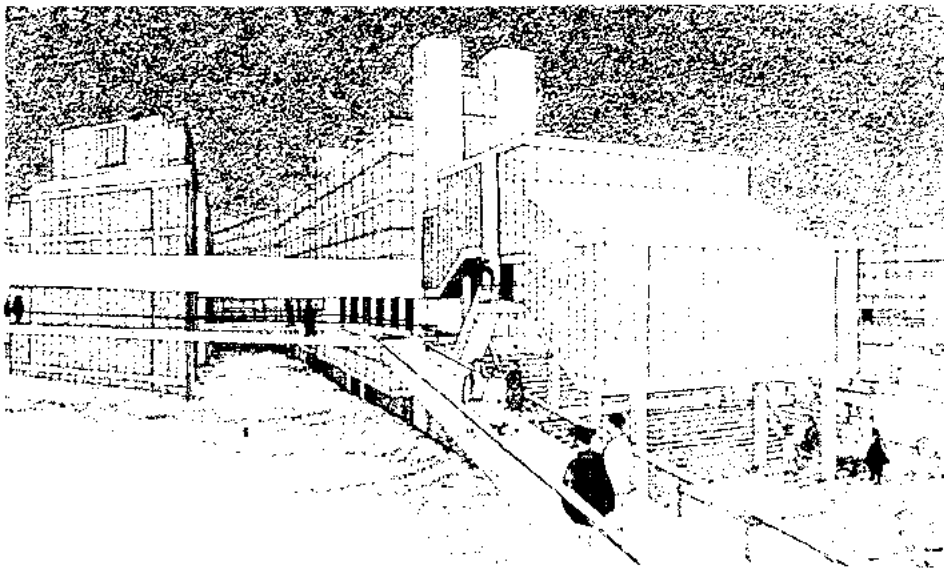
건축에 있어서 표현되어지는 것은 건축가가 아니라 예정되어진 건물의 용도에서의 정확판념은 새로운 의미를 가졌다. 재료는 있는 그대로 사용되어야 한다. Banham이 1955년 「The new brutalism」이란 논문속에서 『Valuation of material as found』라고 정의한 적이 있었다. 이 정확이란 언어를 가지고 기존하는 용어에서와 똑같은 의미로서 건축구조적기능들의 비학적구체화를 뜻하고 있다. Transparency 및 성격표시 판념은 긴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건축가들에 의하여 가다듬어진 이론들의 주요 부분들은 이것들이 추상적인 이론들을 구체적으로 치환시키고 또 건물속에서 저작할 수 있게 만드는 문제들과 충돌하기 때문에 실패로 돌아갔다. Smithson부처의 경우에는 이런 의문은 프로그램 및 연구의 기본사고의 논리와 보다 더 정확한 방법으로 공간구성, 건물구조, 그리고 사용된재료들의 성질을 건물의부에다가 들어나 보이게하는 상태로 귀착하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관찰자의 시선을 부단히 집요하게 자극시켜야 한다. 이렇게 그 시초부터 brutalism은 비록 Smithson부처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도 영국인들의 철저한 puritanism이라고 하는 사실때문에 의미심장한 주석과 관련되어 있다. 「image」관념, 건물이 기억속에 깊이 새겨지는 윤곽, 이미지를 가지기를 바라는 판념이 여기에 더 추가된다. 이렇게 논하는 어느 한 판념들이라 새로운 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각개의 증언들과 그들의 독특하고 참으로 개성적인 해석은 Smithson부처의 이론의 특징인 것이다. 이 시기동안, 즉 1950년대 전반기동안의 Smithson부처가 만들었던 설계안들과 건물들을 알고 싶다면, 「Golden Lane단지(런던, 1952)」¹⁾, 「Scho 주택(1953)」, 그리고 「Sheffield대학교(1953)」²⁾ 등의 설계안들과 더불어 「Hunstanton고교(1952~1954)」³⁾, 「미래주택(1956)」⁴⁾, 그리고 「Sudgen주택(1956)」⁵⁾ 등을 들어야 한다. 그런데 이 건물들에서는 한가지 공통분모를 찾기가 불가능하다. 젊은 시절의 Smithson부처의 슬기들 보여주는 예로서 「Hunstanton고교」를 brutalism이란 말로서 가르킨다면, 「sheffield대학교」안은 그만큼 이런 식으로 논하기가 불가능하다. 이와 같이 「Golden Lane단지」안과 「Hunstanton고교」는 동일한 원리들을 가지고 비교하고 판단할 수가 없다. 「sudgen주택」은 형식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으며 또 어느 경우에나 「Hunstanton고교」의 질과 견줄 바가 못된다. 「Sudgen주택」을 장래발전의 선구적인 것처럼 지적하노라고 내부와 외부에 다같이 벽들들을 사용하였다는 것으로 충당한다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의심스러운 수밖에 없다. 반대로 「미래주택」은 예를 들면 자동차제작에서 채용한 방법들을 가지고 제조한

大韓建築士協會誌通卷第109号

52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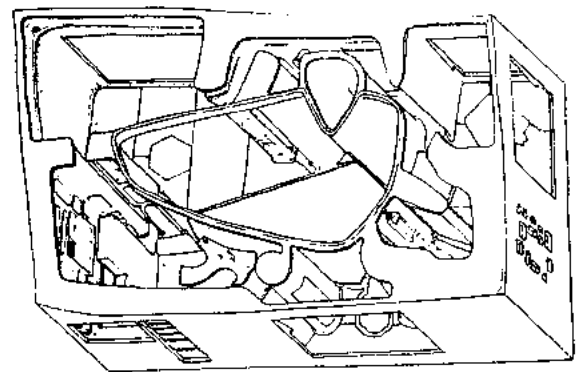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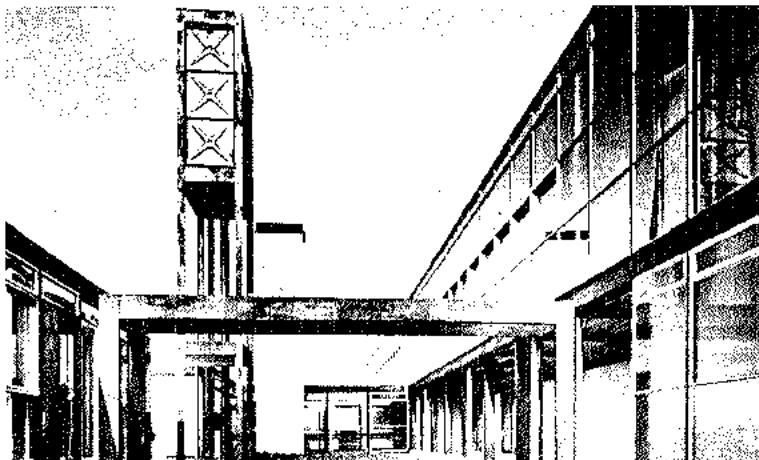


GOLDEN
LA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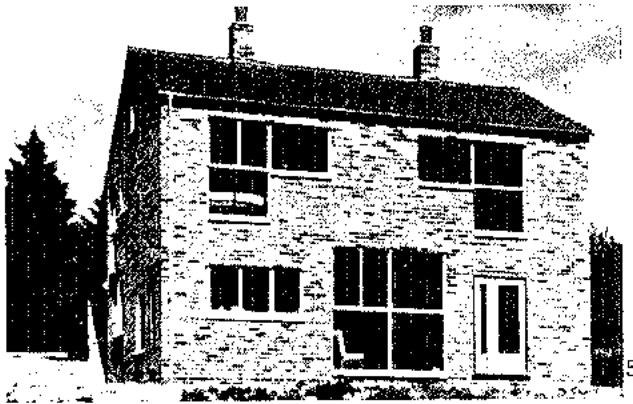
2-1

2-2



3

4



것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그 개념에 있어서 brutalism을 조원하는 개혁들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이 두 건축가들은 누구나 그들의 작품들을 가지고 쉽게 결론들을 끄집어 낼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관념에다가 제공하지 않고 이론적으로 관념을 창조하였다 고 결론내릴 수 밖에 없다.

3-2 Alison & Peter Smithson부처의 작품들 작품해설

(1) Golden Lane단지현상설계안, London, 1952.

동선은 「외부복도들」에 의하여 수행되는데, Smithson 부처는 Le Corbusier의 주거단위 아파트에서와 같이 「내부복도들」로 하는 대신에 복수층형식의 「외부복도들」을 생각해내었다. 소주택형식의 주거들이다.

(2) Sheffield대학교 현상설계안, 1953.

동선들과 출입시스템(자동자동선을 위한 다층도로들, 도보자를 위한 통로, 그리고 승강기장치들)이 설계안을 좌우하는 지위의 원리로까지 놓여졌다.

(3) Hunstanton고교, 1952~1954, 1949년현상설계안.

건축수법들은 Mies van der Rohe의 설계들로부터 영향을 받았지만, 재료들의 사용과 건축양식들의 강조에 있어서는 그와는 독특한 차이들이 있다. Berlage의 작품실례가 그들로 하여금 노출되어 있는 전기배관들, 상하수 배관들, 그리고 기타 유체장치들을 착상케 만들었다.

(4) 미래주택(원형), 19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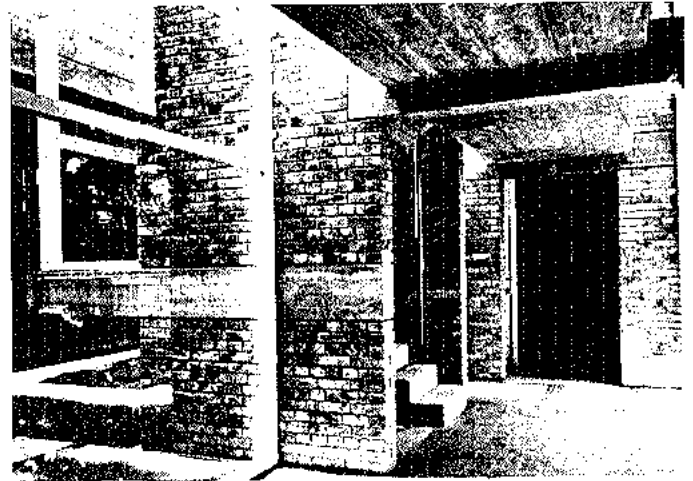
이 주택건조는 자동차 및 항공기 건조로부터 인용한 경향들에서 비롯하여 착상되고 발전되었다. 외부외복 등은 이중합성막, 모든 내부설비들의 조립화, 특수요소들은 각개의 기능을 위하여 마감되었다.

(5) Sudgen주택, Watford, 1956.

인습적인 건축형태이지만, 역사 뜻밖의 형태의 창들, 노출된 조적조사용은 과거의 예들로 거슬러 올라간다.



6-1



6-2

3-3 International brutalism의 선구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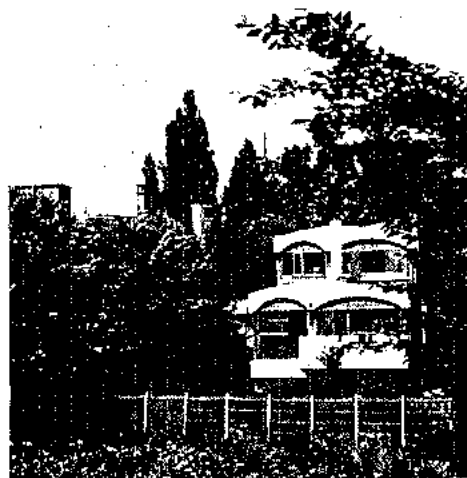
사태는 1958년부터 달라지기 시작한다. 국제적인 면에서 필요불가결해지는 해석의 의미로서 international brutalism이란 언어를 적용할 수 있는 최초의 건물들중의 하나가 Smithson부처가 아니라 James Stirling과 James Gowan에 의하여 잉태되었다. 그들은 1958년에 지은 「Ham Common아파트」(런던, 1958)⁽⁶⁾가 문제된다. 확실히 이 아파트건물의 표본이 될 수 있는 실체는 영국이 아니라 프랑스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이 파리의 뇌일리에 지은 Le Corbusier의 「Jaoul아파트」(Neuilly, Paris, 1954~1956)⁽⁷⁾ 건물들이다. 완전히 「Jaoul아파트」 건물들처럼 「Ham Common아파트」 건물들도 철근콘크리트조의 횡배들로 둘러친 벽들조 별들을 가지고 있으며, 거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Jaoul아파트」 건물들에서 처음으로 찾아 볼 수 있는 L형창과 더불어 철근콘크리트조 낙수구들을 찾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 시기로 부터 시작하는 brutalism에 의하여 대단히 흔히 사용된 소재이다. 「Ham Common」 「Jaoul」의 것들보다 더 공들여 손질한 것 같지만, 이 두가지 작품들은 무엇보다도 외부에서나 내부에서 다같이 눈에 돋보이는 brute materials에 치우친 취향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arham이 「Ham Common」이 Le Corbusier가 가다듬어 놓은 형태들의 모방 이상의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합당한 것 같다. 여기에서는, 예를 들면, 2층식 주거들의 제단실속의 상부복도 배치구성과 같은, Le Corbusier에게서는 다시 찾아 볼 수 없는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복도는 방들로 자유스럽게 드나들수 있는 U형판이다. 이런 정비구성은 Alison & Peter Smithson부

大韓建築士協會誌通卷第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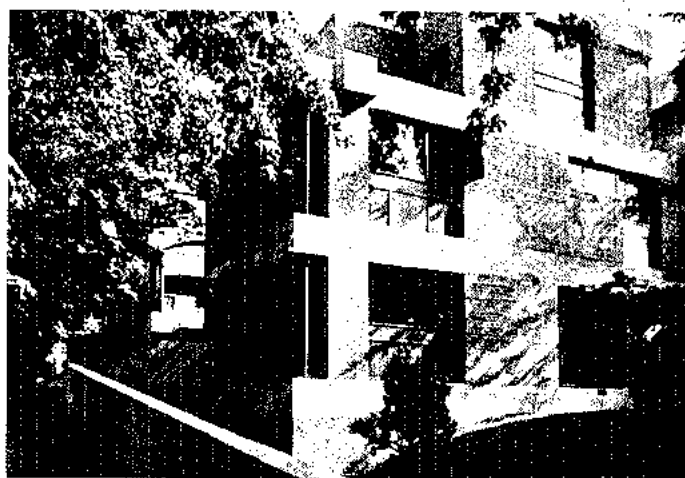
처한테서는 이미 여러 다른 blocs을 연결하는 도보통로를 위하여 「Sheffield대학교설계안(1953)」 속에서 비슷한 형태로서 존재하고 있다. 이런 것은 그 보다 늦게 Jack Lynn와 Ivor Smith가 지은 「park Hill아파트(셰필드, 1953)」 건물들^{*)}에서도 다시 찾아 볼 수 있다. Le Corbusier와 또 다른 차이는 건물정비배치기념에서도 도사리고 있다. Le Corbusier는 여러가지 공간들을 구획분할하는 한 입체적bloc에서 시작하였지만, James Stirling와 James Gowan은 계단들, 연결복도들, 그리고 주거단위들 등 기능적구조화에서부터 시작하였다. 이렇게 Le Corbusier와 대표적으로, 그들은 고조화된 복합체를 완성하였다.

「Jaoul아파트」배후에는 역시 Le Corbusier의 또 하나의 건물, 즉 「마르세이유 주거단위아파트(1948~1952)」⁹⁾가 있다. Le Corbusier가 처음으로 「béton brut=brute concrete」를 거론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주거단위아파트 건물때문이었다. 이렇게 이런 표현으로부터 비롯하여, 이 「Unité d'habitation아파트」건물은 많은 건축가들에게는 brutalism경향의 것을 인정하는 原基(étalon)이 되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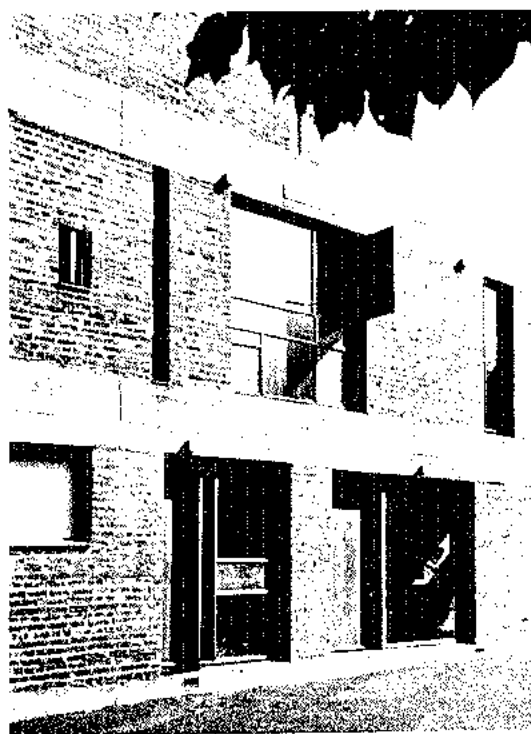
이것이 평화하고 구조화되지 않는 면들과 공간들의 공업적미학을 포기한 Le Corbusier의 최초의 작품이 아니라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1930년대 Le Corbusier의 많은 여러가지 종류의 설계안들과 작품들을 실례로서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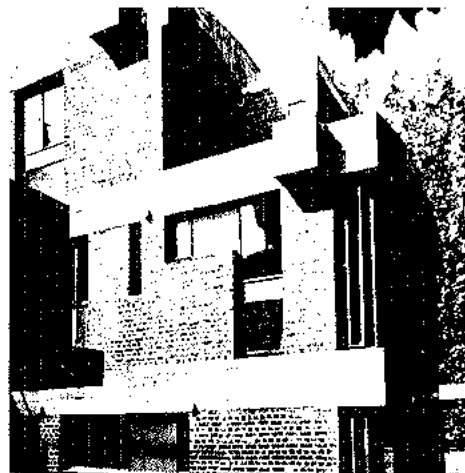
7-1



7-2



7-4



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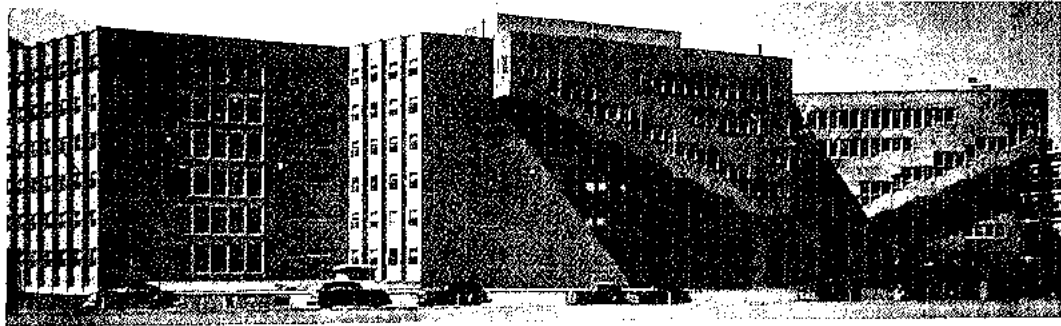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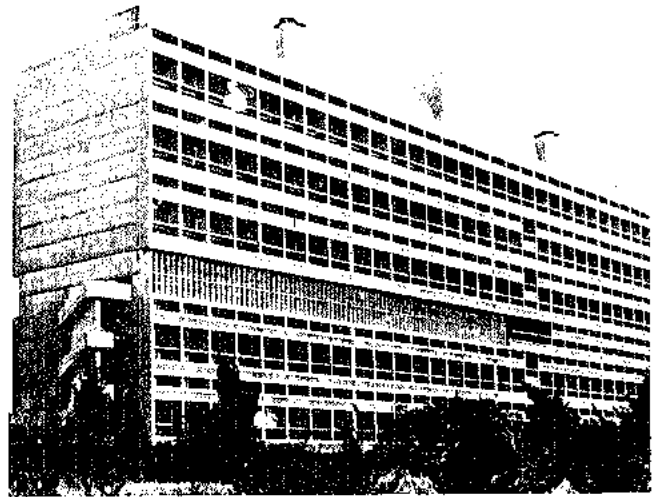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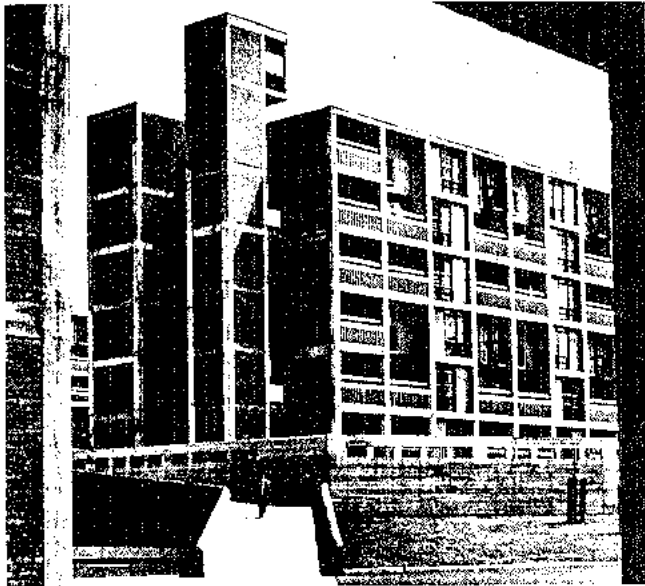


7-5

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건축작품이 이런 개념을 보여주는 2차대전 후의 위대한 작품이었다.

Jurgen Joedicke에 의하면, Alvar Aalto한테서도 역시 brutalism의 선구적인 징조들을 찾아 볼 수 있다고 한다. Alvar Aalto가 지은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의 학생기숙사(캠프릿지, 마사추세츠, 1947~1948)」¹⁰⁾ 건물에서도 그 동선들의 시스템이 서로간을 연결하는 일련의 장소들처럼 구상되어 있다. 이와 같이 후퇴되어 있는 창은 그 다음 1950년대의 brutalism을 위해서

는 전형적인 건축구조적 특징들을 보여 주며, 또 계단실들과 복도들, 즉 기능적인 기본요소들이 결정적인 건축구조적요소들처럼 강조되었다. 마지막으로 Alvar Aalto가 지은 「Säynätsalo시청사(1950~1952, 1949년현상설계안)」¹¹⁾도 역시 언급되어야 한다. 벽충전을 위하여 벽돌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보다도 이 시청사건물이 후에 조건의 지위로 승격되었던 이 「이미지」관념과 일치하는 최초의 결작들중의 하나이었기 때문이다.



작품해설

(6) James Stirling과 James Gowan : Ham Common의 L-angham House, London, 1958.

좁은 대지상에 새건물들이 아주 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아주 명백히 「Jaoul아파트」건물로 부터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들은 재료들의 처리가 더 소박하다. 제단참들과 연결복도들의 모석들은 상당한 still운동의 것들을 생각해한다.

(7) Le Corbusier : Jaoul아파트, Neuilly, paris, 1954~1956.

「brute」한 재료들과 밀폐되고 목적한 모습, 아주 명백하게 장래발전을 지배하였던 international brutalism의 선구적인 예이다. 좁은 구형대지상에 두채의 아파트건물들을 건설하였다. 노출된 조적조와 brute concrete에 의하여 특징지어지는 외관이다. 수공업적건축방법들, 벽돌공사, 그리고 평벽돌조의 궁창천장. 건물들을 단순화시킨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내부는 배치구성들과 가구설비들로써 대단한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8) Jack Lynn, Ivor Smith등 : Park Hill단지아파트, sheffield, 1961.

수평통로들의 구상을 구체화 : 이 동선들은 각건물의 3개층마다 있고 또 배달, 우편접수 또 이사짐을 위한 소형유개차들이 드나들기 쉽다. 소주택형식의 아파트. 노출된 통로 또는 복도, 창들을 가진 벽돌조 벽층전, 건물들의 지형적배치 등이 특징이다.

(9) Le Corbusier : L'unité d'habitation아파트, Marseilles, 1948~1952.

Le Corbusier의 도시계획 이념의 구체화 : 근대건축요소로서의 고층건물. 소주택형들의 아파트. 특징있는 요소로서는 brute concrete, 재료들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1920년대의 지학에 비하여 변혁을 나타내고 있는 Le Corbusier의 첫번째 설들과 탁아소를 갖추고 있는 옥상테라스를 가지고 있다.

(10) Alvar Aalto : Massachusetts공대의 학생기숙사, Chicago, 1947~1948 건물윤곽은 외부로 돌출하고 있는 동선들에 의하여 좌우되고 있다. 수평동선들과 학생방출입로들은 연속적인 복도들과 복도출입에 의하여 수행된다. Alvar Aalto는 뒤이어 생겨나는 brutalism의 이념을 지니고 있었다.

(11) Alvar Aalto : Säynätsalo시청사, 1950~1952, 1948년 현상설계안.

높아진 중앙정원 주위에 둘러싼 건물들의 배치구성. 회의실이 전경을 좌우한다. 「image」성격을 강조. 내부나 외부나 모두 「brute」한 채로 처리된 재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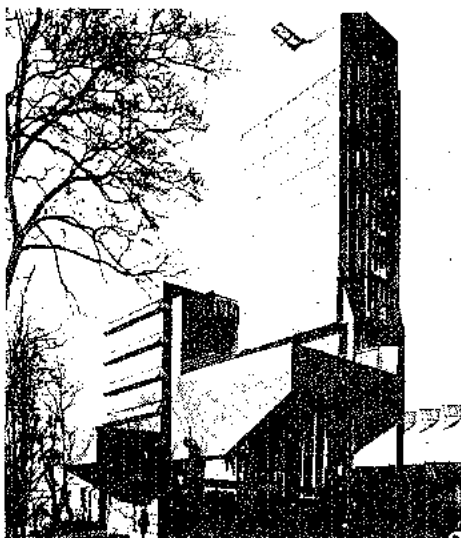
大韓建築士協會誌通卷第109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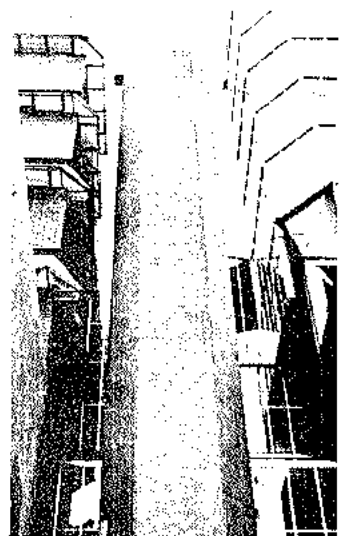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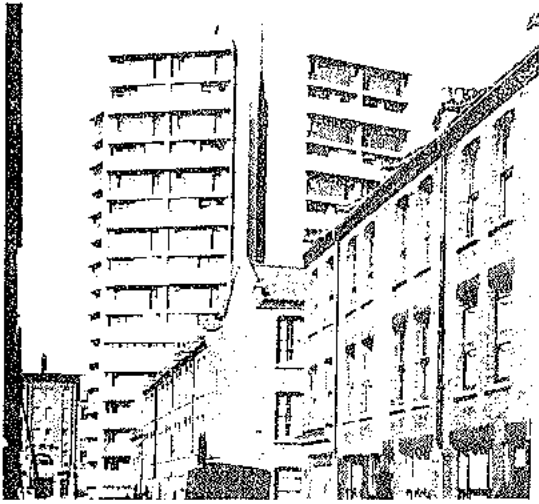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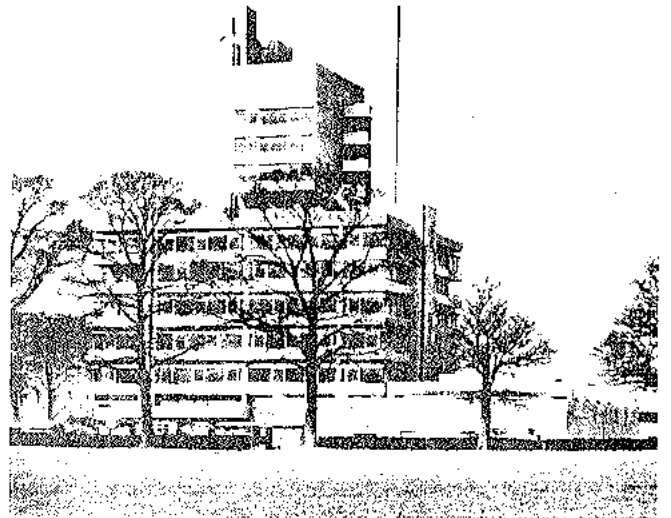
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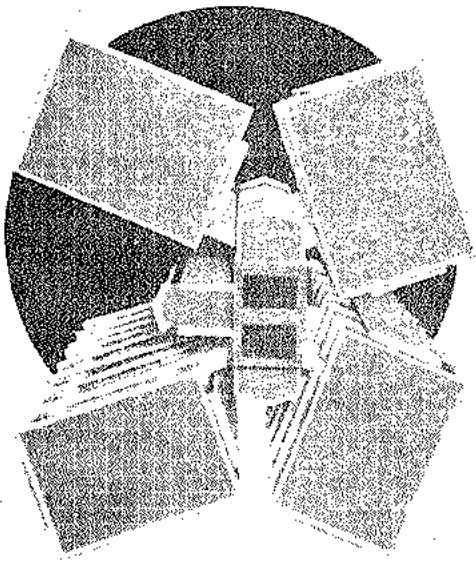
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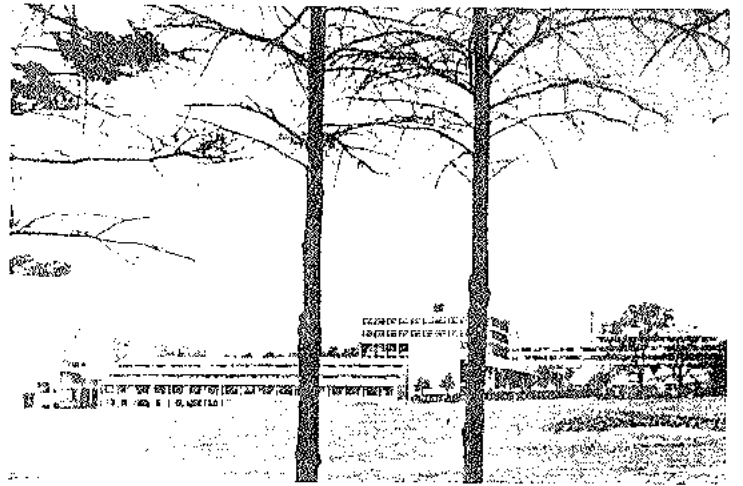
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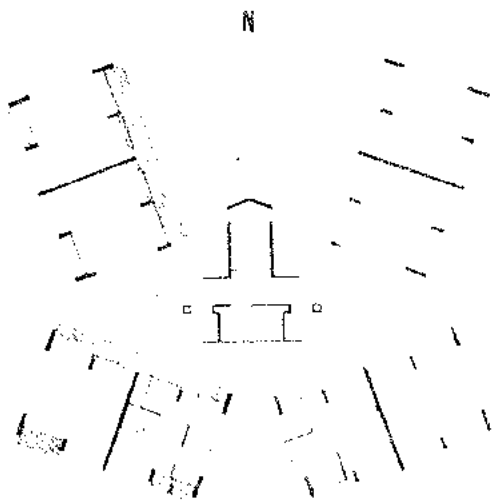
16



15-2



17-1



15-3



17-2

3-4 British brutalism의 예들

작품해설

(12) sheppard, Robson동: Churchill대학 교수아파트, Cambridge, 1960.

3층의 한 평지붕건물속에 고밀도아파트배치, 벽돌조로 계획된 내정들로 자리잡는 개구부들, L형창들, 이것은 「Jaoul아파트」에서 처음으로 생겨 났었다.

(13) Leslie Martin, Colin St. John Wilson: Haveray Court 기숙사, Cambridge, 1962.

높아진 중정 주위에 테라스형식의 학생침실들을 배치, 중정 한복판에는 식당조명을 위한 천창이 있다.

(14) James Stirling, James Gowan: Leicester대학교 기숙사, 1963.

실험실험, 사무실험, 전면으로 돌출한 회의실들, 경사천창을 갖춘 작업실들 등 특수건축형태들로서 다양해진 기능적용도들을 강조, 상당한 상세들이 1920년대의 기하학적 미학을 환기시킨다.

(15) Denys Lasdun동: Cluster Block, Bethnal Green, London, 1955~1960.

기본도식은 주거면들이 접속하는 중앙핵구조와 같은 특수기능단위들에 의하여 구조화되었다.

(16) Denys Lasdun동: Leicester대학교 Charles Wilson building, 1963~?.

전면으로 돌출한 gablet을 갖춘 대단히 강렬하게 구조화된 전경. 설비기능들의 강조는 brutalism의 특징있는 처리.

(17) Denys Lasdun동: East Anglia대학교, Norwich, 1962~?.

대학교건물들의 전경, 왼쪽에 테라스형식의 학생기숙사건물들, 학교교사건물들과 학생기숙사건물들이 직접 연결된 배치계획.

3-5 개념원리

1958년부터 나타난 international brutalism은 일련의 개념적경향들에 의하여 특징지어진다. 최대공간을 최소공간으로 분할된다고 장소별로 세분하는 구형적기반에서 출발하는 Mies van der Rohe의 개념과 비교할 때, 그 특징은 가장 명료하게 드러난다. 이런 세분은 이런 세분이 어느 때나 제거될 수 있는지 또는 수정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상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달리 brutalism (그리고 이 언어로써 파악되는 것)은 기능들과 알맞게 크기를 잡고 그리고 다른 장소들의 그룹들과 연결되는 한 각개공간들의 그룹에서부터 시작한다. 달리 말한다면, 이렇게

미학적으로 강조된 독립적 또는 자율적기능요소들이 조합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출발점은 대규모의 전체공간이 아니라 각개의 형태인 것이다. Mies van der Rohe의 개념에서는 순수한 선들을 갖춘 입체적 복합체가 생겨난다면, brutalism개념은 돌출부들과 후퇴부들을 가지고 단일요소들로 구성된 복합체를 낳게된다. 이 개념원리 배후에는 정밀하게 정의하자면 한 건물속에는 특수형태들로서 충족될 수 있는 부분적인 특수기능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기능적개념이 존재하고 있다. 이것은 전체공간 배후에는 아무런 특수기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리고 오직 어떠한 용도에나 다 쓰여질 수 있는 중요화된 또는 중립화된 전체공간들을 창조하기를 문제삼고 있는 Mies van der Rohe와는 상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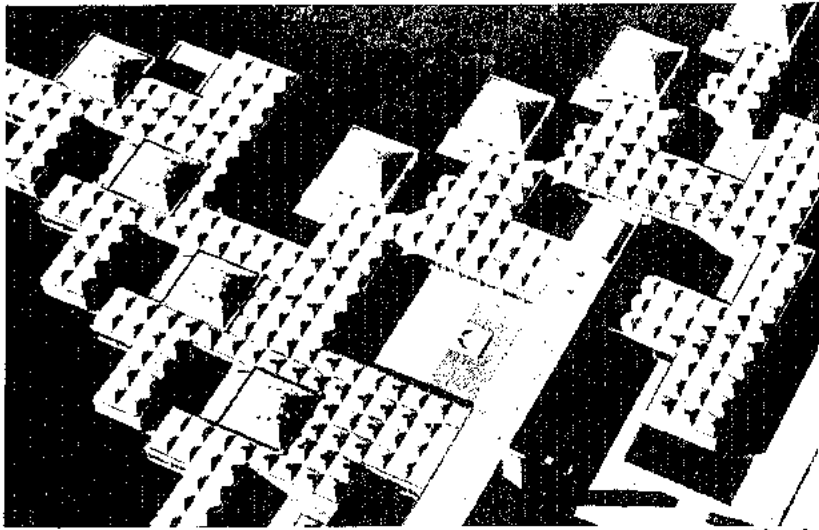
Jürgen Joedicke의 견해에 의하면, 도시계획에서는 역시 여러가지 단위들로 나누어지는 특수하고 다양한 기능들로 구성된 한 복합체를 창조하는 것을 문제삼고 있기때문에, 이러한 도시계획원리를 가지고 brutalism 원리의 성질을 형용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개념의 전형적예가 바로 Aldo van Eyck가 지은「Amsterdam고아원(1958~1960)」¹⁸⁾ 건물인데, 그가 고백한 목표가 「도시와 같은 건물, 건물과 같은 도시」이었다. Smithson부처의 경우에는, 「Hunstanton고교」설계때, 그들은 도시정주지의 여러가지 부분들과 같이 한 복합체를 구성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서로간을 연결하는 일련의 공동사회들을 창조하려고 꾀하였다. 이와 비슷한 도시계획에 대한 유사함은 Jacob B. Bakema, Louis Kahn, 그리고 George Candilis한테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각개인의 기질과 개성에 따라서, 독립적 또는 자율적 건물부분들을 연결하는 경향은 다소 커진다. 그렇지만 완전히 총괄해버리고 있는 포장현대방향으로 기도하는 경향과 마찬가지로, 상체는 조심스럽게 강조되어진다. 일련의 장소들을 외부로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들 중의 하나가 보통이 아닌 크기들과 형태들의 참들인데, 창들은 작을 이루거나 또는 높이가 서로 달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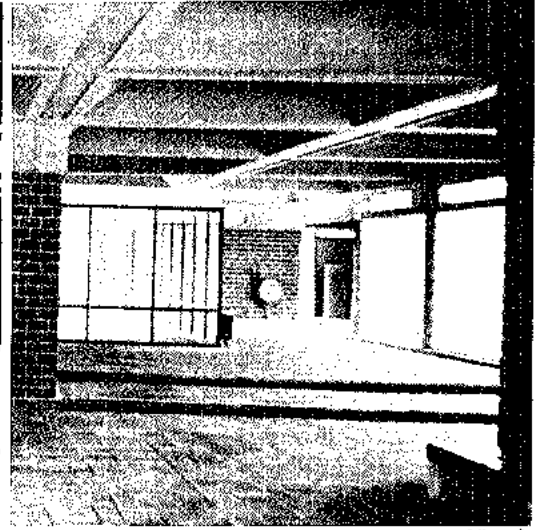
이런 개념원리의 결과가 곧 공간적으로 여유있게 구조화되고 또 대단히 조직적인 배치구성들(arrangements)인 것이다.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들에서는 이런 용도를 위하여 만들어낸 「cluster」란 단어를 가지고 이러한 건물들을 가르키고 있다. 처음에는 외부로 내부를 투영하고

또 기능에 따라 조건지어진 공간적형태를 가지고 정의되던 이미지의 표현에 불과하던 것이 이제는 다른 구축의 지배를 받아들이지 않는 독립적인 본질 또는 실체(entité)가 되고 만것이다. 이러한 작품들의 미학적매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런 건물들을 목표자체인 것처럼 발전시키고 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배움이 형태를 좌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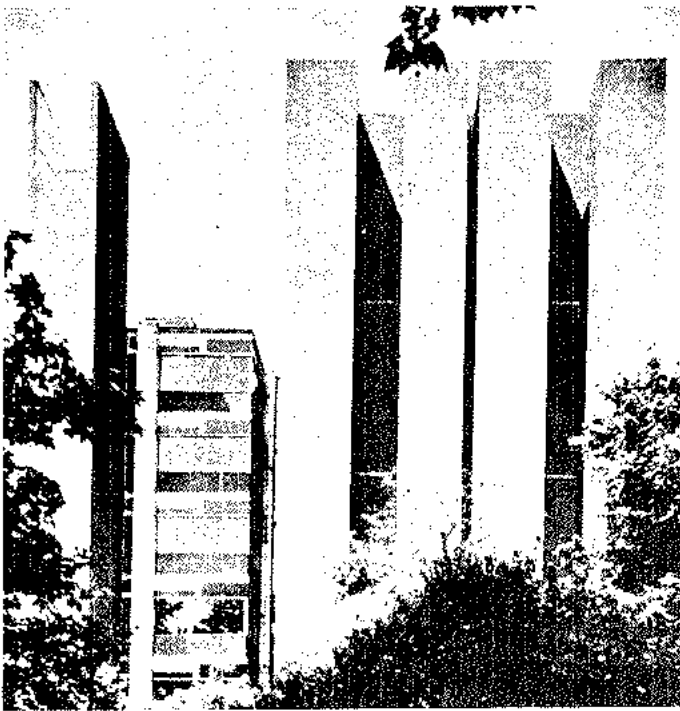
경향을 분리시킨다는 것과 독립적인 형식적요소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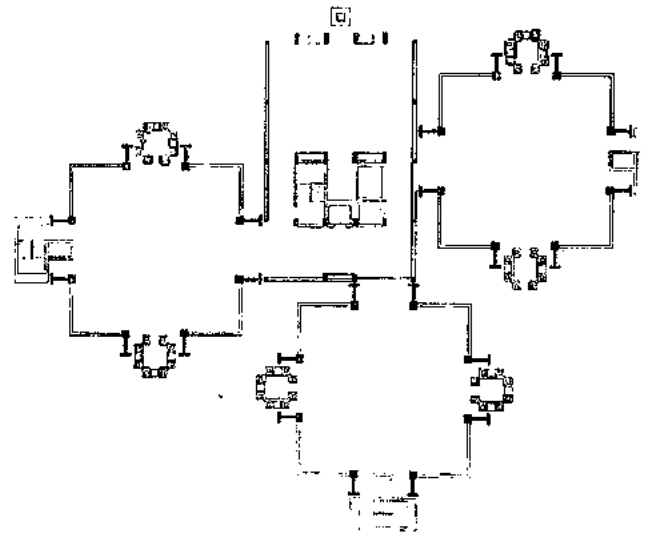
18-1



18-2



19-1



19-2

각개의 기능요소를 표시한다는 것이 설비기능들의 구조적강조를 초래하였다. 어느 경우에는 구조적강조는 대단히 성공하였지만, Exhibitionism이라고 불릴 수 있는 매우 강조된, 참으로 무리한 표현들도 역시 초래하였다. 성공하였던 한 예가 Louis Kahn이 지은 「펜실바니아대학교 Richard의 학연구소(1957~1961)」¹⁹⁾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서는 수직통로들과 환기도관들의 구성이 폭넓게 연출되고 또 위조되어 있다. 이런 구성의 장점들은 기능적관념(경계없는 작업실), 건축구조적수단의 관점(연구실들을 위한 골조, 도관들이 가득찬 벽들 등 여러가지 건축구조적시스템들의 분리), 그리고 정비배치개념의 관점(장소들은 여러가지 기능들로 다르게 정비배치하는 가능성)등에서 너무나 많다. 구성들과 정비배치가 매

단히 타당하다고 할지라도, 전체적인 건물의 모습 및 표현이 근본적으로 연구실들을 지배하고 있는 굴뚝들에 의하여, 즉 설비기능요소들에 의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런 확증으로부터 비롯하여 이런 개념이 검토될 수 있고 또 설비요소들이 미학적우세가 그것들의 역할과 일치하는가 의문을 제기하여야 한다. 또는 달리 말한다면 또다른 승강기들과 환기장치들의 도관들(gaines)의 구성이 적합하지 않은 것인지 또는기능적, 건축구조적 및 개념적인 똑같은 장점들을 초래하지 않은 것인가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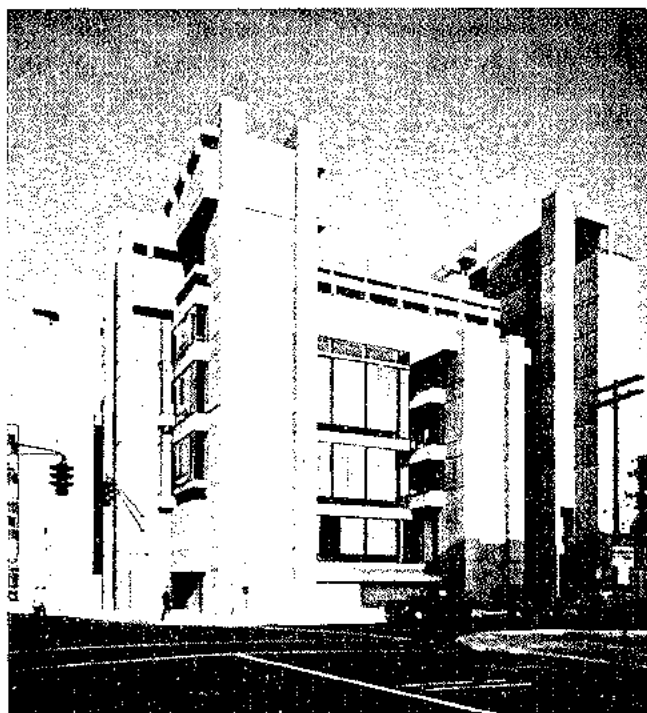
표현하는데 있어서 exhibitionism의 위험이 역시 재료들을 사용하는 기교속에 나타난다. 재료는 「as found」, 즉 생긴 그대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Banham의 정의는 해석

大韓建築士協會誌通卷第109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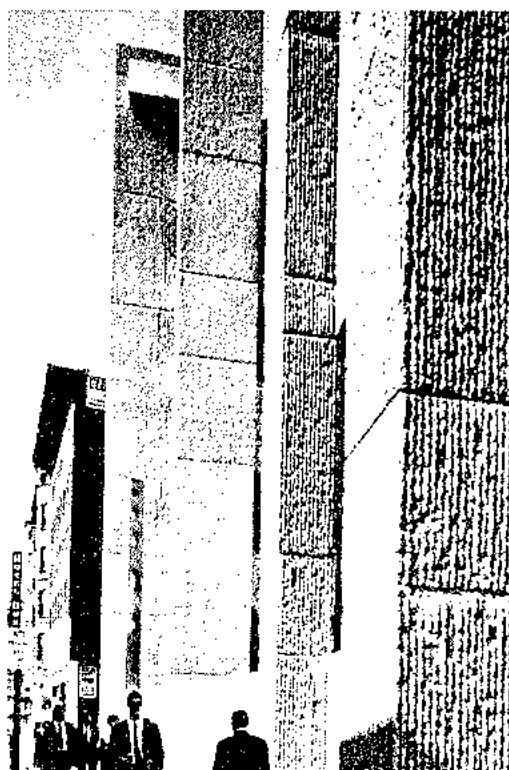
의 잘못을 범할 가능성을 남겨놓고 있다. 왜냐 하면 이 「as found」는 brutalists가 종화한 철근콘크리트에 있어서는 조합형식과 세립도, 즉 근원적인 것도 아니고 자연 그대로의 것도 아닌 두가지 요인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brutalist는 그에게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무늬있는 또는 주름진 콘크리트를 제공하는 조합형식을 선택할 것이다. 무늬 또는 주름(rugosité)을 넣는 이 경향은 마침내 조합이 직접적으로 원하는 효과를 얻어 낼 수 없어진 정도에까지 심해졌으며, 콘크리트는 드디어 거기에다가 원하는 거친 모습을 주기 위하여 석재처럼 손질되었다. 그 예가 paul Rudolph가 지은 「Yale대학교 미술건축학부(1959~1963)」¹²⁰⁾ 건물이다. 이와 같은 무늬 또는 주름에 대

한 신호는 벽돌선택에서도 엿보인다. 이런 신호는 대근한 재료가 아니라 이동품인 불규칙한 형태를 가진 벽돌에 주어진다. 이런 면들에 대한 brutalism은 이렇게 너무나 쉽사리 모방할 수 있고 또 모방되었지만, 진짜 brutalism과는 공통되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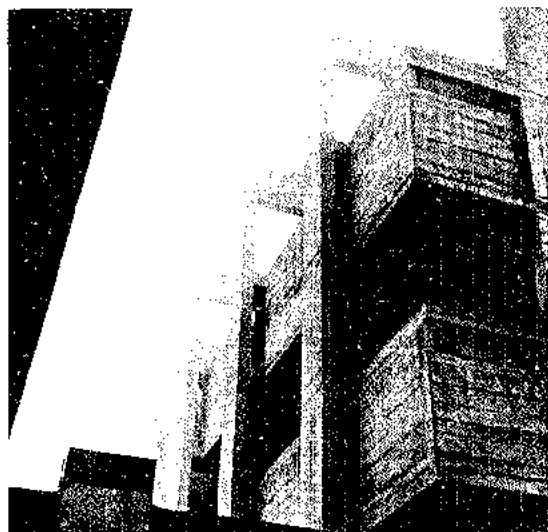
부대적인 관념을 이용하고 있는 이와 같은 진화과정은 구조에까지도 퍼졌다. 건축구조적요소들의 이용 또는 강조화가 역학적인 선들을 볼 수 있도록 외부적으로 처리하는데 쓰여진 예들이 있다. Vittoriano vigano가 지은 「Milan Marchiondi instifu(1959)」¹²¹⁾에서는 건축구조적형태들이 형식적으로 사용되어 있다.



20-1



20-2



21

大韓建築士協會誌通卷第109号

외부로 구조와 공간적정비를 보이게 하고 또 재료들을 강조하는 경향은 독직함에 대한 연구를 수반하고 있다. 이것은 가벼워 보이고 또 우아한 형태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장엄하고 무게있게 보이는 작품인상을 보여주는 것이 문제이다. 기술공학가의 이상, 어느 시대에서는 건축가에게 지배적이던 법칙, 즉 최소수단을 가지고 최대공간을 정복하려던 법칙이었던 이상은 brutalism의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필요이상의 수단들의 전개는 과잉구조화의 위험을 일으킨다. 극단적으로 계속으로 어떤 것이 생겨나고 있는 어느 곳에서나 너무 자극을 받고 있는 관찰자의 능력들이 잠식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소한 것이 더이상 주의되고 주목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대다수의 건물

들에 퍼진 무수한 낙수구들에 비하여 이것은 「Ronchamp 교회당」의 유례없는 낙수구를 생각해한다.

첫머리에서 brutalism의 그 최초의 힘을 잃고 또 우리 시대의 표현양식들을 유린하고 있는 부활의 요구의 희생물이 되어버렸다고 논하였었다. 우리는 이제 brutalism의 실존을 위협하는 위험들을 밝힐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것은 exhibitionism경향의 지나침과 처리되는 면들의 과잉강조가 주로 문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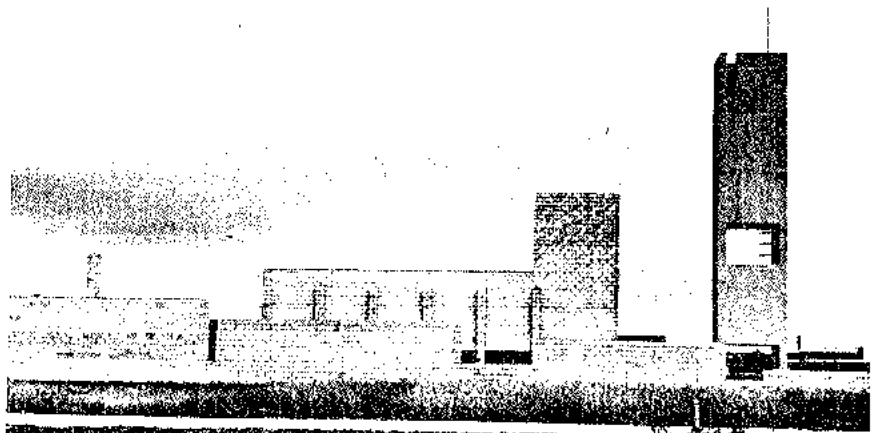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brutalism이 무늬 또는 주름있는 표면들속에서 성취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커틴·월같은 우아한 공업적형태도, 한 건축양식을 다른 건축양식으로 대체하는, 좀더 거칠고 좀더 목직한 어떤것들로 대체되고 있다. Brutalism은 결코 벽면들의 모습과 같은 특수표현을 목표삼지 않고, 그와 반대로 Berlage에서 Bakema에까지 이르는 저서들속에서 찾아 볼 수 있는것과 같은 근대에 관한 도덕적 지상과제들을 혁신하였다는 것을 다소 강조할 필요가 있다. Brutalism은 내부로부터 외부

로 발전시는 창조물과 같은 건물을 구상하므로서 Mies van der Rohe의 건축의 차디참을 극복하려고 의도 하였었다. Brutalism은 공간 적응기의 조형적질들을 위한 몇을 회복시켰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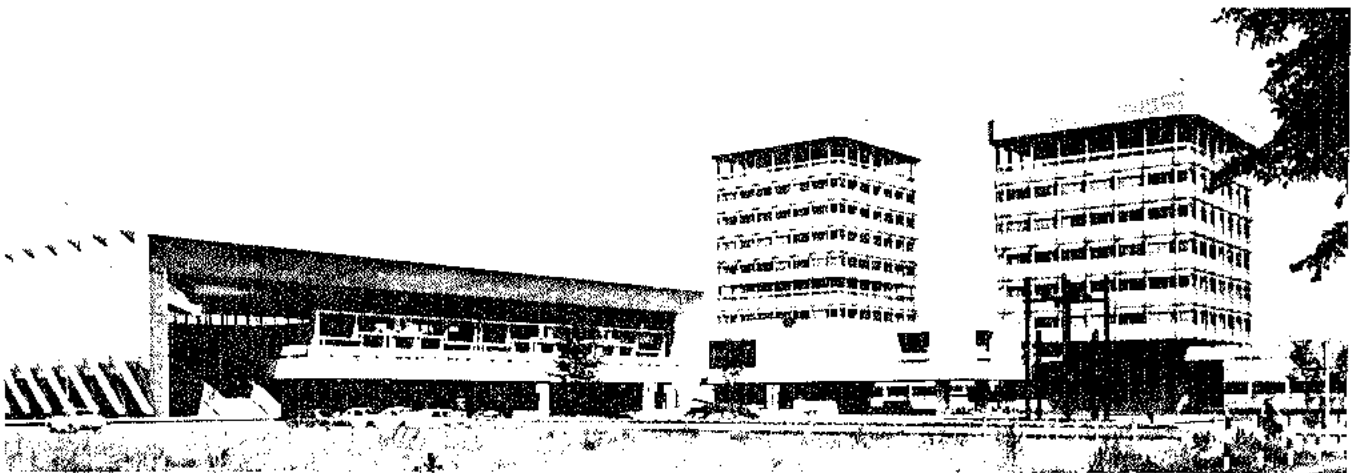
Brutalism이론의 출발점은 『Brutalism에 대한 어떤 토의도, 만약 객관적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노력들을 고려하기를 게을리한다면, 그 본질로부터 빛나간다...Brutalism은 대량생산사회에 순응하려고 시도한다』고 Alison & Peter Smithson 부처의 확인속에 도사리고 있었다. 그러나 누구나 이 확인을 돌보지 않고 있다. International brutalism은 이와 다른 노선들에 대하여 착수하고 있다. 무늬 또는 주름진 재료들의 개발은 수공업적 공사방법들 이런 결과를 초래하였고, 생산 및 건축의 공업적 기술들은 무시당하였고, 동시에 배반당하였다. 솔직하게 말한다면, 현재와 같은 형태아래서의 brutalism은 대량생산사회와는 완전히 상반된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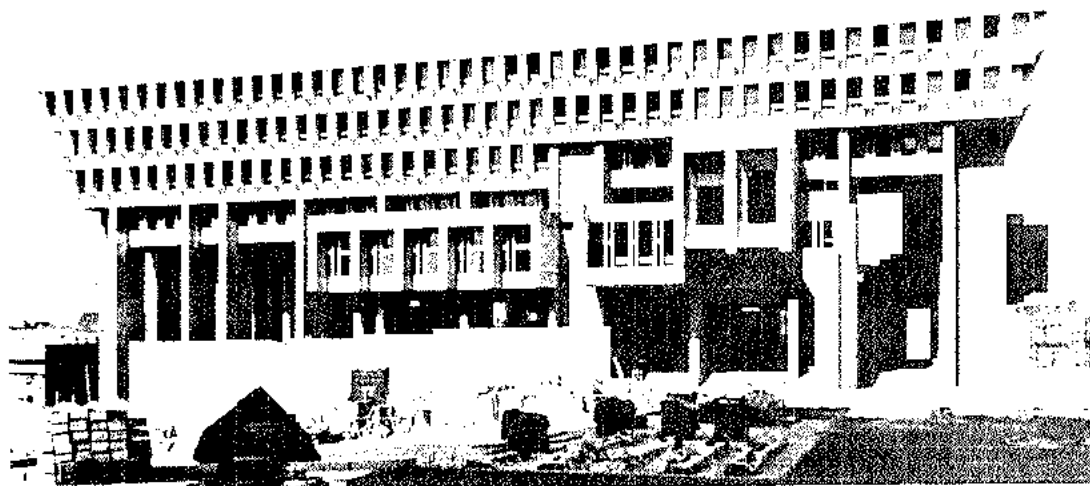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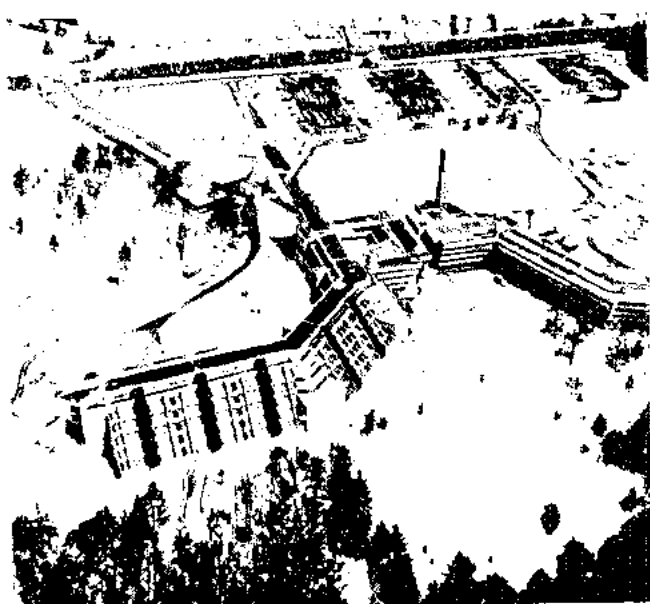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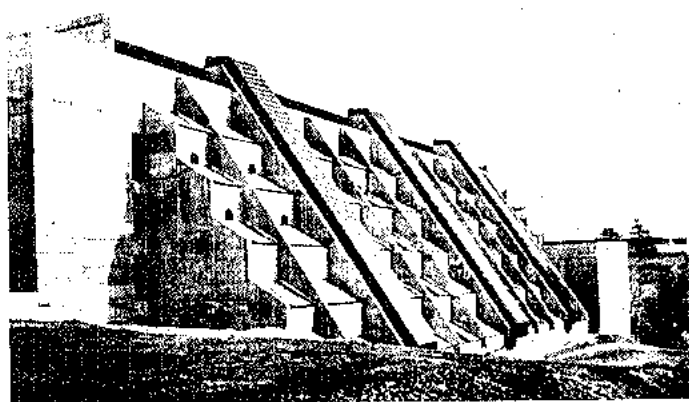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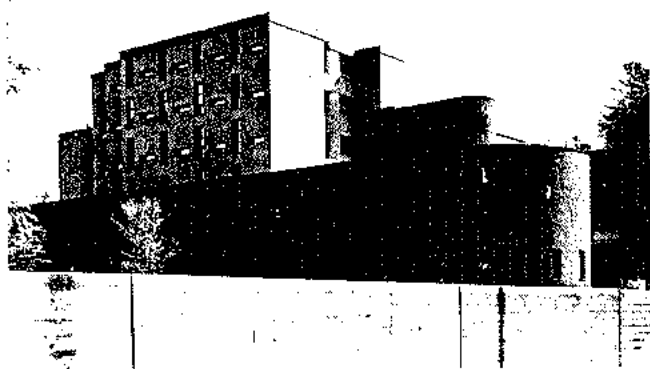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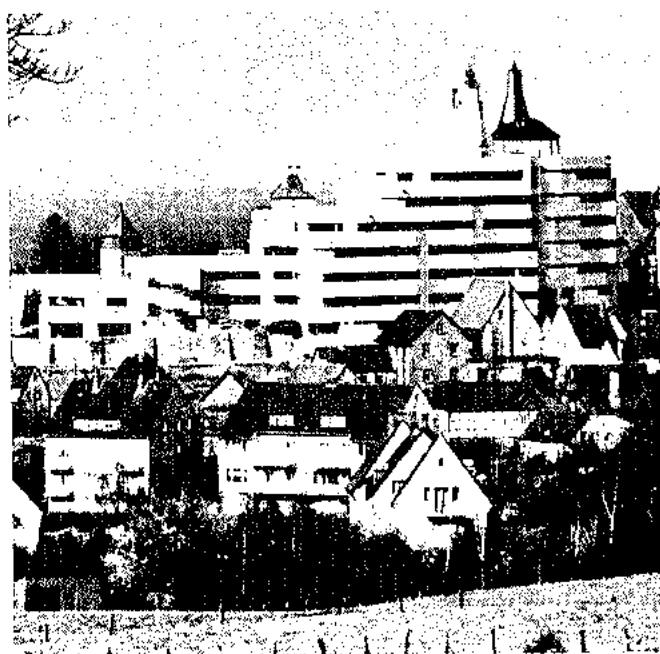
26-1



26-2



27



28



29

작품해설

(18) Aldo van Eyck : Amsterdam 고아원, 1958~1960.

언제나 똑같은 나이의 어린이들의 양호실과 거실들을 이루는 일원적 기능요소들에 의하여 구성된 복합체. 결정적인 건축 구조요소는 철근 콘크리트조로서 조립제작된 입방체들이다. 다른 구역들간의 연락통로는 벽들의 개구부와 유리사용에 의하여 수행된다.

(19) Louis Kahn : 펜실바니아대학교 Richards의학연구소 1957~1961.

이른바 「cluster」건축원리에 의거한 연구실들의 구성. 수직통로들과 유체설비장소들은 완전히 정방형 방들 밖에 자리잡고 있다. 형태는 부대 기능들에 의하여 좌우된다. 골조건물이 들어나 보인다.

(20) Paul Rodolph : Yale 대학교 미술건축학부, Haven, 1959~1963.

대단히 강렬하게 구조화되고 규격화된 외벽들. 노출된 콘크리트조의 변들은 무늬 또는 주름진 모습을 강조하기 위하여 거꾸집을 철거한 다음에 다시 손질되었다.

(21) Vitteriano Vigano : Milan Marchiandi institut, 1959

구조들과 부대기능 요소들을 강조하고 있는 조형적인 외판들의 구조화.

3 - 6 International brutalism-작품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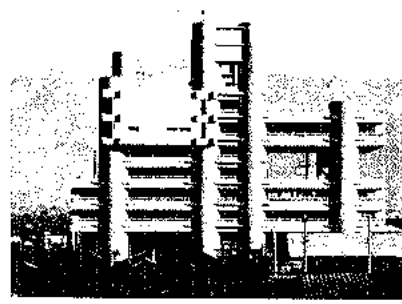
(22) Georges Candilis, Shadrach Woods 등 : 벌집형의 아파트, Casablanca, 1953.

고온다습기후지방의 특수한 아파트형태.

중전의 그늘진 중정원리가 건물속에 다층으로 치환되었다. 장부처럼 들락날락 구성된 전정형식이 횡단통풍을 가능케 한다.

(23) Johannes H. van der Broek, Jacob B. Bakema : 개신교회, Nagela, 1958~1960.

방문객들이 거닐게 되는 U자선으로 부터 비롯하여 전개된 대단히 특수한 교회형태. 외부는 닫혀있다.



30

(24) Johannes H. van den Broek, Jacob B. Bakema : Marl 시청사, 1962~1967, 1958년 현상 설계안.

두채의 사무고층 건물들이 중앙출입부분 양쪽에 배치되어 있다. 대회의장과 분과 회의실들은 그것들 옆의 건물 속에 있는데, 그 톱날모양의 절판구조 지붕은 철근 콘크리트조이다.

(25) Gerhard Kalimann, Noel Michael Mackinnell 등 : Boston 시청사, 1961년 설계.

그 자체로서 본질 또는 실체를 이루는 복합체. 이 건물은 도보자 통로쪽으로 개방되어 있다. 「image」를 필요로 하는 표현.

(26) John Andrews, Page & steels : Toronto 대학교 Scarborough college, 1964~1966.

대상건물 배치구성, 동선들이 전체정비원리를 결정하였다. 무늬 또는 주름진 재료들.

(27) Ernst Gisel : 청소년숙소, Zürich, 1963~1965.

아주 번잡한 교차로 부근에 위치하므로써 외부로 막히는 수단을 가져왔다. 침실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단히 특수한 창들의 크기. 이른바 건물조형과 막힌 벽의 질량적효과가 강조되었다.

(28) Gottfried Bohm : Bensberg 시청사, 1963~1967, 1926년 현상설계안.

도시속에 일체화 되었다는 관점에서 대단히 특수한 윤곽. 내부 중정주위에 건물들을 배치. 기교주의로 발미암은 형태들과 표현들과 더불어 탐의 대단히 미묘한 조각적형상기술.

(29) Kenzo Tange : Kurashiki 시청사, 1958~1960.

건축구조적 요소들의 강조와 더불어 건물들이 서로 관입되어 있다. 그 속에서는 Le Corbusier로 부터 연유하는 부분적 영감이 엿보인다.

(30) Kenzo Tange : Yamanashi 방송국, Koufu, 1967.

Metabolism 그룹의 이상들의 기념적 표현. 수직원통주들이 수직동선들을 포함하고 있다. 여러 층들의 바닥면들이 이 원통주들에 매어달린다. (1978. 2. 10)

人建建築士協會誌通卷第109号



인살라, 부꾸라, 슈꾸라, 할라스

曹 鐵 鎬

아랍사람들의 음식은 고기류등을 많이 먹는다는 것을 그들과 처음 식사에서 느낄 수 있었다. 많은 양의 닭고기, 양고기, 소고기를 얇은 빵껍질 같은 것으로 싸서 먹고, 배추같은 야채를 생것으로 먹는다. 우리가 닭다리 하나와 소고기 조금을 10여분에 다 먹고는 점심의 양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끝냈는데 그들은 우리의 4~5배를 먹어 치우는 것으로 보아 한국축구의 체력을 생각해 볼 정도였다. 하기가 법적으로 부인을 4사람(?)까지 둘수 있기에 많이 먹어야 하겠지만 먹는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많은 감을 주었다. 오이로 소금에 절인 것은 한국의 '오이지'와 동일한 것이라 펍 반가웠다. 한국을 다녀 간 적이 있는 한 아랍인이 이것이 아랍의 김치라고 이야기했다.

양고기같은 고기류를 많이 먹기 때문에 서양사람처럼 봄에 노린내가 나는 것 같았다. 그렇게 많이 먹는 탓인지는 몰라도 이 곳 여자들은 12살이상만 되면 가슴이 풍만해져 보기가 좋았지만 18세 전후의 처녀들은 유방이 너무 커서 겹에 질릴 정도였으며 기혼여성은 몸이 비대해서 우리들 눈을 즐겁게 하지 못했다. 언제인가 나이가 많은 신 선배님이 결론내린 머리가 좋은 여자는 가슴이 적고 머리가 나쁜 여자는 유방이 크다는 말이 생각나서 그렇게 물었더니 한 아랍인은 아랍여자는 자연적으로 그런 것 같고 자기도 유방이 중간쯤 알맞는 여자가 좋다고 했다.

머리가 좋은 여자일 수록 유방이 작다는 이야기가 맞는지 survey해 본 적은 없었지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았다. 지난달 일본 여행중 텔레비에서 본 유방크기 콘테스트가 생각난다. 유방이 큰 여자가 참피온이 되었는데 大韓建築士協會誌通卷第109号

데 유방사이에 맥주병을 실로 매여 흔들며 유방을 파시한 18세 정도의 일본 처녀는 아나운서의 질문에 수줍어 하는 것을 보고 머리가 나쁜지 확인해 볼 길은 없었다. 어쨌든 한국 여성들의 유방의 크기가 가장 알맞고 예쁘다고 생각해 보았다.

레바논의 여자들은 다른 아랍국과는 달리 얼굴을 내 놓고 다닌다. 오뚝한 코와 폭 들어간 눈이 서구인의 인상을 풍긴다.

베이루트에는 비가 잘 오지 않는다고한다. 겨울이라야 비가 좀 올 정도다. 그런데 비가 왔다. 동행한 사람에게 『저는 용머리서 어디든 가면 비가 잘 온다』고 했더니 『그래서 비가 오는 모양이지? 조형이 사우디 아라비아에 가면 국보로 모시겠어. 비가 자주 올테니까...』해서 웃었다. 소나가같은 비가 바람을 타고 호텔방 창문을 심하게 때렸다.

전날 방문했던 한국통상부의 정공사님은 펍 친절하셨으며 김참사관이며 통상부직원은 아주 친절해서 기분이 좋았다. 김참사관으로 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자기 집에 저녁을 초대할테니 오라는 것이었다. 우중에 불고 온 차에 큰 아들(중학 2년)이 함께 타고 왔다. 비속을 뚫고 김참사관이 사는 집에 도달했을 때 비는 좀 멎었다. 정성들여 차린 된장찌개와 김치에 우리는 한국의 맛을 보느라 밥을 두 그릇이나 먹었다. 쌀이 알랑미라 한국에서의 밥맛은 아니었지만 된장찌개맛에 맛있게 저녁을 들었다. 다시 호텔까지 직접 차를 몰고 보내준 김참사관의 친절은 지금도 잊지 못할 것이다. 어린애들은 미국인 학교에 보내느라 학비가 많이 든다고 걱정을 했었다. 몇

년에 한번씩 나라를 옮겨야 해서 자녀들 교육문제가 걱정
이라는 말에, 나라를 위해 각 분야에서 애쓰는 사람들의
노고에 무한한 감사를 드렸다. 외화획득을 위해 노력하는
무역진흥공사의 파견원이며 각 종합상사의 주재원들은 열
심히 뛰었으며 우수했다. 77년의 100억불 수출완성이 이
러한 한사람의 노고의 결정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의 노고
에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었다.

베이루트는 아직 전쟁 피해 복구가 이루어 지지 않은
비정상적인 상태였기에 돈이 많은 사람은 외국에서 돌아
오지 않았으며 JAL도 취항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일본
사람들이 아직 평상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모양이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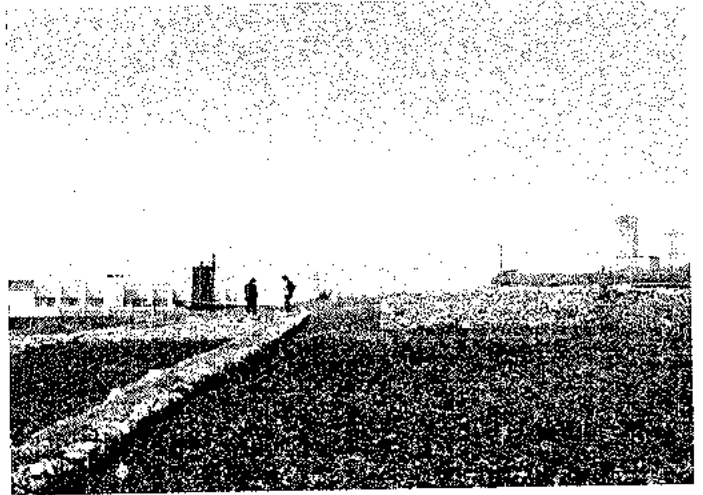
77년 10월에도 레바논 남부에 이스라엘이 침공한 사건
이 있었다.

이 글을 쓰는 동안 아침에 배달된 신문에 78년 3월 11
일 소련기관단총과 수류탄으로 무장한 팔레스타인 해방기
구 산하 야람 테러단이 하이파만에서 수도 텔아비브를 연
결하는 해변고속도로상에서 이스라엘인 관광객들이 탄 관
광버스를 무력납치 텔아비브로 질주하다가 이스라엘 군경
과 치열한 총격전을 벌인 끝에 승객 최소 37명이 죽고 82
명이 부상하는 건국 30년 사상 최악의 유혈 테러거습사건이
발생했다는 기사(한국일보 3월 14일)와 이스라엘은 15일
베이루트 인근의 팔레스타인 게릴라 기지들을 육·해·공
3면에서 대대적으로 공격, 중동사태를 제 5차 야람—이
스라엘 전면 전쟁 촉발직전의 위기로 몰아갔다. 이스라엘
은 이날 새벽부터 탱크 및 전차기의 지원 아래 약 2만명
의 병력을 투입 약 100km의 선형전선을 형성하며 레바논
남부국경으로 부터 레바논 중심부를 향해 일제히 진격, 5
개의 팔레스타인 게릴라 요새를 분쇄했으며 이날 정오부터
는 베이루트시로부터 3km 떨어진 거리의 교외에 있는 팔
레스타인 기지를 비롯 3개의 기지들을 공격포격했다는 기
사(한국일보 3월 16일자)를 보고 베이루트에 있는 한국
통상부를 비롯한 종합상사 주재원 및 가족의 피해를 걱정
했다. 레바논 남부에 공격이 있었던 77년 10월과 78년 3월의
중간지점인 77년 12월에 필자가 방문한 베이루트가 눈에
선하다. 동행했던 한국분은 74년 레바논 사태에 호텔에서
있다가 사태가 일어나 10여일을 호텔에 갇혀 겨우 목숨을
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외국에서 근무하는 주재원들의
안전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도 해 본다.

레바논 사람들도 야람과 마찬가지로 공격에 종사하는
사람은 대개 오후 3시까지 근무하는 것 같았다.

따라서 우체국의 편지 분류의 시간이 너무 걸려 국제우
편의 배달 속도는 분류하는데 5일 베이루트에서 한국까
지 비행기로 가는 5일정도 걸려 10~12일이면 배달 된다
는 것이다.

2부제로 분류 배달하는 한국 우체국 직원들의 노고가
생각났으며 편지분류도 기계로 자동화하는 방안이 빨리



채택되어 신속 배달과 편리한 문명의 혜택을 받아 해외에
수출도 가능하리라 생각해 보았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태의 베이루트에 돌아온 레바논
사람들은 무역상을 차려 여러가지 무역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었으며 한국인에게서는 건설공사를 소개해서 3%
정도의 소개료를 받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베이루트 해
변 북방 야산에 시멘트공장을 짓겠다는 한 야람 사기꾼
같은 무역상의 부탁으로 현장을 돌아 보고 가능성이 없음을
판단했다. 또 그리스에서 온 사람이 울단에 광산
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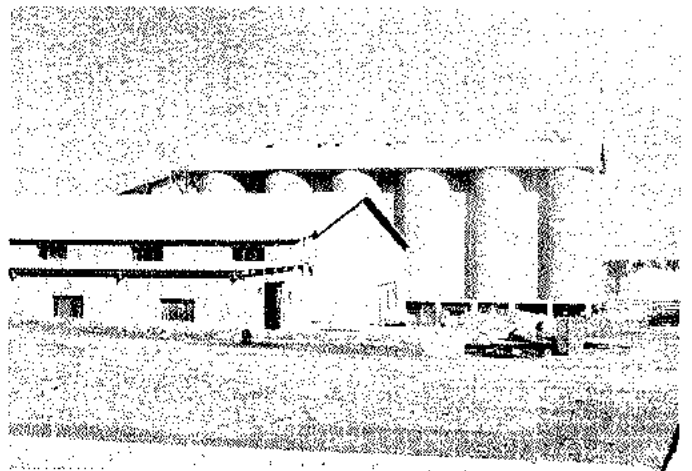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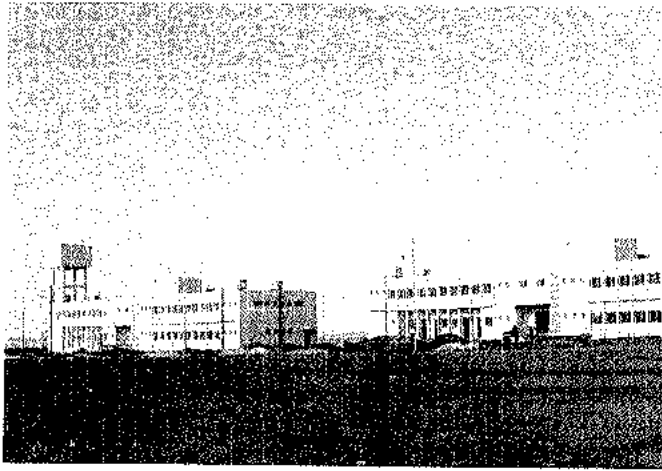
가 있어 같이 가서 현장을 보고 한국 어느 시공회사에서
참여해 달라는 부탁에 우리는 12월 24일 울단의 암만으로
향했다.

세계여행 가이드에 소개된 울단에 관한 상식은 다음과
같다.

울 단

1차 대전후 터키의 지배를 벗어나 영국의 위임 통치령
이 되었다가 1929년 영국의 보호하에 프랑스·요르단 왕
국이 세워졌으며 1946년 3월 영국으로부터 독립했다. 북
으로 시리아, 동북으로는 이란, 동남은 사우디아라비아,
서쪽은 이스라엘 접경, 요르단 강 서쪽 유역은 현재 이스
라엘에 점령되어 있다.

국토의 동쪽은 사막이고, 사해와 울단강 근처만이 비
옥한 농토가 펼쳐져 있다. 서부는 따뜻한 지중해성 기후
인데, 겨울철의 강우량도 900mm로서 농경에 적합하다. 그
러나 울단 계곡지대의 강우량은 적고, 남부는 여름철에
혹서가 계속된다. 대부분의 국민이 순니파의 이슬람교 신
자이며, 기독교 신자는 전인구의 5%정도, 농업 이외의
산업은 광공업 12%, 건설업 6%, 운수업 9%, 상업 17%
서비스업 10%이다. 공용어는 아랍어이며, 1967년 이래
9년의 의무교육 제도를 실시해 오고 있으나 문맹률은 60
~66%이다.



○여행안내

○입·출국

여권·비자신청서 및 수수료를 준비하여 입국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며 비자의 유효 기간은 6개월이다.

○교통

요단의 유일한 항구인 아코바(Aqaba)는 홍해에 면해 있는데, 대부분의 수입품은 이곳을 통과하게끔 지정되어 있다. 철도는 총연장 366km이고, 도로는 주요 도시 사이에 잘 연결되어 있다.

○관광

수도 암만(Ammam)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고 불리며, 조용하고 따뜻한 내륙에 있다. 제라시는 암만으로부터 북방 50km에 있는데, 로마시대에 가장 번창했던 도시이며 개선문과 주피터 신전 등의 고적이 있다. 해저 392m의 염호인 사해는 아름다운 호수로서 피한지지만, 이스라엘과 요단의 국경선이다.

○휴일

1월 11일 : 이슬람력 신정 (Islamic New Year)

3월 23일 : 마호메 탄신일

5월 25일 : 독립 기념일

8월 11일 : 후세인 왕 즉위 기념일

10월 3일 : 이드 알 피트르 (Id al Fitr)

11월 14일 : 후세인 왕 탄신일

※정부기관과 일부기업체들은 아래의 날에도 휴무한다.

1월 15일 : 식목일

3월 8일 : 파이잘 왕 대관 기념일

3월 22일 : 아랍 연맹의 날.

5월 1일 : 노동절

※매주 금요일은 정기 휴일이다.

◎암만 Ammam

아라비아 반도 북서부에 위치하는 천서방적인 독립 왕국 요단의 수도 사해로 흐르는 요단강 어귀에서 동쪽으로 약 30km쯤 떨어져 있다.

大韓建築士協會誌通卷第109号

동 로마 제국 시대에 지방수도로 번성한 오랜 역사의 도시인 이곳거리의 건물들은 대부분 석조로 비잔틴 양식의 교회, 목장, 극장, 사원등의 유적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있다. 특히 교외로 나가면 기원전 2세기 경의 페허인 로마의 유적 켈시에서 이오니아 식의 열주와도로 등에서 로마의 영향을 받은 흔적을 엿볼수 있다. 성서에 라바(Rapha) 암만의 이름으로 기록된 이 도시는 그리스인의 지배하에는 필라델피아라 불렸고, 지금은 요단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로 요단대학이 있다.

○교통

공항에서 시내까지는 3마일의 거리로 버스는 없고 택시요금은 1달러60센트 정도로 공항에 늘 대기하고 있어 쉽게 이용할수 있다.

○관광

암만에서 남으로 뻗는 사막 가운데 난 '사막의 길(The road of desert)'은 모세가 죽은 느보산(Mt. Nebo)에서 무히 살로메가 왕을 꺾어 세례요한의 목을 자른 마세론 땅 해룻 왕성으로 통하고 있다.

○호텔

(단위 : 달러)

	1인용	2인용
Al Cazar	10.00~15.00	15.00~20.00
Amman Club	17.00~23.00	23.00~30.00
Continental	15.00~18.00	18.00~24.00
Granada	7.00~12.00	10.00~15.00
Grand Palace	13.00~20.00	21.00~28.00

필자가 요단 인터콘티넨탈 호텔의 싱글 룸을 사용하는데 60달러가 소요된것으로 보아 위에 소개는 호텔 가격이 현시세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다.

슈쿠라 !

아랍사람들은 미국사람이 탱크를 연발할 정도로 『슈쿠라』를 연발한다. 고맙다는 아랍어다.

그들은 남자끼리라도 친한 사이는 서로 볼에 키스를 하고 이마에도 쪽쪽 키스를 음악적으로 한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가만히 관찰하고 있으면 꽤 재미가 있다.

올단을 향하는 비행기를 기다리는 우리 일행은 올단의 해외 수주를 위한 한국건설회사측에 한 사람, 그리스에 온 무역상을 하는 파레스타인 한 사람, 베이루트에서 법과를 전공한 무역상의 직원 한 사람 그리고 필자 4 사람이었다. 그리스에 온 사람은 회사명이 KIMCO여서, 한국회사로 보이는 이름이라했더니 잘 알고 있다고, 한국에는 金氏 李氏성이 많다는 것을 한국 방문으로 알고 있었나 한다.

그리스를 떠날 때 부인이 빈 가방을 하나 사 주면서 전부 새워오라는 말을해서 우리 일행은 웃었다.

올단 암만에 사는 장인에게 준다고 양담배 4갑을 사서는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는 올단에 가서 돌려 달라는 것이다. 올단 암만공항에서 담배가 많으면 세금을 붙어야 한다는 것이다.

쿠에이트에서 레바논으로 올 때 한 5일만 체류할 예정이었기에 간단히 손가방만 가지고 가고 나머지 짐은 쿠에이트빌라에 두고 왔기에 짐은 적어 편했지만 갈아 입을 옷이 없어 약간 불편했다. 올단으로 향하는 MEA는 밤공기를 타고 북적지까지 무사히 우리를 실어다 주었다.

군야전 잠바를 입은 많은 사람들이 공항에 나와 있어서 군인들로 착각했었다. 짐을 조사하는 것은 김포공항보다 더 심했다. 공항을 빠져 나갔더니 서울에서 보기 힘든 벤즈 자동차가 즐비하다. 택시가 모두 벤즈였다.

운전사역시 군야전잠바를 입고 있었다. 암만에서 제일 좋다는 인터콘티넨탈 호텔에 묵기 위해 도착했더니 운 좋게 방이 4개 남아 있어서 우리는 모두 일제히 「인살라」라고 했다.

크리스마스 이브를 예루살렘과 요단강이 가까운 올단에서 지낸다는 것이 꽤 외위가 있는 일이었지만 우리는 관광을 온 일행이 아니었기에 충분한 시간을 얻지 못했다. 사실 크리스마스를 가족과 함께 보내지 못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것도 해외에서 떨어져 있는 경우라 가족에게 꽤 미안했다. 해외에 진출한 해외건설업체나 수출업체에 종사하는 모든 한국인이 이러한 뜻있는 날에 느끼는 향수감과 애국심은 함께 느낄 수 있었다. 호텔에 서 밤 12시에 서울 우리 집과 통화가 되도록 신청을 해두었다. 시간차가 7시간이라 그때쯤 서울은 새벽 7시가 되어 크리스마스는 서울에 있는 사람보다 7시간을 늦게 맞는 셈이다.

징글 벨이 울리는 올단의 호텔은 사람의 기분을 이상하게 만들었다. 그리스에서 온 사람은 지금 좀 부인이 화를 내고 있겠다고 걱정하는 표정으로 보아 공처가인 모양이다.

다음날 우리는 광산 공사를 하는 현장으로 향했다. 호텔에서 만들어 준 점심을 준비해서 차에 실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석유도 나지 않는 올단은 황폐한 땅이었음을 알았다. 고속도로라는 것은 한국의 고속도로에 비하면 국도에 지나지 않았으며 기차를 이용하기 보다는 비행기를 잘 이용하고 있다 한다. 올단에 비하면 정말 한국은 금수강산이다.

날씨가 일본 날씨와 비슷하여 中東에서는 시원한 편이었다. 벤즈가 많은 이유는 유럽에서 쓰고 남은 폐차할 차를 인수 받은 것이라 한다. 집이며 옷을 머루어 우리나라라보다는 훨씬 못 사는 나라라는 것이 확인될 정도로 꼭 6·25이후 자유당 시절의 군복을 입은 민간인 처럼 보인다.

오는 길에 지질조사를 하는 현장을 볼 수 있었다. 먼지가 많았다.

현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인도나 파키스탄 사람들이라 한다.

점심시간에 나무가 조금 있는 공장근무사원 사택이 있는 별관에서 차를 세워놓고 점심식사를 서서 했다. 바람이 몹시 불어 추웠다. 닭고기와 양고기 오이지 찜질같은 빵이며 올리버, 삶은 달걀, 콜라, 사과, 바나나가 점심식사의 대부분이었다. 서울에서의 도시락이 생각난다. 점심을 끝내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한국인건설회사에 건설하는 현장을 찾아 갔다. 현장소장이 친구여서 깜짝 놀라게 하려고 예고없이 찾아 갔다. 가보았더니 크리스마스로 모두 쉬고 한국인 두사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현장소장은 암만시내로 들어 갔다는 것이다. 배모를 해 두고 왔다. 해외에서 건설한 건물이 깨끗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친구인 현장소장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대사관에서 노무판이 이야기해서 알았다는 것이다. 대사관에서 거만했던 한 직원이 생각난다. 혹 현장소장으로 있는 아무개를 모르느냐고 했더니 현장소장 정도를 파악해 두어야 하느냐고 화를 내어 놀라게 했다. 자기보다 월급이 훨씬 많은 현장소장이 자기 보다 지위가 낮다고 생각하는 그 직원 정말 한심했다. 알아 보았더니 월급이 적다고 부인에게 늘 야단을 맞아 머리에 쏘이상이 생긴 것 같다고 한다. 대사관에는 각 해외건설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명단과 카드를 비치하여 파악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기분이 별로 좋지않아 열병 노무판을 만났더니 꽤 친절했다. 화낸 직원은 해외에서 한국기술자를 너무 많이 만나 해외라는 기분 전혀 느껴져 못하나 보다. 그리고 가히 좋지 않은 기분으로 나온적이 있었다.

올단에서 예고 없이 만나는 친구는 너무 반가웠다. 中東에서는 술과 배꼽춤이 있어서 돈이 좀 든다는 올단이라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휴가 오기도 한다는 것이다.

겉가의 어린 아이는 용케 필자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아는지 태권도의 흉내를 내었으며 아랍사람들은 등만 쳐도

때리는 줄 알고 놀란다고 한다. 좋은현상이다. 태권도로 국위 선양이 많이되어 있다. 건설하면 한국이라고 그들은 한국인의 부지런함을 부러워 한다. 파키스탄 사람들은 한국 기능공에 비해 임금은 싸지만 열심히 일하지 않으며 또 일이 끝나면 잘 귀국하지 않아 두통이라 한다. 中東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 비행기 여비는 적게 들어도 경제적이 못 되지만, 한국건설회사에서도 입찰가격이 낮으면 파키스탄 이나 인도사람을 고용한다고 한다.

우리는 해외에서 배꼽춤과 맥주를 마시며 벤즈 택시를 타고 한국 돈으로 택시 기본요금과 비슷한 거리의 어느 빠른 향했다. 맥주와 땅콩, 등의 풍종류의 안주가 별로 취하게 하지 못했다. 크리스마스 밤을 그 친구와 그것도 7시간의 시차가 있는 울탄에서 지낸다는것은 정말 『인살라』가 아닌가. 2차를 할만한 곳이 없어 호텔로 왔다. 벤즈인페도 옆에 노랗게 칠한 것은 버스라 우리나라 돈으로 50원 정도의 배스요금을 받고, 환칠을 한 벤즈는 택시요금을 받는다. 호텔로 돌아 왔다. 자정이 가까웠다. 서울에 신청한 국제전화가 나왔다. 지구의 반바퀴를 돌며 음성이 선을 타고 아내에게 전해 졌다. 가는 음성에 셔도 아내임을 알아 내었다. 밤과 새벽의 대화. 사무실은 아무 걱정없었지만, 수금이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나와 있다 한다. 귀국해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지금 한창 설계중에 있는 창원기능대학 종합건설계획은 연기할 수 없고 1月13일에 납품해야 대학에서 건설계획에 차질이 없다고 한다. 다른 일을 못 본다하드래도 년내에 귀국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우디 아라비아에 잠깐 들리고 귀국해야 한다. 서울에서 해결할 일이 너무나 많다. 12월31일은 토요일이라 12월30일은 서울에 있어야 수금, 세금봉급이 해결되는 급한 상황이다.

일본에 잠깐들려 책을 구입해야 하는 계획은 귀국날짜에 차질을 가져 올 것만 같다. 정말 신에게 맡기는 수 밖에 없다……『인살라』

밤이 새는 줄 모르고 친구와 팔자는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누구는 어느 해외 현장에 누구는 재미가 좋다는지 지…… 서울 소식과 해외 소식이 하루 밤사이에서 교환되어 좁혀졌다.

점사부인이 30억을 횡령했다는 소식이며, 이리 폭발 사고며 누구는 어떤 차를 샀다며 어느 건축사는 부조리로 남이 하는 일을 배앗아해서 일이 너무 많다는 등 즐겁고 슬픈 소식이 친구사이에 그대로 전할 수 있어 좋았다. 실력보다는 교재를 잘하고 남의 일을 배앗아야 사무실에 일이 많다는 한국 어느 건축사의 이야기가 오 갈때 즐겁지는 못했다. 해외에서 일을 만드는 한국기술자는 정말 훌륭하다는 것을 느꼈다. 정당하게 실력으로 해외의 일을 외국 선진국과 경쟁해서 따내는 실력은 정말 훌륭했다. 애국자가 따로 없다고 생각했다.

크리스마스 밤이 그렇게 짧은 적은 예전에 없었다.

사우디 아라비아 방문 계획을 세워야 했다. 귀국길을 서두면서 계획을 짜려니 너무 무리였다.

다음날 우리 일행은 사우디아라비아 젯다로 향했다.

세계 가이드에 소개된 사우디 아라비아는 다음과 같다

다음호에 계속

물 자 절 약

범 국민적으로 소비절약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경제 난국을 극복하자.

정부시책의 호응 본회 및 각시모지부 전국회원은 자율적으로 실천 수범하자.

1. 수입 물자 절약하여 국제수지 개선하자.
2. 근검절약 생활화하여 경제자립 이룩하자.
3. 폐물자 활용하여 국산대체 추진하자.

〈주요시책목표〉

유류 절약	10%
전력 절약	10%
공급 요금	3%
수용비	5%

會員作品

알림

協會大賞 論文 會員作品 選定方法 以下

本協會大賞 施行選定은 每年定期總會
前後 韓國文學會 大會를 選定하오나
78年度 韓國文學會 大會에 掲載(收錄)되
는 作品을 選定하오나 選定하여 施行케되
었음을 會員에게 알리며 大會 參與를 바
라나오나 韓國文學會 大會에 參與를 限함

한국은행 마산지점

설 계 : 金正澈 (株) 正林建築

• 담당 : 건축 : 김기웅, 송명규

구조 : 이은철

기계 : 박용한

전기 : 이상호

• 구조 : R. C 造

• 규모 : 건축면적 : 2,072m²

연면적 : 6,824m²

층 수 : 지하 1층, 지상 3층

• 외벽 : AL CAST 및 외장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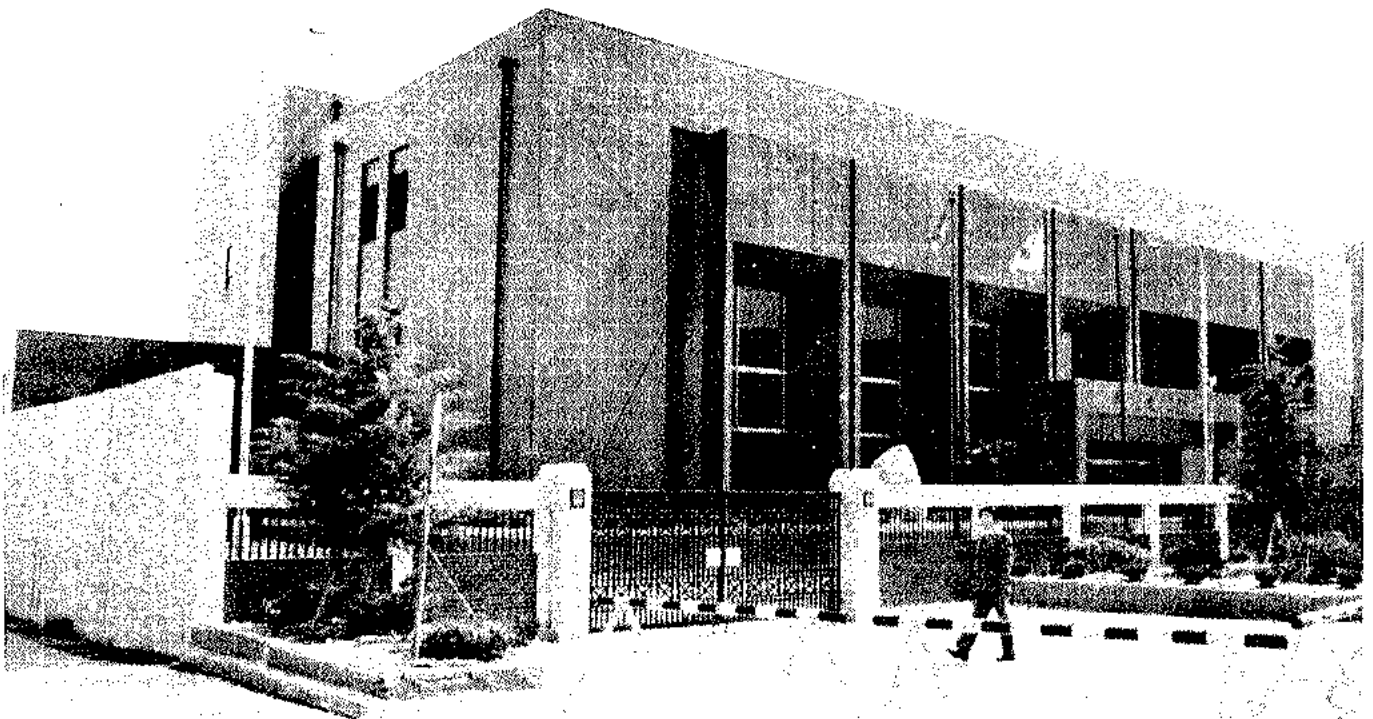
●設計概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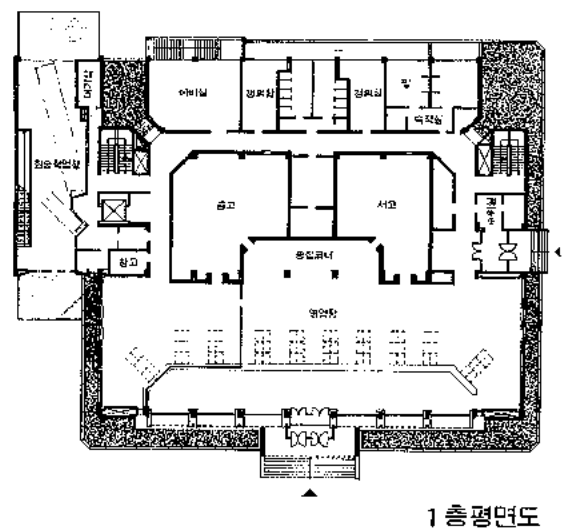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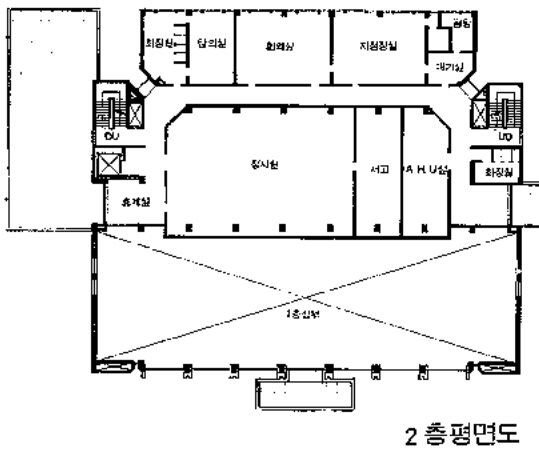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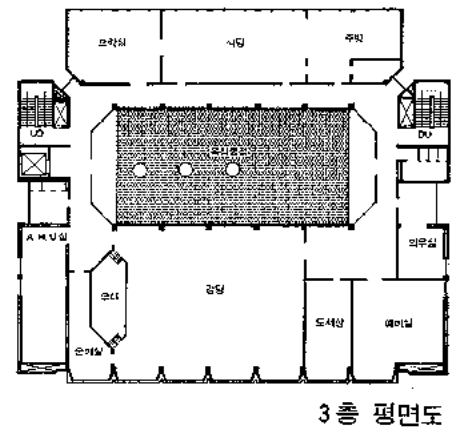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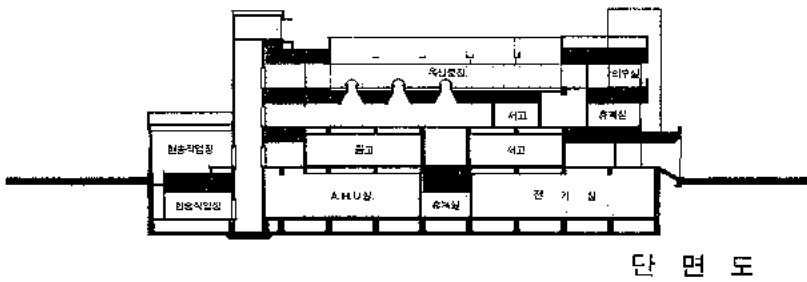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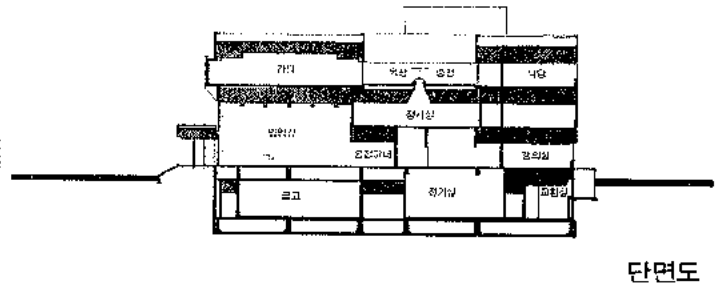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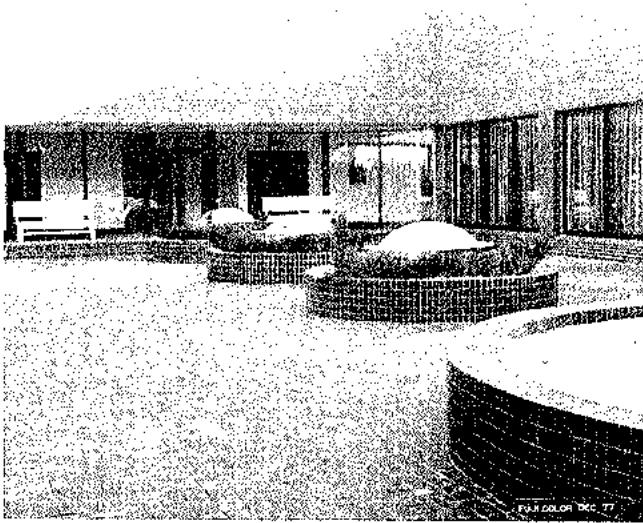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은행건축이라고 하면 중후한 외관에 대칭성을 연상한다. 오랫동안 내려온 인습에서 탈피하기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현실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그 고독스런 표현을 순화시키느냐가 본 PROJECT의 주요한 과제였다.

육중한 질감을 가진 실은색 타일을 배경으로 밝은 AC CAST의 대비로 전면성을 꾸며 점차 돌출하는 점진성을 갖게 하며 지나친 무게감을 줄이는데 노력했다.

중앙은행으로서 품위는 다소 필요하며 발랄함과 생동감보다는 변치않는 믿음직한 흐름에 외·내부 DESIGN의 역점을 두었다.

전 경





신사동 정씨댁

설 계 : 김관욱, 유응덕 (대호건축연구소)

건물위치 : 서울 강남구 신사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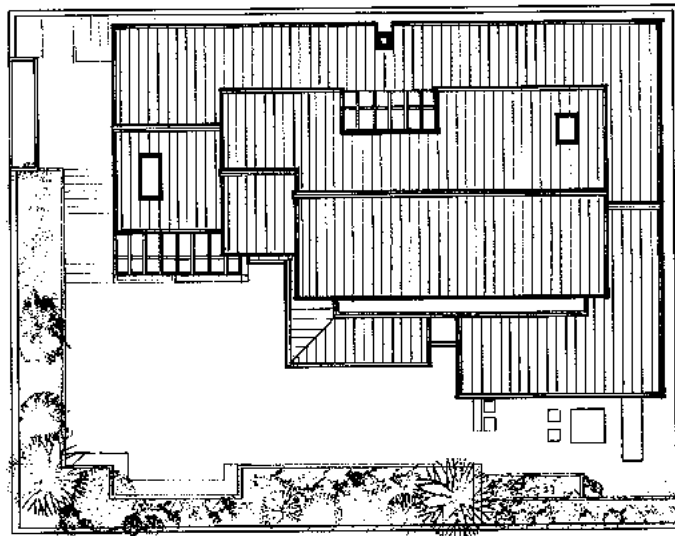
건축면적 : 227m²

지층 : 55m²

1층 : 127m²

2층 : 43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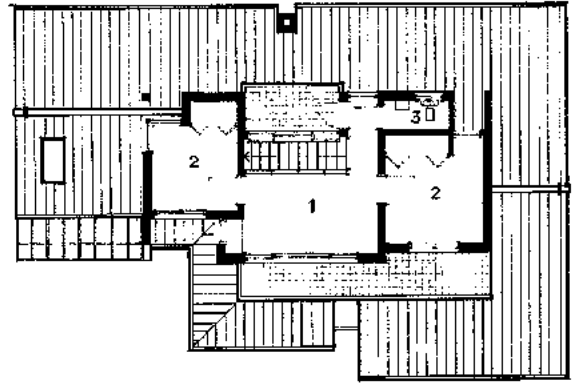
구 조 : 조적조



배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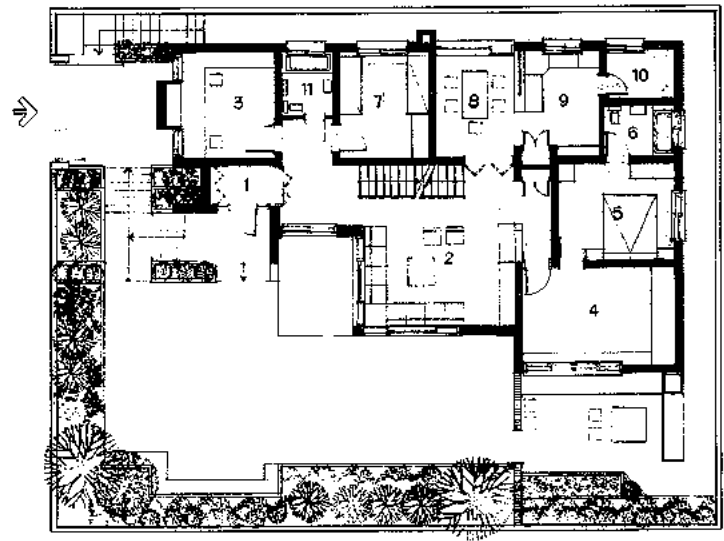
전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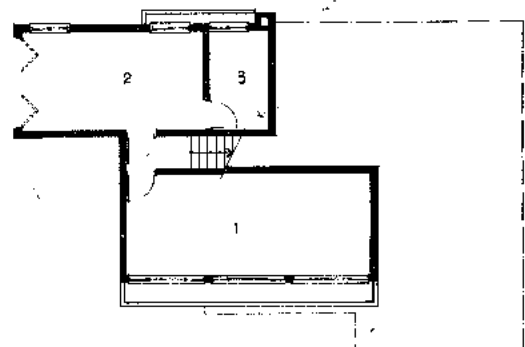
2층평면도

1. 자녀거실
2. 자 녀 방
3. 화 장 실



1층평면도

1. 현 관
2. 거 실
3. 서 재
4. 안 방
5. 주인침실
6. 주인욕실
7. 자 녀 방
8. 식 당
9. 주 방
10. 가정주부
11. 욕 실



지층평면도

- 지 층
1. 탁구장
2. 차 고
3. 보일러실

K씨 주택

설 계 : 柳 承 根 (新建築綜合研究所)

건물위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 가 104-30

건축면적 : 56.1 평

연 면 적 : 107.81평

지하층 : 12.18평

1 층 : 56.1 평

2 층 : 39.53평

구조 조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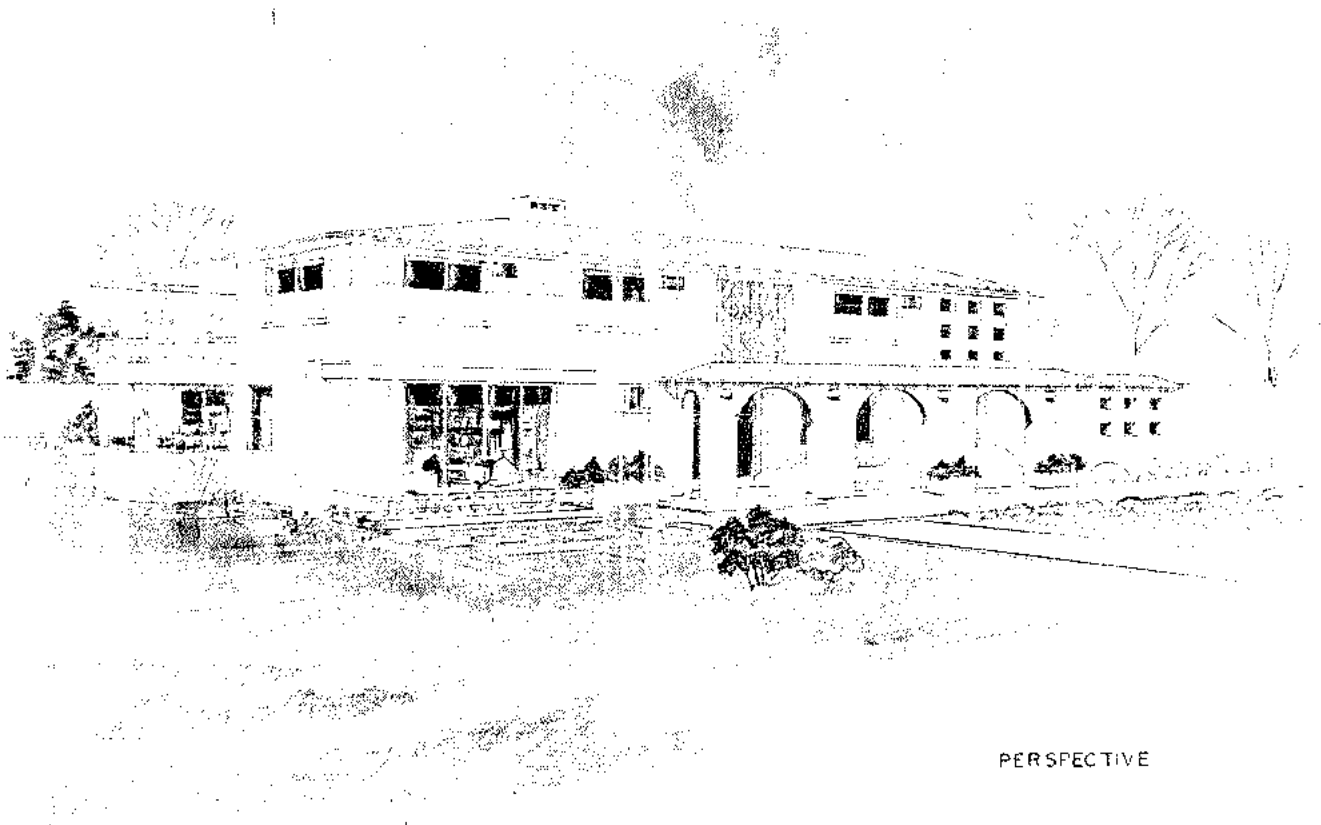
설계개요 : ① 장성한 많은 자녀 ② 신식의 이해와
습관의 동경간의 갈등 ③ 나의 과시 (표
현), 이것들이 이번 설계의 주요 소재인 것
같다.

주내장재 ... 티크원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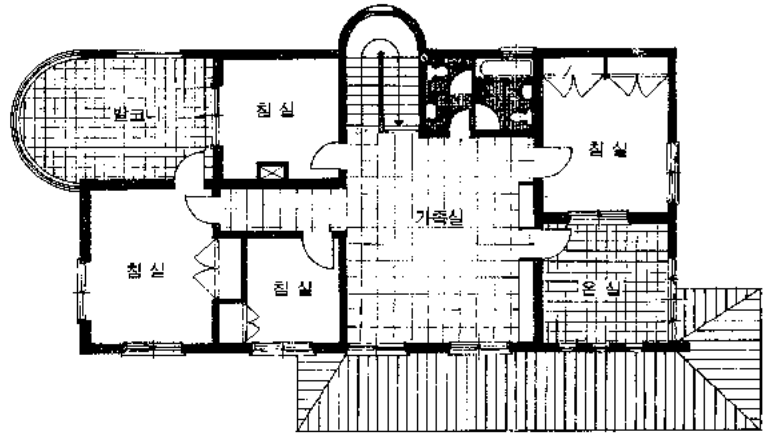
외 장 재 ... 오지기와, 화강석.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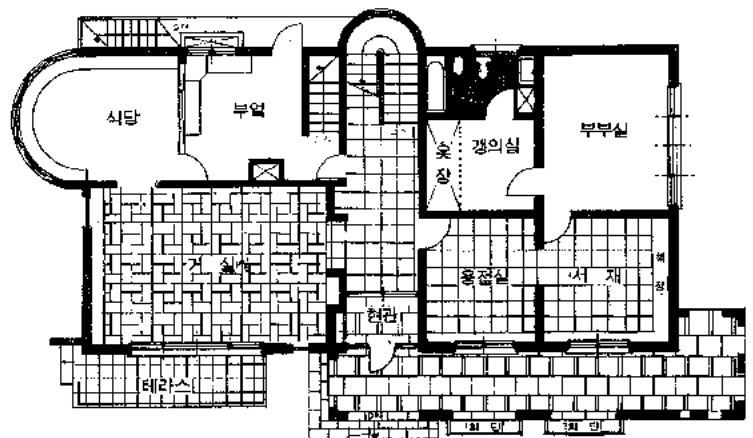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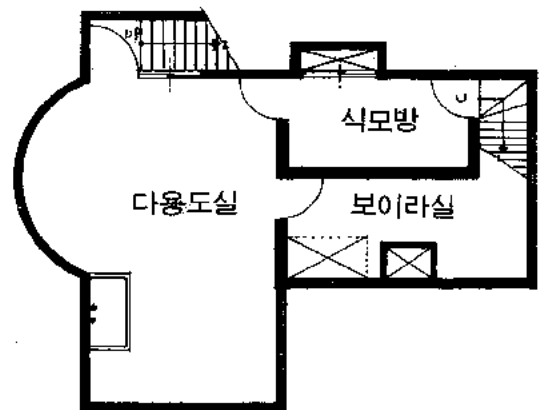
PERSPECTIVE



2 층평면도



1 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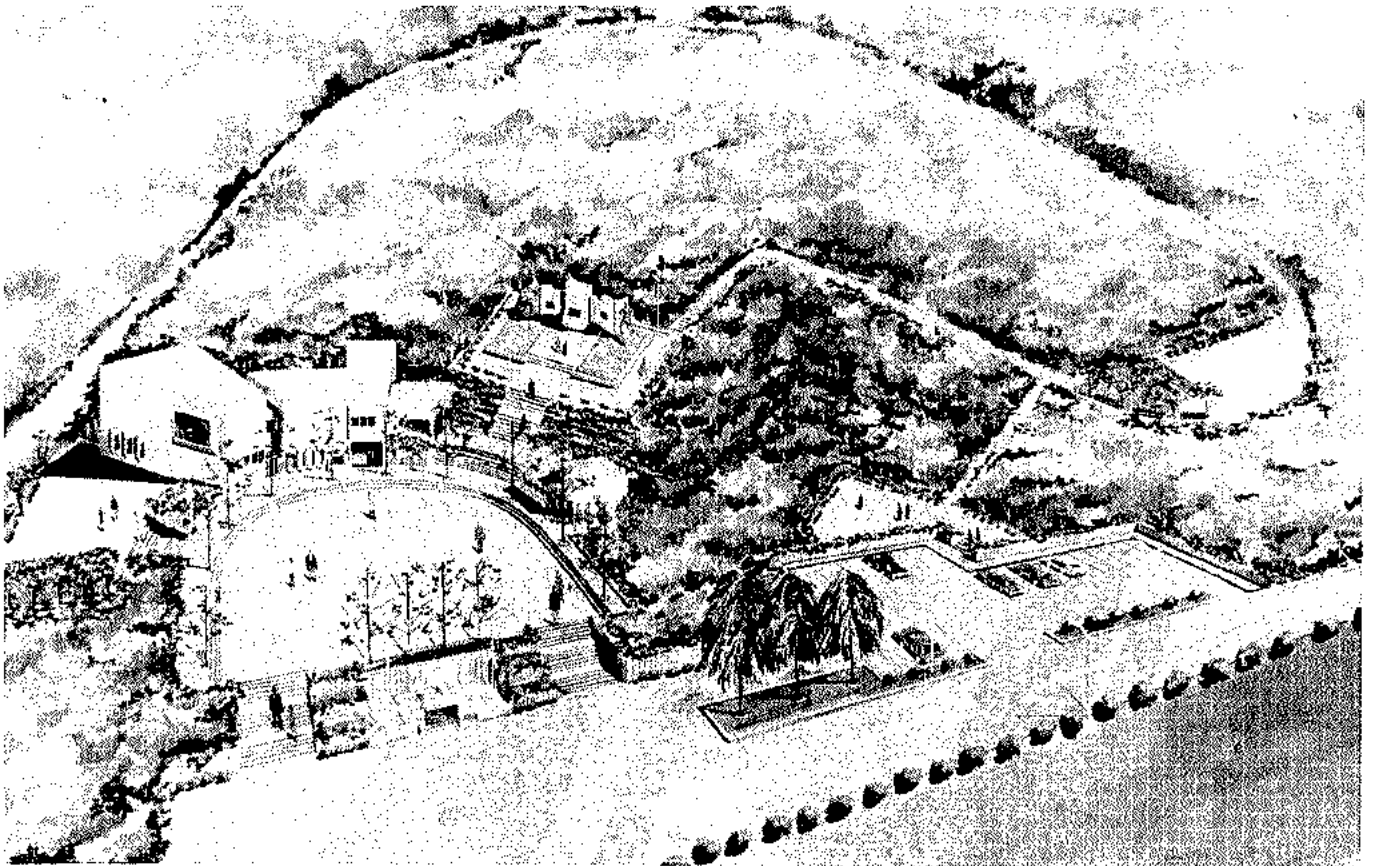
지하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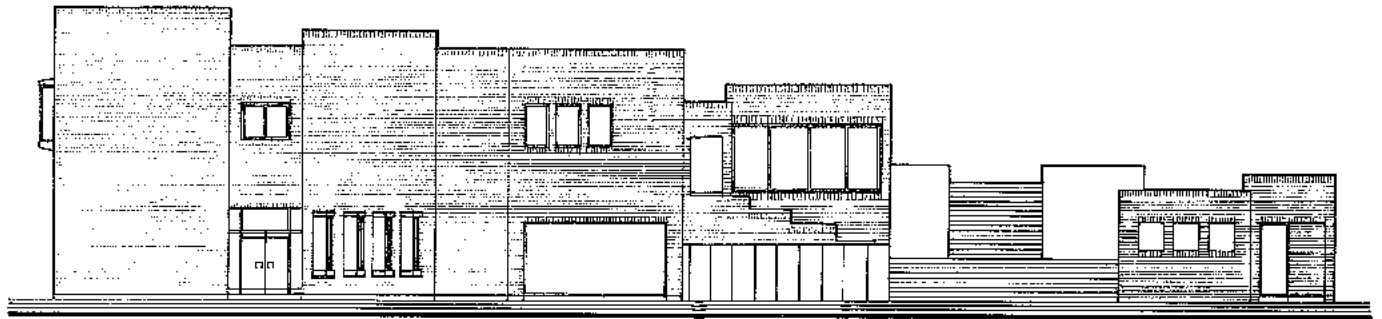
왜관지구 전적지 개발계획

설 계 : 李 丞 雨 (株) 綜合建築設計事務所
위 치 : 경북 칠곡군 석적면 중지동
개발면적 : 5,000 坪
전적기념관 : 150坪
구 조 : 철근 콘크리트조
전적기념비 : 彫刻家 閔福鎭氏 作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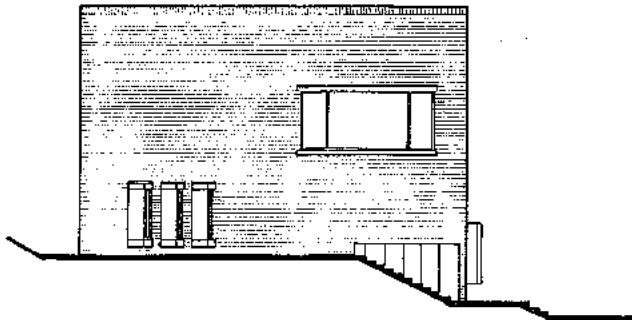


전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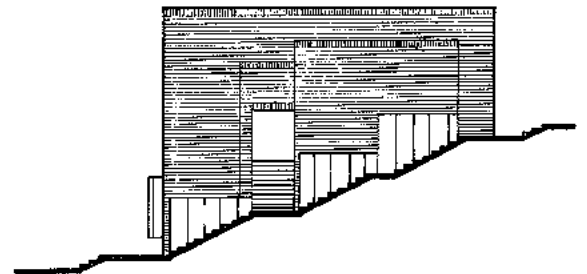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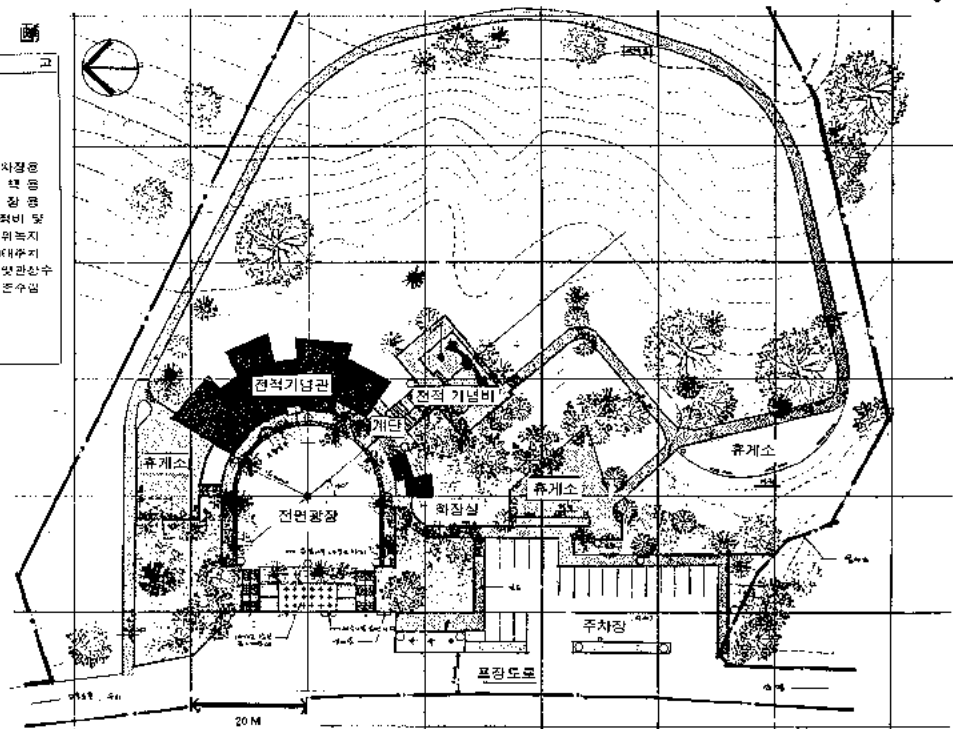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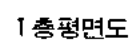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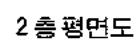
입면도

全体配置計画

구분	면적(㎡)	비고
주거	200	
전시관	200	
식기냉장	140	
화장실	10	
휴게소		
휴게소(1)	100	주식점
휴게소(2)	150	산책길
휴게소(3)	50	광장
전직기념비	100	전직비 및 주회복지
주차장	300	20대 주차
인공조림녹지	400	잔디및관상수
전면국기제양대	2,600	기존수입
합계	4,500	



배치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개정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택의 규모) ① 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규모는 단독 주택의 경우에는 50호, 집단 주택의 경우에는 50세대 이상으로 한다.

② 동일사업주체가 일단의 주택단지를 수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별로 건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단위규모의 건설공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모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전체공구의 주택건설호수 또는 세대수의 규모에 따라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계획서 작성시에 미리 그 뜻을 명기하여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조 (부대시설) 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통신시설.
2. 가스공급시설.
3. 자동차 정류소.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제4조 (복리시설) 법 제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동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운동장 또는 체육시설.
2. 공동저수 시설.
3. 오물 또는 진개의 수거시설.
4. 공원 또는 녹지시설.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

제5조 (주택건설종합계획) ①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및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익년도의 주택건설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도 10월말까지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년도 주택건설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택 및 택지현황.
2. 익년도의 주택건설계획.
3. 익년도의 택지수급계획(아파트지구택지 수급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4. 주택자금조달계획 및 투자계획.
5. 주택자재 수급계획.
6. 주택개발에 관한 계획.
7.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로부터 익년도의 주택건설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총괄 조정하여 12월말일까지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건설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주택은행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익년도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건설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주택건설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도지사·대한주택공사·한국주택은행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국가기관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도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도 10월말까지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협의의를 받아야 한다.

⑦ 도지사는 제2항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주택건설장기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大韓建築士協會誌通卷第109号

제6조 (주택정책심의위원회) ① 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내무부장관.
2. 재무부장관.
3. 농수산부장관.
4. 상공부장관.
5. 보건사회부장관.
6. 대통령경제제1수석비서관.
7. 국무총리행정조정실장.
8. 대한주택공사사장.
9. 한국주택은행장.
10. 주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건설부장관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위촉한자 4인 이내.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심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2인을 두되, 간사는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장과 건설부 주택국장이 된다.

④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택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택건설종합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⑤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심의회의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나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정한 위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⑥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심의회의 실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부주택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로 한다.

1.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장, 예산국장.
2. 내무부 지방행정국장.
3. 재무부 이재국장.
4. 농수산부 농업경제국장.
5. 상공부 공업단지국장.
6. 보건사회부 사회국장.
7. 체신부 계획국장.
8. 대통령비서실 경제담당비서관.
9. 국무총리행정조정실 제2행정조정관.
10. 대한주택공사 부사장.
11. 한국주택은행 전무이사.
1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부회장.

13. 기타 관계부처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2인 이내.

제7조 (주택조사) ① 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사는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정기조사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인구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비정기조사는 건설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사항목을 특정하여 실시한다.

③ 주택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택의 지역별·형별·규모별 분포.
2. 택지의 규모·위치·건설기간.
3. 입주형태·난방방식·관리형태.
4.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8조 (주택정책에 대한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도지사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종합계획의 실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주택의 건설공급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기타 건설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건설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사업의 범위는 연간 단독 주택의 경우에는 5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50세대 이상으로 한다.

②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에게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건설부장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등록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건설부장관은 주택건설사업자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이하 "등록업자"라 한다)는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등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업계획 및 실적의 제출 등) ① 등록업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서 및 실적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부장관은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수립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등록업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제11조 (지정업자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에게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정업자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건설부장관이 지정업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정신청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건설부장관은 주택건설사업의 전문화·대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정업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 (국민주택자금의 조달) 지방자치단체·한국주택은행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국민주택자금의 조달을 위한 익년도 국민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매년도 10월말까지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익년도 주택건설계획서의 제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 (한국주택은행에 의한 국민주택자금의 조달) 법 제1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국민주택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무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14조 (국민주택자금의 조달 및 운용현황의 보고등) 지방자치단체·한국주택은행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매월별 국민주택자금의 조달 및 운용현황을 익월 말일까지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국민주택채권의 발행 승인 등) ① 한국주택은행이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그 발행할 금액 발행방법·조건·상환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민주택채권은 무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③ 한국주택은행이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에 관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발행 총액과 매출 기간 및 제16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국민주택채권의 이율은 연 12퍼센트 이하로 하되, 재무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 (국민주택채권의 기재사항) ① 국민주택채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한국주택은행장이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1. 채권의 명칭.
2. 채권의 번호.
3. 채권의 액면금액.
4. 채권의 이율.
5. 원금상환의 방법과 시기.
6. 이자지급의 방법과 시기.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한국주택은행장이 국민주택채권을 매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을 첨부하여 매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한국주택은행장이 국민주택채권 매입자가 국민주택채권을 멸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분실한 경우라도 이를 재발행할 수 없다. 다만, 국민주택채권의 매입필증에 대하여는 매입자가 매입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매입필증정구의무자”라 한다)가 확인한 경우에 한하여 재발행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 한국주택은행장은 재발행하는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에 재발행의 표시를 하고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재발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7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할 자와 매입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표 3에 규정된 면허·허가 또는 인가를 하거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하는 경우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부장관은 해외건설공사도급허가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징구사무를 한국은행총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영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설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8조 (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 ① 국민주택채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에 상환할 수 없다.

1. 당해 면허·허가 또는 인가가 국민주택채권매입자의 귀책사유없이 철회되거나 취소된 경우.
2.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매입하였거나 법정 매입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의 귀책사유없이 계약을 취소당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 상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무를 취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증명을 첨부하여 한국주택은행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9조 (국민주택채권의 등기) ① 한국주택은행은 매년 당해 연도의 국민주택채권발행총액 및 제16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는 익년에 따라 1년분을 본점 소재

大韓建築士協會誌通卷第109号

지에서는 50일 이내에, 지점 및 출장소 소재지에서는 60일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주택은행이 등기를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점·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농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④ 제 3 항의 경우에 1 개의 관할등기소가 한국주택은행의 본점 또는 주개의 지점이나 출장소를 관할하는 경우에는 그중 본점이나 1 개의 지점 또는 출장소가 일괄하여 등기한다.

제20조 (국민주택채권원부의 비치) ① 한국주택은행은 국민주택채권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권의 번호.
2. 채권의 권종별 액면금액.
3. 채권의 이율.
4. 채권의 발행 및 상환일.
5. 채권매입자의 성명.

② 국민주택채권원부는 이를 본점에 비치한다. 필요한 때에는 매출점포별로 이를 비치하고 각각 그 매출분을 기재할 수 있다.

③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다른기관에 위탁하여 매출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한국주택은행은 그 위탁매출분에 대한 원부를 본점에 별도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21조 (국민주택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위탁) 재무부장관은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주택은행으로 하여금 다른 금융기관 기타 재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기관에 국민주택채권의 매출 및 상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운용규정등) ① 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주택은행법시행령 제11조, 제12조 제 5 호 단서, 제13조, 제28조 및 제30조 제 3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19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 여유자금은 그 운용기관이 이를 운용할 수 있다.

제23조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서울특별시시장 부산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는 아파트지구 지정의 고시가 있는날로부터 1년내에 건축법시행령 제155조의 2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건설부장관이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지구개발기본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지구개발사업의 명칭.

2. 위치(구역).

3. 면 적.

4. 계획의 개요.

제24조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 법 제21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을 시행하기 곤란한 현저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정업자가 당해 아파트지구내 토지면적의 4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을 때(당해 토지를 사용할 적법한 권리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지정업자가 건설하는 인접한 다른 아파트 건설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당해연도 사업계획상 그 아파트지구의 개발사업에 즉시 참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주택건설 종합계획상 그 아파트지구를 당해 연도에 개발할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

제25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신청) 법 제22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자인 사업주체가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6조 (관리처분계획의 기준등에 관한 특례) 아파트지구내(이하 "지구내"라 한다)에서의 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관리처분계획의 기준등에 관하여는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지구내 토지는 사업시행자별로 또는 1 개의 지구나 주개의 지구로 구분하여 필지를 정할 수 있다.

2. 지구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토지 가격에 상응하는 주택으로 보상하되 토지소유자 1 인당 1 개의 주택에 한한다. 다만 종전의 토지가격이 1 개의 주택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7조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① 법 제27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환사채(이하 "사채"라 한다)는 액면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② 사채발행의 요건과 절차에 관하여는 증권거래법을 적용한다.

③ 사채권에는 기호와 번호를 붙여야 한다.

④ 사채발행자는 주택상환사채대장을 비치하고 사채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여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서) 법 제27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대한주택공사와 금융기관의 보증을 받은 지정업자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 8 호의 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

1. 발행자의 명칭.

2. 회사의 자본금 총액.

3. 발행할 사채의 총액.
4. 수종의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각 사채의 권증별 금액 및 권증별 발행가액.
5. 발행조건과 방법.
6. 분납발행인 때에는 분납금액과 시기.
7. 상환절차와 시기.
8. 주택의 건설위치·형별·단위규모·총세대수 - 착공년월일·준공년월일 및 '입주예정일'.
9. 주택가격의 추산방법.
10. 할인발행인 때에는 그 이율과 산정내역.
11. 중도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2. 보증부 발행인 때에는 보증기관명과 보증의 내용.
13. 납입금의 사용 계획.
14. 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 또는 주선기관명.
15. 기타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29조 (납입금의 사용) ① 사채의 납입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1. 택지의 구입 및 조성.
 2. 주택사채의 구입.
 3. 건설공사비에의 충당.
 4. 기타 주택의 상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비용에의 충당.
- ② 사채의 납입금은 보증부 발행인 때에는 당해 보증기관과 사채발행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금융기관에서 관리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한국주택은행 또는 사채발행자가 주로 거래하는 은행(이하 "납입금 관리기관"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 ③ 사채발행자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충당하기 위하여 납입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입금 관리기관에 그 지급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④ 납입금 관리기관은 건설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납입금 관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납입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 (주택의 규모와 건설기준 등) ① 법제31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단위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단독주택은 1호당 60평방미터 이상 330평방미터(국민주택은 85평방미터) 이하
2. 연립주택은 1세대당 40평방미터 이상 297평방미터(국민주택은 85평방미터) 이하
3. 아파트는 1세대당 40평방미터 이상 297평방미터(국민주택은 85평방미터) 이하

② 건설부장관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 및 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 1항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규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 1항 제 2호에서 "연립주택"이라 함은 각 세대마

다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동일구조체로서 2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하며, 제 1항 제 3호에서 "아파트"라 함은 복도·계단 및 설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와 대지의 전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 330평방미터 이상인 3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건물 배치계획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바닥면적이 그 이하인 때에도 이를 아파트로 본다.

④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규모의 산정방법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 (주택의 규모별 공급비율) ① 법 제32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자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규모별 공급비율은 제30조 제 1항 제 1호 내지 제 3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건설공급 비율이 주택의 건축 연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비율은 단위사업 계획별로 적용 한다.

제32조 (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건설사업계획서(대지만을 조성·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서)
2.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3. 건축법시행규칙 제 1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인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도서로 한다.
4.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6조 제 3항 제 4호 및 제 5호에 정하는 서류(도시계획법 제 2조 제 1항 제 7호에 규정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을 시행하거나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 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사장·군수가 법 제33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서를 첨부하여 15일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건설부장관은 국가 또는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관계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관계 부·처·청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건설부장관이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 4항의 경우 사업계획의 내용 중 제35조의 규정

에 의한 간선시설 설치에 필요한 때에는 당해 간선시설 설치의무자에게도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도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⑦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당해 아파트지구내 토지의 전부를 소유(토지의 사용에 관하여 적법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는 따로 받지 아니한다.

제33조 (표본설계도서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①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정업자가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에게 주택의 형별로 표본설계도서를 작성·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건설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표본설계도서의 사본을 관계 부·처·청의 장에게 송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정업자가 제1항의 표본설계도서에 의하여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도서를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건설부장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32조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표본설계도서의 승인 및 제3항의 사업계획 승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정업자인 사업주체가 표본설계도서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제32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서중 표본설계도서를 제외한 도서를 작성하여 착공 5일전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 (주택에 대한 준공점사 등) ① 시장·군수가 건축법 제7조 및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되는 주택에 대한 준공점사 또는 중간점사를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이 승인한 사업계획의 내용에 따라 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준공점사 또는 중간점사는 신청일로부터 15일내에 행하여야 한다.

제35조 (간선시설의 설치) ① 국민주택의 사업주체가 50세대 이상의 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하거나 그 건설을 위하여 일단의 매지조성사업을 할 때에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설치의무자(이하 “간선시설설치의무자”라 한다)는 간선시설을 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을 때에는 국민주택의 사업주체는 당해 사업의 준공전까지 간선시설 설치의무자에게 간선시설 설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간선시설설치의무자가 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간선시설의 설치를 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2항의 간선시설설치요구가 있을 날로부터 1월내에 그 사유 및 설치예정시기를 명시하여 당해 사업주체에게 통보하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설치비 보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6조 (간선시설설치비 보상) ①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설치비 보상기간은 당해 공사준공일로부터 3년내로 한다.

② 사업주체가 그와 우선부담으로 간선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간선시설설치의무자가 보상을 완료할 때까지 보상계약의 내용에 따라 당해 부대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용료 기타의 요금을 징수하여 보상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③ 간선시설설치의무자는 사업주체가 우선부담한 간선시설의 설치비용과 보상이 완료할 때까지 연 10분의 금리를 합산한 금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37조 (주택의 관리) ① 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관리범위·절차및 방법.
2. 관리비의 산정기준.
3. 주택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질서있는 공동생활이 영위될 수 있기 위하여 필요한 입주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5.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주체는 입주개시일로부터 1년간 주택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자치적으로 관리하거나 주택관리인이 관리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8조 (주택관리인)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인의 면허기준 및 관리방법과 시기 등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 (주택자재생산업의 면허 신청 등) ①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생산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택자재생산업

면허신청서를 건설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2. 영업소의 소재지.
3.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4. 면허를 받고자 하는 품목
5. 자본금 또는 재산
6. 시설 및 장비
7. 정관(법인에 한한다)
8.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① 주택자재의 면허품목과 주택자재생산업의 면허기준은 별표 4 및 별표 5와 같다.

③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면허수수료로서 1만원 상당의 수입증지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0조 (주택자재생산업의 면허제한) 법 제41조 제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재생산업의 면허를 취소당한 자는 그 취소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주택자재생산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중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41조 (주택자재 검사기관)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의 검사를 행할 자는 국립건설연구소, 지방공산품검사소 또는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검사기관으로 한다.

제42조 (무주택근로자의 주택건설) ①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규모이상"이라 함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50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나 근로자들로 구성된 조합이 근로자주택을 건설하는 때에는 국민주택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수 있다.

③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제 32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서에 그 사용자 또는 근로자 조합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 (시범주택의 건설) ①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주택건설사업계획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부장관이 시범주택건설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건축사 중에서 입회인 또는 감리자를 정하여 당해 공사를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③ 건설부장관은 시범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민주택자금을 지원할수 있다.

제44조 (감독) 사장·군수가 법 제48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에 대하여 공사의 중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한 때에는 이를 즉시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 (권한의 위임) 건설부장관은 법 제 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권한, 법 제 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의 말소에 관한 권한,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내에서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권한,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권한(다만, 국가 또는 도지사가 작성하는 사업계획의 승인 및 대한주택공사와 지정업자가 작성하는 사업계획의 승인 및 대한주택공사와 지정업자가 작성하는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다)과 법 제41조 제 1항 및 제 5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생산업의 면허 및 취소에 관한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사업시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1978년 1월 1일 이후 이 영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제32조 제 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자가 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자로 지정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1978년 1월 1일에 법 제21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 (등록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건설부장관이 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관할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당해 지정업자는 법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등록업자등록기준

구 분	기 준
자 본	2,000만원 이상(개인의 경우에는 재산평가액 5,000만원 이상)
기 술	건축분야 기술자 1인이상
사무실	33m ² 이상
전 화	1대 이상

가. 자본금은 지정신청공고일 현재 납입된 자본금을 말한다.

나. 주택건설실적은 지정신청 공고일 현재의 실적을 말한다. 다만, 사업계획의 승인(건축허가를 포함한다) 또는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건축공사의 공정이 20%이상 진척되고 분양공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 주택건설실적과 주택건설공사 도급실적은 합산할 수 없다.

라. 기술능력은 지정신청공고일 현재 건설업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면허대장에 등재된 경우에 한한다. 다만, 건설업 면허기준에 의하여 기술자를

[별표 2]

지정업자의 지정기준

1. 건설업법상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소지자로서 다음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구 분	서울·부산·지역	기 타 지 역
자 본 금	5억원 이상 (다만, 3년간 주택건설실적이 합계 150호(또는 세대)이상 900호(또는 세대) 미만이거나 3년간 주택건설공사 도급실적이 합계 500호(또는 세대)이상 3,000호(또는 세대) 미만인 경우 및 일단지 내에 1,000세대 이상의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자본금이 2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2억5천만원 이상 (다만, 3년간 주택건설실적이 합계 80호(또는 세대)이상 450호(또는 세대)미만이거나 3년간 주택건설공사 도급실적이 합계 250호(또는 세대)이상 1,500호(또는 세대) 미만인 경우 및 일단지내에 500세대 이상의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주택건설실적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공급실적이 300호(또는 세대)이상이거나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공사 도급실적이 1,000호(또는 세대)이상일 것.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공급실적이 150호(또는 세대)이상이거나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공사 도급실적이 500호(또는 세대)이상일 것.
기술능력	○토목분야 기술자: 2인 이상 (기사 1급이 1인 이상이어야 한다) ○건축분야 기술자: 4인 이상 (기사 1급이 1인 이상이어야 한다) ○전기분야 기술자: 1인 이상 ○기계분야 기술자: 1인 이상 ○안전관리분야 기술자: 1인 이상 ○건축사: 1인 이상	○토목분야 기술자: 1인이상 (기사 1급에 한한다) ○건축분야 기술자: 2인 이상 (기사 1급이 1인 이상이어야 한다) ○전기분야 기술자: 1인 이상 ○기계분야 기술자: 1인 이상 ○안전관리분야 기술자: 1인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보유 부분에 한하여 이를 따로 보유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2. 건설부장관은 상기 1의 기준에 적합한 신청자 중에서 당해 신청자의 기업경영상태와 신용·자재생산능력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그중 우수한 자를 지정업자로 지정한다.

[별표 3]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자와매입기준

1. 다음에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체에 한한다)

라. 금융기관

大韓建築士協會誌通卷第109号

2. 매입금액은 별지 부표와 같다.

3. 다음에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매입의무의 일부를 면제한다.

가.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한 농민,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한 어민에 대하여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그 회원조합 또는 단위 조합의 장이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그 회원조합 또는 단위 조합의 장이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영농자금, 어업자금의 융자금임을 확인한 때에는 융자에 필요한 저당권설정등기시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나. 다음에 정하는 자가 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부동산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1) 불교재산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불교

매	입	매	상	매	입	금	액
1.	귀속점포 영업허가						100,000
2.	업종 소지자 허가						30,000
3.	사행행위 허가						
	가. 복표발행(현상을 포함한다)						500,000
	나. 스러트머신 및 이와 유사한 사행 행위						300,000
	다. 카지노						3,000,000
4.	주류 판매업 허가(도매업)						100,000
5.	주류 제조업 면허						300,000
6.	수렵 면허						
	가. 갑종 면허						5,000
	나. 을종 면허						100,000
7.	특정 외래품 판매업 허가						50,000
8.	건축허가(대수선 허가를 제외한다) 주거전용 건축물은 연면적이 85평방미터(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당 전용면적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지하실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를 초과하는 때와 주거전용 이외의 건축물은 연면적이 165평방미터 이상인 때에 한하며,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 후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증축전에 매입한 금액을 뺀 금액(1973. 2. 26이전에 건축허가된 건축물과 1973. 2. 27. 이후 1975. 12. 4. 이전에 건축허가된 주거전용 건축물로서 증축후의 연면적이 165평방미터 미만인 주거전용 건축물에 있어서는 증축후의 연면적에 해당하는 난을 기준으로 하되 증가 면적에 한하여 산정한 금액)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한다. 또한 용도 변경의 경우에는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용도 변경전에 매입한 금액을 뺀 금액의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게 한다.						
	가. 주거전용 건축물						
	(1) 연면적 85평방미터 초과 100평방미터 미만인 경우					연면적3.3평방미터당	1,000
	(2) 연면적 100평방미터 이상 132평방미터 미만인 경우						
	단독주택					"	4,000
	공동주택					"	3,000
	(3) 연면적 132평방미터 이상 165평방미터 미만인 경우						
	단독주택					"	7,000
	공동주택					"	6,000
	(4) 연면적 165평방미터 이상 231평방미터 미만인 경우					연면적3.3평방미터당	
	단독주택					"	15,000
	공동주택					"	12,000
	(5) 연면적 231평방미터 이상 330평방미터 미만인 경우					"	30,000
	(6) 연면적 330평방미터 이상 660평방미터 미만인 경우					"	50,000
	(7) 연면적 66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					"	80,000
	나. 주거전용 이외의 건축물(다만, 읍급 이하의 지역과 공업단지 및 공업 배치법 상 유치지역 내에서 신, 증축하는 공장용 건축물과 전선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교육용, 종교용, 자선용, 기타 공익용과 축산업에 쓰이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매입대상	매입금액
(1) 극장, 영화관, 빠, 카바레, 요정, 오락장 및 사치성 욕장용 건축물	연면적 3.3평방미터당
(2) 기타 철근 및 철골조의 건축물	12,000
(3) 연와조 및 석조의 건축물	" 4,000
(4) 시멘트벽돌 및 블록조의 건축물	" 3,000
다. 관광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관광숙박시설	" 2,000
라.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혼합된 건축물	" 1,500
(1)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혼합된 건축물은 주거부분과 비주거부분을 구분하여 각 용도의 면적에 대하여 각각 가목, 나목을 적용한다.	
• (2) 건축물의 연면적이 165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과 전체연면적을 비주거용으로 산정한 금액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	
9. 건설업 면허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재산평가액의) 1/1,000
가. 일반공사업	
나. 특수공사업	"
다. 단종공사업	"
10. 해외 건설업 면허	" 1/1,000
11. 주택자재생산업 면허	
가. 시멘트 가공제품 생산업	
(1)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100,000
(2) 각 도청소재지	50,000
(3) 기타지역	30,000
나. 기타 생산업	100,000
12. 공유수면 매립면허	면허수수료의 20/100
13. 중기 신규등록	과세표준액의 5/1,000
14. 중기 사업신규 허가	
가. 대여업	
(1) 종합중기 대여업	200,000
(2) 단종중기 대여업	100,000
나. 정비업	
(1) 종합중기 정비업	100,000
(2) 부분중기 정비업	50,000
15. 전기공사업 신규면허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재산평가액)의 1/1,000
16. 측량업 등록	50,000
17. 건축사 사무소 등록	
가.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100,000
나. 각 도청 소재지	50,000
다. 기타 지역	30,000

매 입 대 상	매 입 금 액
18. 식품영업허가	700,000
가. 유통전문음식점영업	
나. 일반유통음식점영업	
(1)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500,000
(2) 각 도청 소재지	300,000
(3) 기타 지역	100,000
다. 대중음식점 영업(특수 유통음식점 영업, 전문음식점 영업 및 휴게실营业을 포함한다.)	
(1)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150,000
(2) 각 도청소재지	100,000
(3) 기타 지역	70,000
라. 파자점, 다방영업	
(1)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300,000
(2) 각 도청 소재지	200,000
(3) 기타지역	100,000
마. 유제품, 마아가린 및 쇼트닝유, 식유제품, 통조림, 청량음료 및 당류 제 조업허가	
(1)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200,000
(2) 각 도청소재지	150,000
(3) 기타 지역	100,000
19. 숙박영업 허가	
가. 호텔업	
(1)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500,000
(2) 각 도청 소재지	400,000
(3) 기타 지역	300,000
나. 여관영업	
(1)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100,000
(2) 각 도청 소재지	70,000
(3) 기타 지역	50,000
다. 여인숙 영업(연면적 165평방미터 이상에 한한다.)	
(1)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70,000
(2) 각 도청 소재지	50,000
(3) 기타 지역	30,000
20. 유기장업 허가	
가. 당구장	
(1)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100,000
(2) 각도청 소재지	70,000
(3) 기타 지역	50,000

매	입	대	상	매	입	금	액
나. 기 원							
(1)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30,000
(2) 각 도청소재지							20,000
(3) 기타 지역							10,000
다. 골프장							5,000,000
라. 골프연습장							
옥 외							200,000
옥 내							100,000
마. 불링장							1,000,000
21. 목욕탕업 허가							
가. 목탕(터키탕 및 증기방울 포함한다.)							
(1)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1,000,000
(2) 각 도청소재지							700,000
(3) 기타 지역							500,000
나. 공중탕(사우나 포함분에 한한다.)							
(1)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500,000
(2) 각 도청소재지							400,000
(3) 기타 지역							300,000
22. 전화가설 허가							
가. 9급지 이상 자동구역				대	당		12,000
나. 6급지 이상 8급지 자동구역				"			6,000
다. 가입전선, 가입승락(텔렉스)				"			24,000
23. 부동산 동기							
가. 소유권 보존 또는 이전							
(1) 주거전용 건축물							
건축물(토자포함)의 과세표준세액이				과세표준액의			
가)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			20 / 1,000
나)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			335 / 1,000
기타 지역				"			30 / 1,000
다) 3,0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			40 / 1,000
기타 지역				"			35 / 1,000
라) 4,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			50 / 1,000
기타 지역				"			45 / 1,000
마)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			60 / 1,000
기타 지역				"			55 / 1,000

매입대상	매입금액
바) 1억원 이상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기타 지역	" 70/ 1,000 " 65/ 1,000
(2) 주거전용 건축물 이외의 부동산(과세표준액이) 가)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기타지역	" 25/ 1,000 " 20/ 1,000
나)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기타 지역	40/ 1,000 35/ 1,000
다) 1억원 이상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기타 지역	50/ 1,000 45/ 1,000
라) 상속 보존 과세표준액이	과세표준액의
(1)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기타 지역	" 25/ 1,000 " 20/ 1,000
(2) 3,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기타 지역	" 40/ 1,000 " 35/ 1,000
(3) 1억원 이상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기타 지역	" 60/ 1,000 " 55/ 1,000
다. 저당권 설정 및 이전 저당권 설정금액이 1,000만원 이상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기타 지역	저당권 설정금액의 10/ 1,000 5/ 1,000
24. 자가용 승용차 신규등록	다만, 매입금액은 5,000만원 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특급차(수입가격 500만원 이상의 차이거나 배기량 2,500cc이상의 차)	대당 2,300,000
나. 고급차(배기량 2,000cc이상의 차)	" 1,000,000
다. 일반차(군장관급 장교와 국방과학 연구소에 근무하는 책임연구원, 책임기술원 및 선임연구원(9호봉 내지 15호봉)용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증명하는 것은 제외)	
(1) 갑종(배기량 1,500cc이상의 차)	대당 700,000
(2) 을종(배기량 1,000cc이상의 차)	" 250,000
(3) 병종(배기량 1,000cc미만의 차)	대당 200,000
라. 소형차(절, 퍼브리카)	대당 120,000
25. 자동차 운송 알선사업 또는 대여사업 면허	50,000
26. 자동차 정비사업 및 중고자동차 매매업 신규허가	

매 입 대 상	매 입 금 액
가. 정비사업의 신규허가(1급에 한한다)	
(1)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100,000
(2) 각 도청소재지	80,000
(3) 기타지역	50,000
나. 중고자동차 매매업의 신규허가	100,000
27. 해외건설공사 도급 허가(계약이 체결된 자에 한한다)	도급계약금액의 1/10,000
28. 법인 설립 등기(상법의 규정에 의한 등기시에 한하며, 건설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주요 전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공업유치 지역 내에서 신설되는 법인의 등기는 제외한다.)	자본금의 1/1,000

[별표 4]

주택 자재의 면허품목

품 목	품 명	비 고
벽 돌	소성 벽돌	
	시멘트 벽돌	
	고압 벽돌	
	토공 벽돌	
	연탄재 벽돌	
블 록	소성 블록	
	시멘트 블록	
	고압 블록	
	토공 블록	
	연탄재 블록	
관 재 와	P. C 관	
	시멘트 기와	
	토공 기와	
	연탄재 기와	
	스레트 기와	
창 호	목재 창호	
	콘크리트 창호	
	알루미늄 창호	
	철재 창호	
	합성수지 창호	

[별표 5]

주택 자재생산업면허기준

업 종 별	면 허 기 준
1. 점토소성제품 (소성벽돌, 소성블록) 생산업	(1) 배합 및 토련시설 1식 (2) 소성 시설 1식 (3)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시멘트, 가공제품(시멘트 벽돌 : 시멘트블록, 시멘트 기와) 생산업	(1) 배합 및 혼련시설 1식 (2) 양생 시설 1식 (3)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P.C 관 생산업	(1) 콘크리트 제조 및 생산장치 1식 (2) 반송 시설 1식 (3) 증기 양생시설 1식 (4)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4. 창호제품(창과 창틀, 문과 문틀) 생산업	(1) 건조 및 양생시설 1식 (2) 배합 및 혼련시설 1식 (3) 가공 및 조립시설 1식 (4) 절단 및 압축시설 1식 (5) 압출 및 성형시설 1식 (6)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단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인 종교용 또는 사회복지용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나 이전등기를 하는 때

- (2)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이 교육용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하여 소유권의 보존등기나 이전등기를 하는 때

다. 다음의 자에 대하여는 건설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매입대상 항목의 일부를 지정하여 이를 면제할 수 있다.

- (1) 외국인

- (2) 경제개발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그 소속단체

- (3)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국고 보조 또는 지방비의 보조를 받은 법인과 의료보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요보호자와 의료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의료시설을 경영하는 법인

- (4)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차관을 도입한 차관 기업체

- (5) 언론기관

- (6) 경제개발 계획의 수행에 긴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업용 시설에 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자

- (7)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합병후 존속되는 법인으로서 합병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자

다. 국민주택채권을 이미 매입하였으나 다른 이유로 다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중 높은 기준 매입액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하되 낮은 기준매입액을 먼저 매입하였을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기준매입액과의 차액을 추가하여 매입하게 한다. 다만, 해외건설공사도급허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동일사업 또는 동일복적할일 것.

- (2)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하였을 것.

- (3) 동일인 일것.

마. 서울특별시 지역에 있어서는 별지부표 제13호·제18호 내지 제21호 및 제24호 내지 제26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할 자가 해당액의 지하철 전설을 위한 서울특별시 발행 지방공채를 매입하는 때에는 해당액의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라”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업종별	면허기준
5. 교압 벽돌 제품 (교압벽돌, 교압블록) 생산업	(1) 혼합시설 1식 (2) 고압성형시설 1식 (3) 증기양생시설 (4) 기타 전설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6. 토공 제품(토공벽돌, 토공블록, 토공기) 생산업	(1) 배합 및 혼련시설 1식 (2) 성형시설 1식 (3) 기타 전설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7. 연탄재 가공 제품(연탄재 벽돌, 연탄재블록, 연탄재 기와) 생산업	(1) 분쇄시설 1식 (2) 성형시설 1식 (3) 혼합시설 1식 (4) 증기시설 1식 (5) 기타 전설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8. 스테트기와 제품생산업	(1) 배합시설 1식 (2) 성형시설 1식 (3) 압축시설 1식 (4) 건조시설 1식 (5) 기타 전설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月間協會動靜

제 5 회 이사회 개최

일 시 : 1978. 3. 8 (수) 14 : 00시
장 소 : 협회 회의실
부의안건 : 1) 실적회비 산출 기준표 조정 시행의 건
2) 월정회비 미납 회원조치의 건
3)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4) 기타사항
참 석 : 회 장 이규복
총무이사 김두섭
이 사 박성규 성효환 성일영
김규태
감 사 김종민 우달형

제 2 회 지부장회의 및 제 1 회 기획위원회개최

일 시 : 1978. 3. 24 (금) 15 : 00시
장 소 : 협회 회의실
부의안건 : 1) 1977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에 관한 건
2) 기타사항
참 석 : 회 장 이규복
총무이사 김두섭
이 사 박성규 · 정효환 · 성일영 · 김규태
감 사 김종민 · 우달형
지 부 장 김만성 · 장기수 · 김기배
이상철 · 오석균 · 박홍우
이연억 · 김정수 · 김사육
조춘원 (매리) · 김백교

제 1 회 지부장회의 개최

일 시 : 1978. 3. 11 (토) 14 : 00시
장 소 : 협회 회의실
부의안건 : 1) 협회당면문제 협의
2) 기타사항
참 석 : 회 장 이규복
총무이사 김두섭
이 사 박성규 · 정효환 · 김규태
감 사 김종민 · 우달형
지 부 장 김만성 · 장기수 · 김기배
이상철 · 오석균 · 박홍우
이연억 · 김정수 · 김사육
배윤진 · 김백교

제 3 회 편찬위원회 개최

일 시 : 1978. 3. 20 (월) 16 : 00시
장 소 : 본협 회의실
부의안건 : 1) 2月号 회지 합령 및 3月号 회지편집
계획 (안) 검토
2) 기타사항
참 석 : 위 원 상 박성규
위 원 윤도근 · 오창희 · 유경천
안기태 · 정일영 · 황일인

— 再版 — 建築計劃決定方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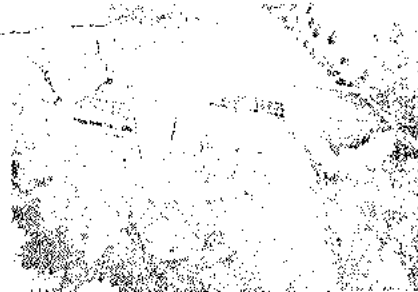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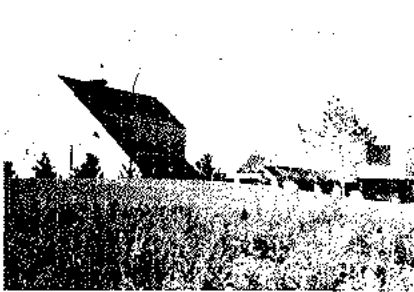
漢陽工大教授 · 王博 · 金眞一 著

이책은 建築各論의 초단계를 위한 大學生과 實務者의
나을 能力培養을 위해 엮은 것이다.

1. 計劃各論의 要点과 기타 設計情報의 連結能力
2. 創意的인 問題解決과 折衝能力
3. 決定過程에 必要한 資料의 分析能力
4. 決定過程과 선택을 위한 判斷能力
5. 計劃에서 企劃으로 참여하는 能力

普成文化社 發行 TEL. 74-4292 값 3,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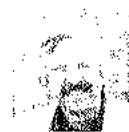
最新現代美国住宅



Norman Jaffe
놀만·자페
1932년 시카고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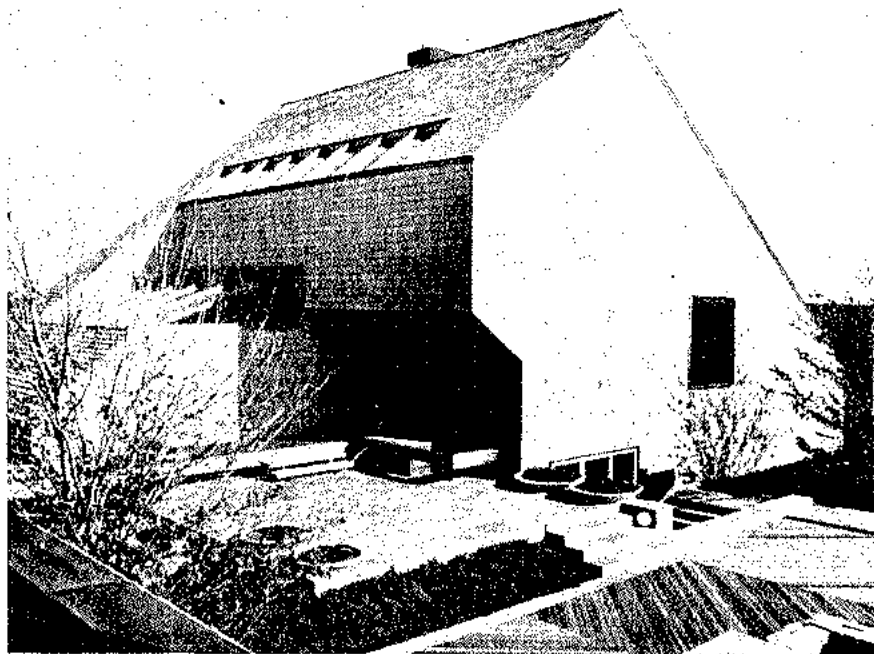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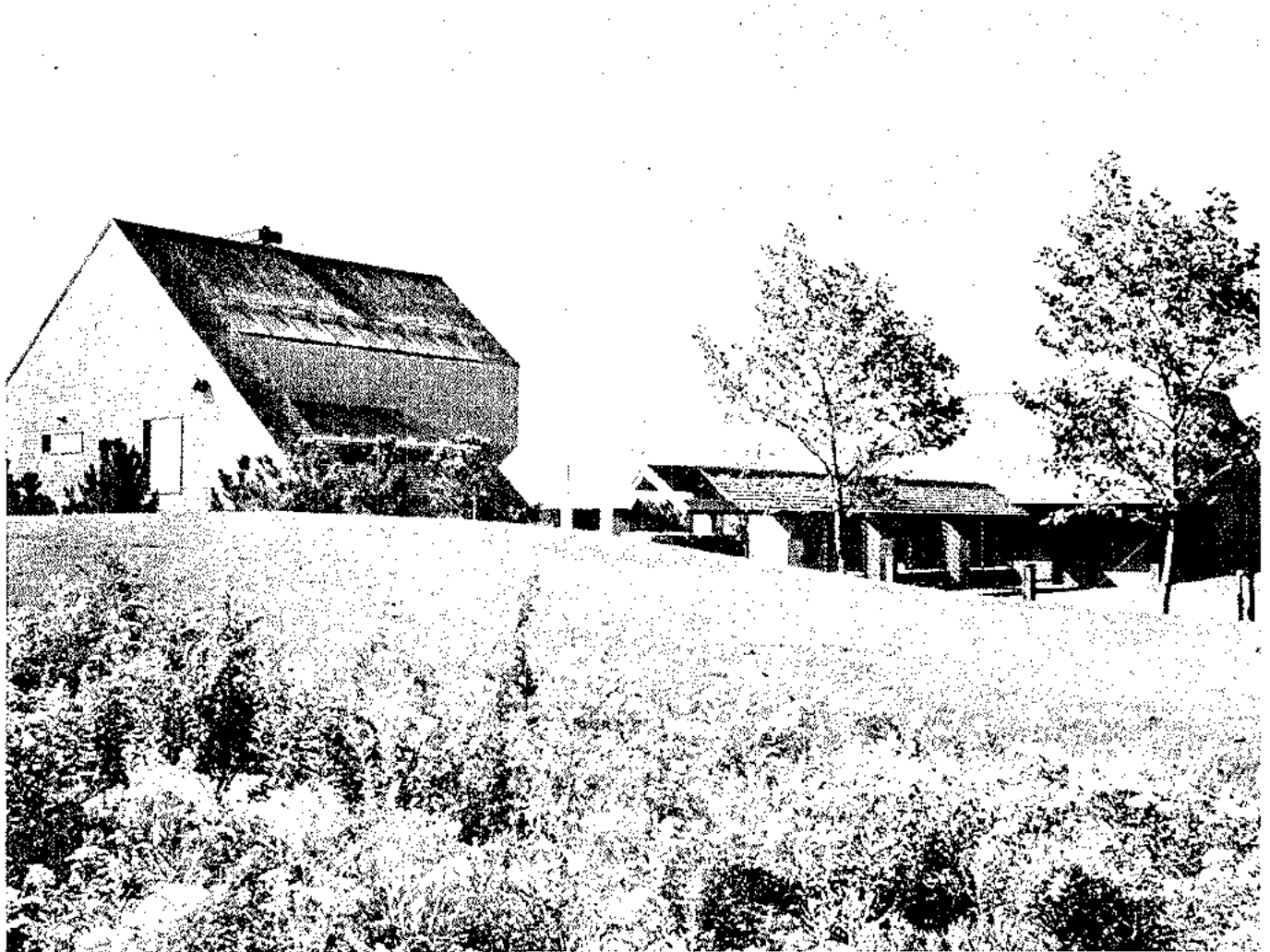
Arthur Cotton Moore
엡사·코튼 모아
1935년 워싱턴生



W. Irvings, Jr
어빙·위유프스
1936년 텍사스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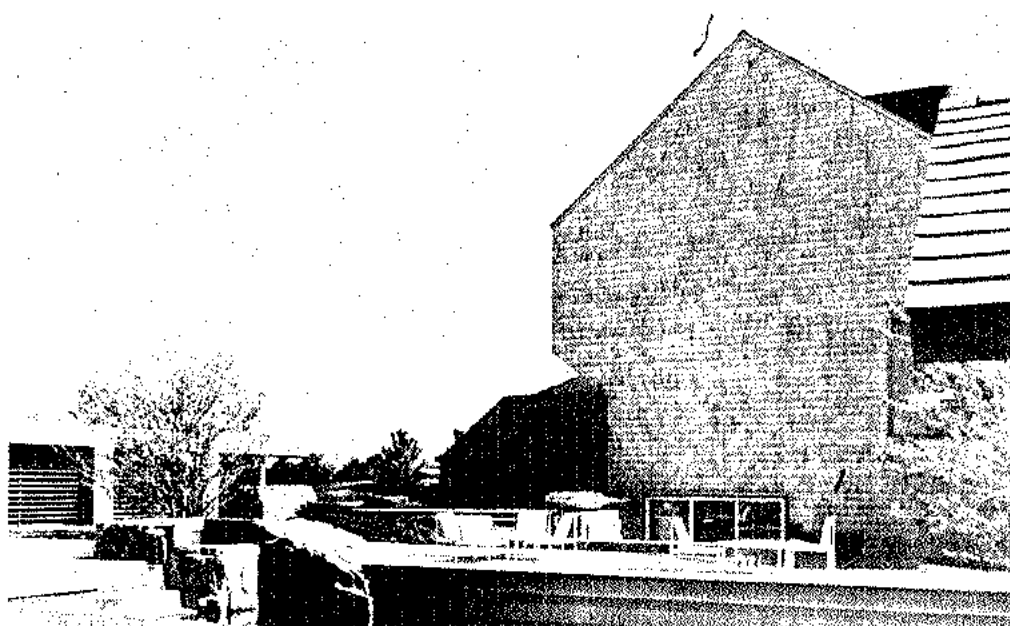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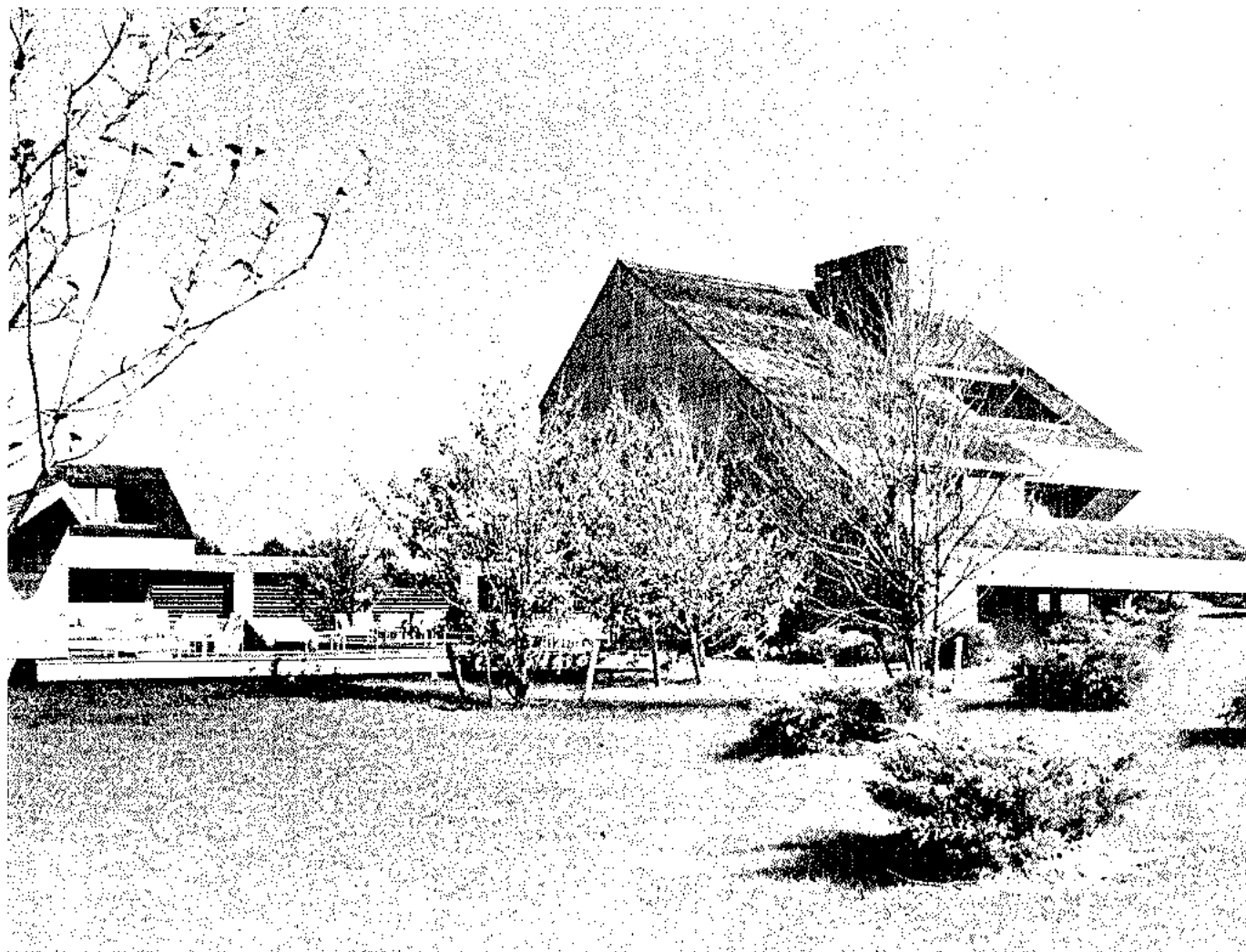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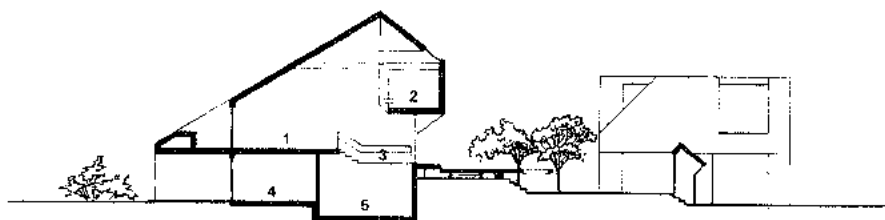
Reiss House

設計: Norman Jaf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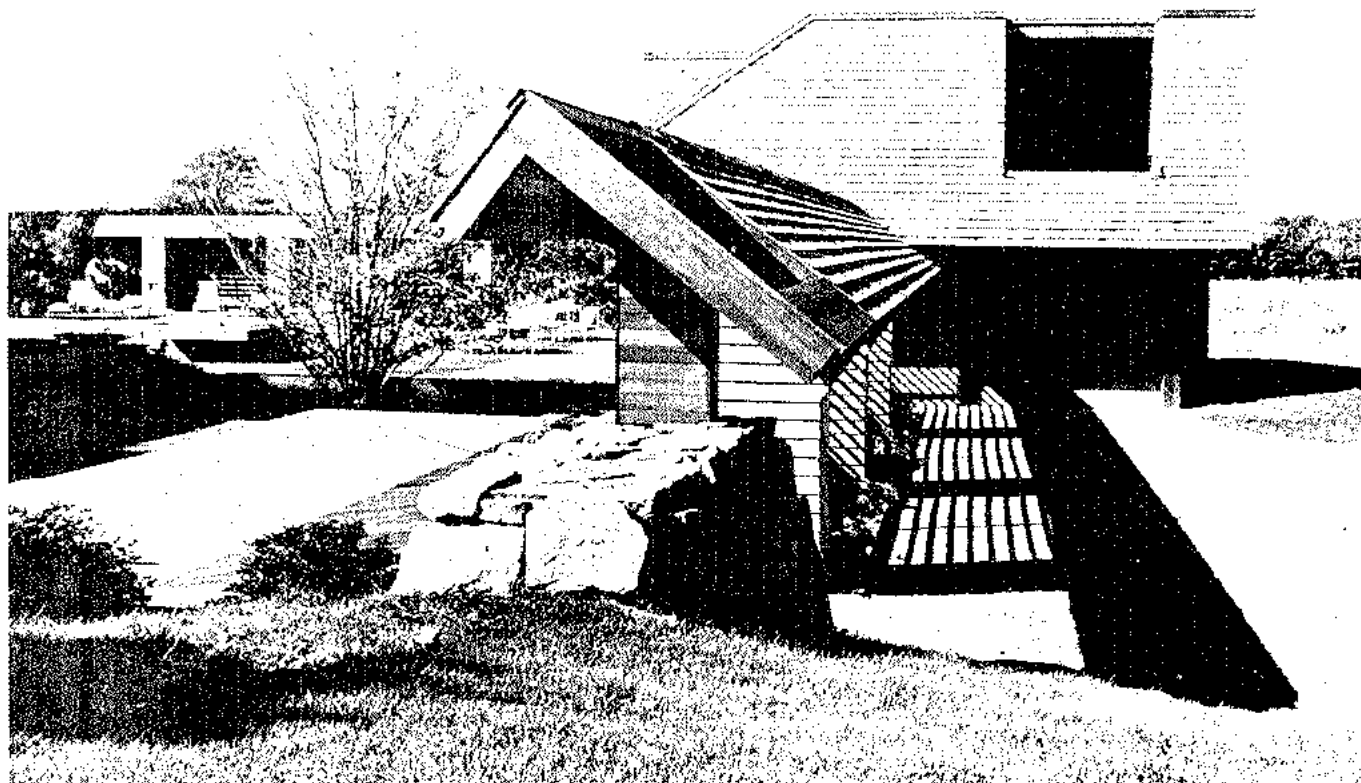


①北東에서 본다.

②가바나(샤와가있는更衣室)에서 봄



- ③ 断面図
 ④ 南西에서 본다.
 ⑤ 플루근에서본다
 1. 居室
 2. 식재
 3. 入口
 4. 寢室
 5 娛樂室



⑥敷地에로의 入口部分
⑦景觀과 풀

■ 이 住宅은 海岸에 가까운 平平한 갈자밭 한가운데 있어, 빅키나테라스, 자그마한 房하며 水平的인 構成으로 屋外의 Pool과 連結되어 있다.

全体的 建物は 펜스로 둘러져 있으나, 半만 建設된 形態와 半은 自然의 一部가 變形되어 形成되었다.

이것은 바다로부터의 微風에서 建物を 保護함과,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함이다.

計劃의 意圖는 5人家族中 多樣한 年令 구루-브이 즐길수 있는 집을 強調했다. 레벨차는 住宅을 地帶로 区分시켜 중간帶는 共同區域으로, 上層의 主寢室과 下層의 자녀들空間의 媒介가 된다. 자녀들의 空間은 地面帶이며 外部로 直接 뛰어 나 갈 수 있도록 되어있고, 兩親의 空間은 最大의 프라이버시가 주어졌다.

이 住宅의 形은 롱 아일랜드에서 볼 수 있는 農家에 由來, 현 單純하고 機能的 이다.



커다란 지붕面은 地面까지 뻗어있다. 構造는 木造후레임으로, 外部는 杉木材로 처리하고 있다.

内部壁이나 天井, 棚 등은 赤松으로 되어있다.

바닥은 테라코타·타일 또는 Douglas fir를 사용 넓은 유리面은 거의 南面시키고 있다.

⑧入口에의 進入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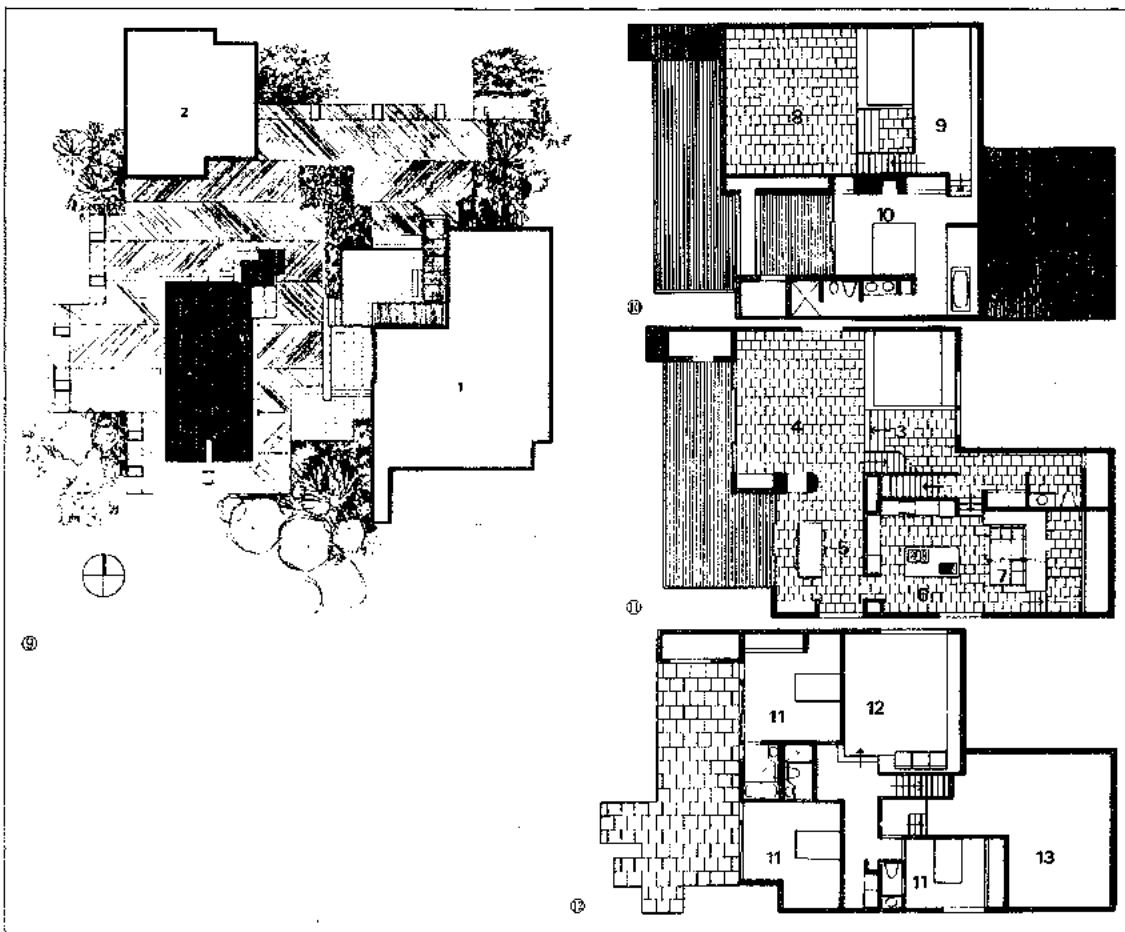
⑨配置圖

⑩上層平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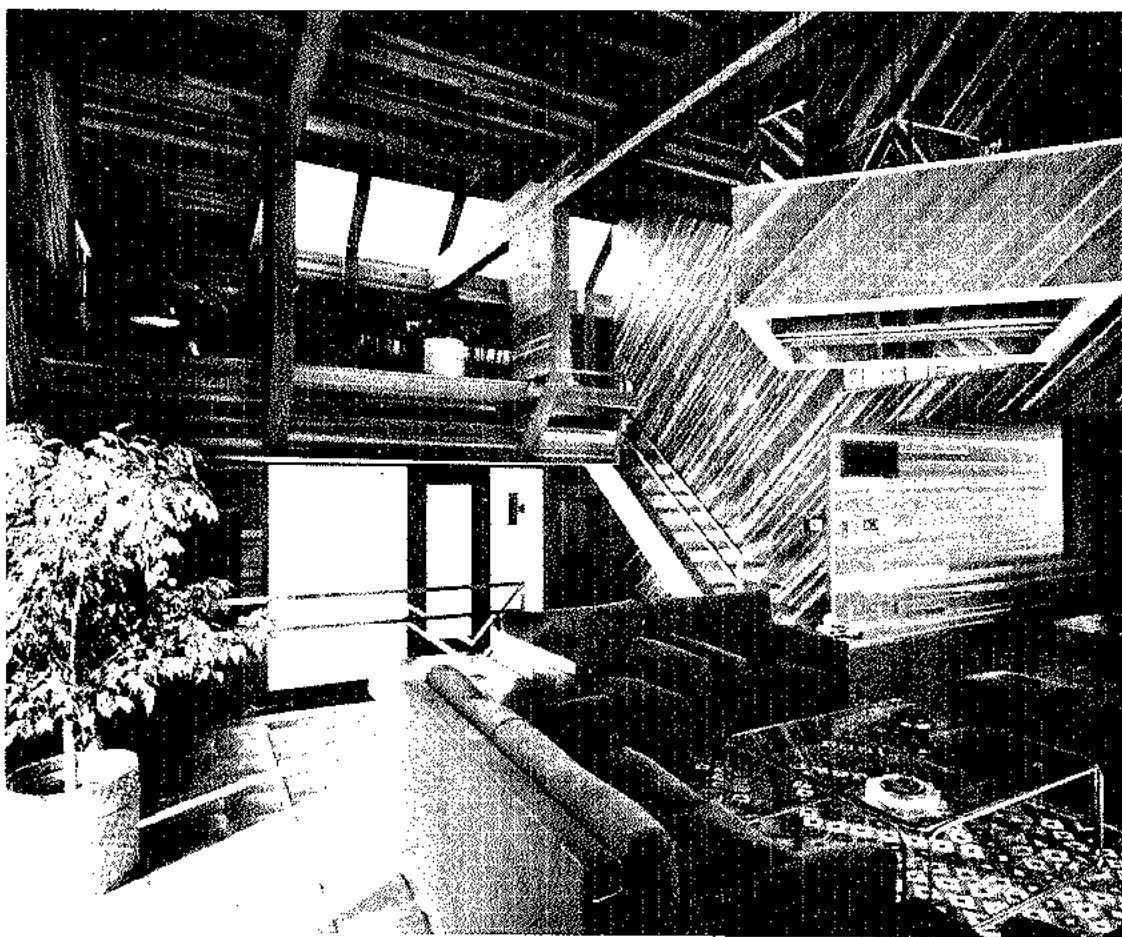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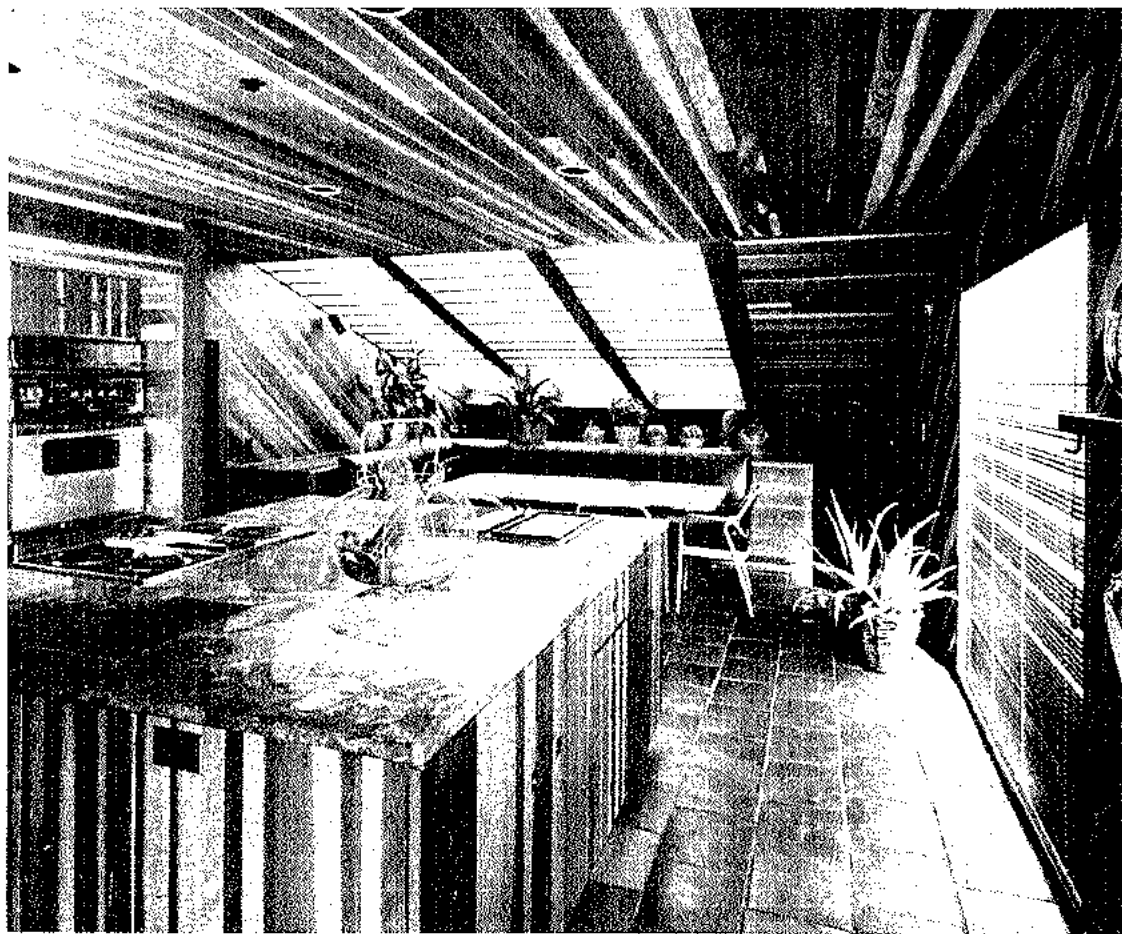
⑪主要層平面圖

⑫下層平面圖

1. 主居
2. 가나바
3. 玄關
4. 居室
5. 食堂
6. 부엌
7. 上部스카이라이트
8. 居室吹振
9. 서재
10. 主寢室
11. 寢室
12. 娛樂室
13. 창고



13. 부엌, 스카이라이트에
의한 採光
⑬ 居室



Weekend Retreat (週末住宅)

設計 : Norman Jaffe

(노만·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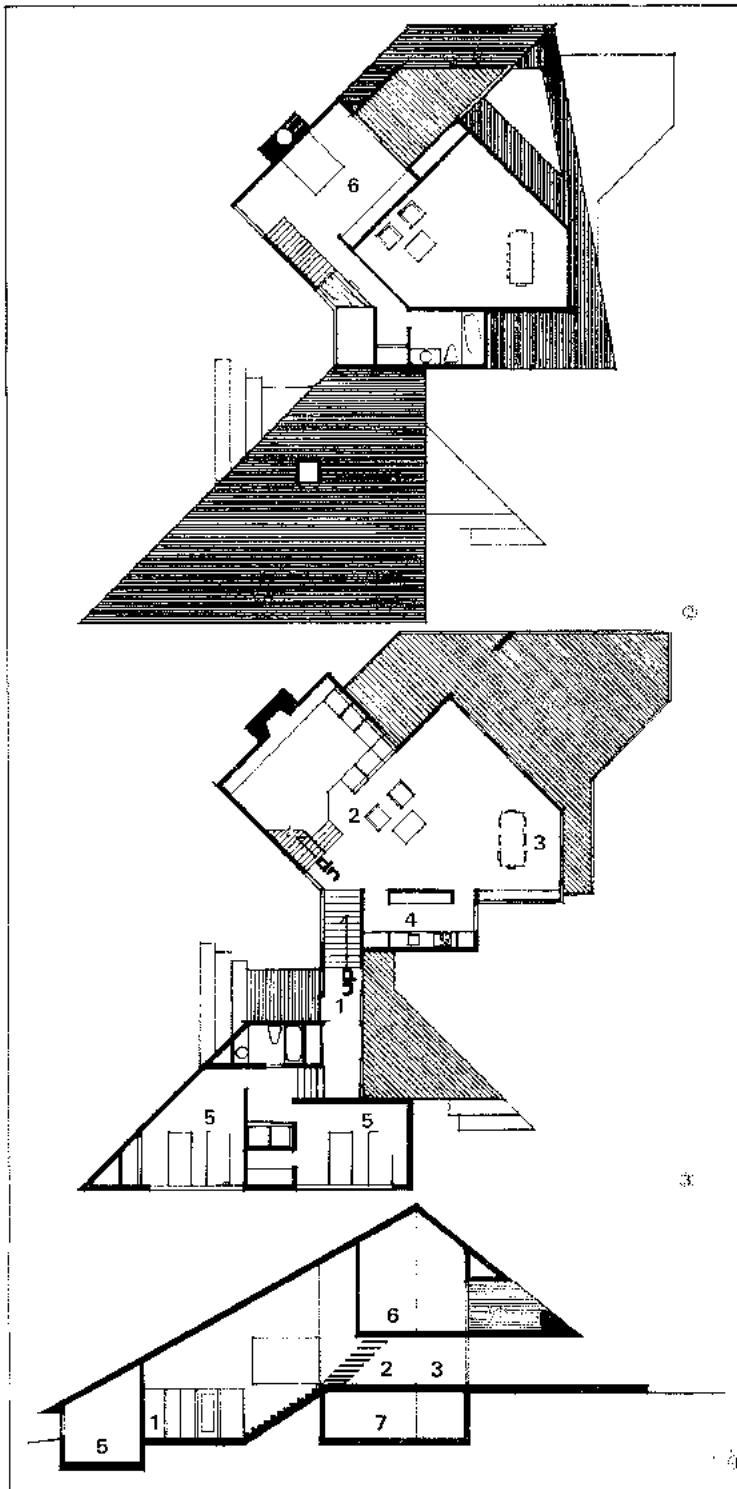
位置 : Eastern Long Island

New York, U.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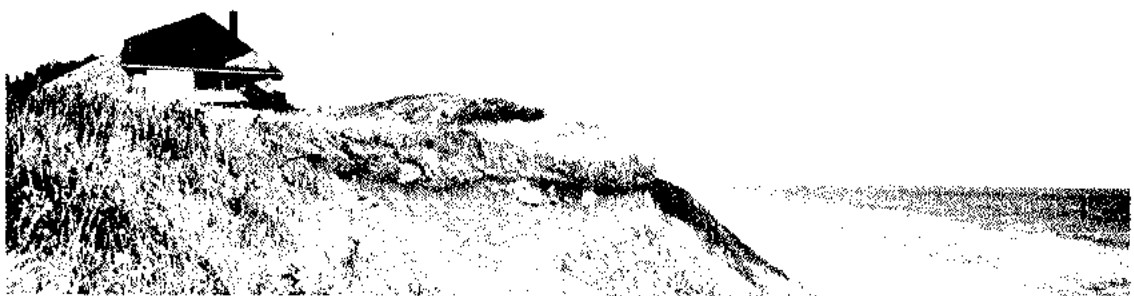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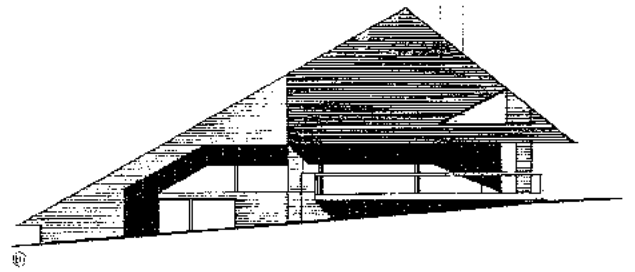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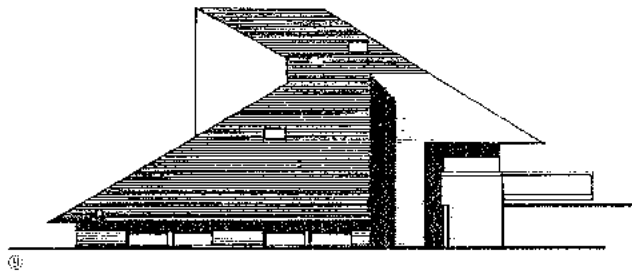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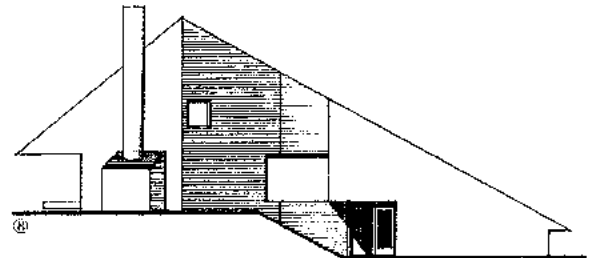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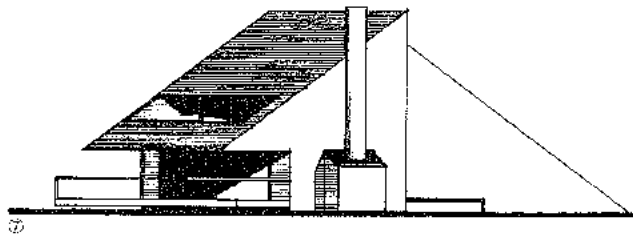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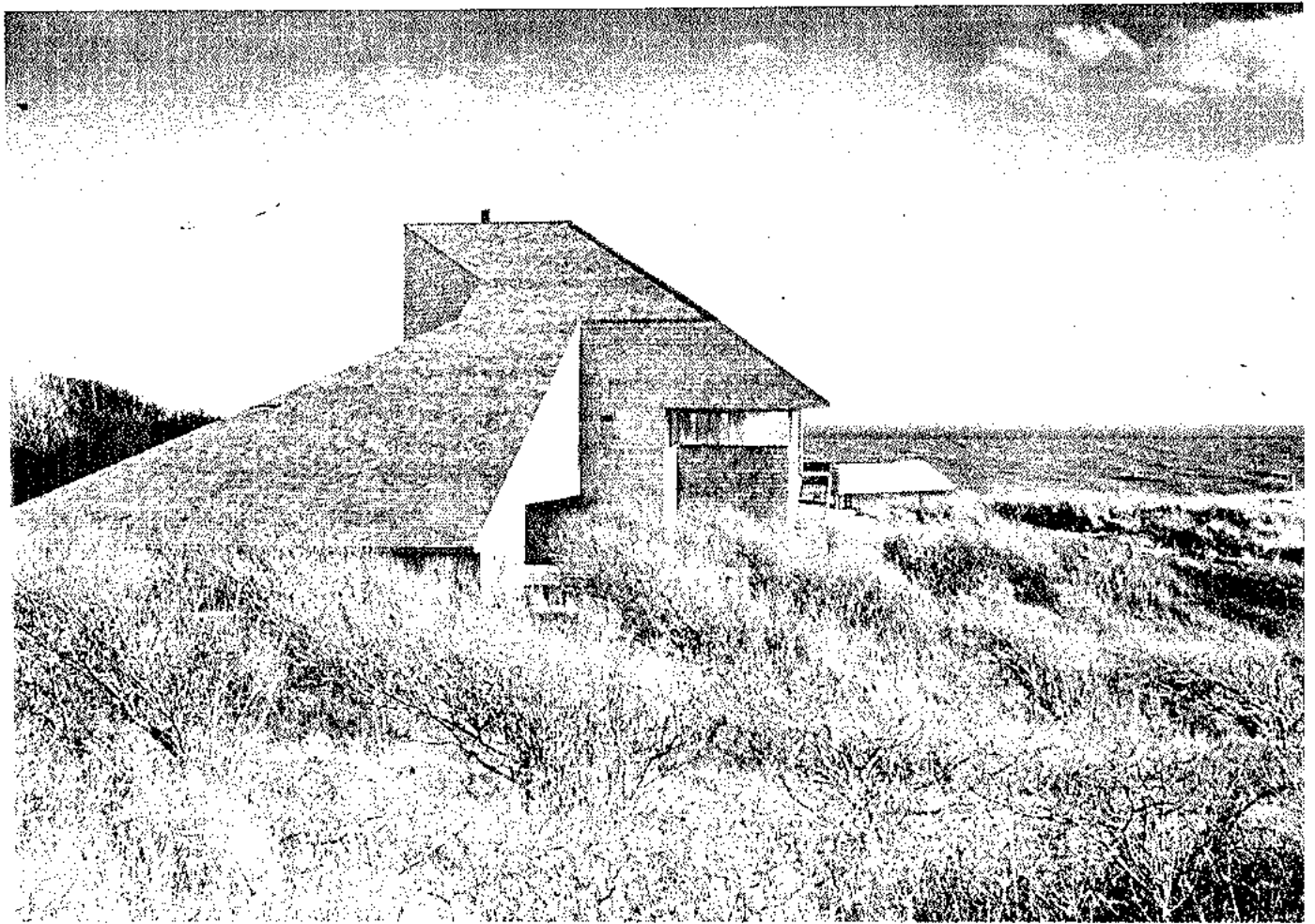
①西側上空에서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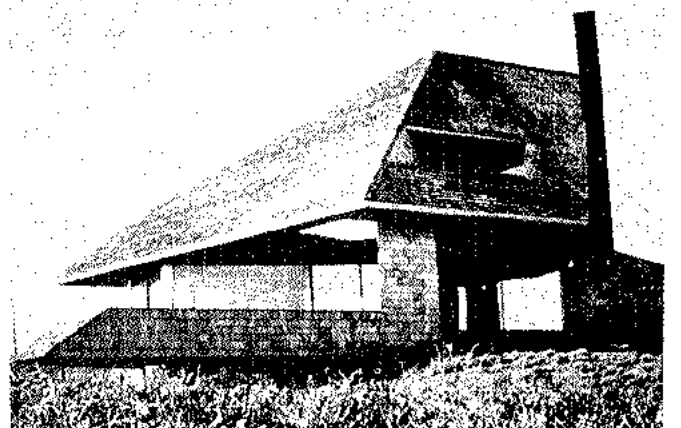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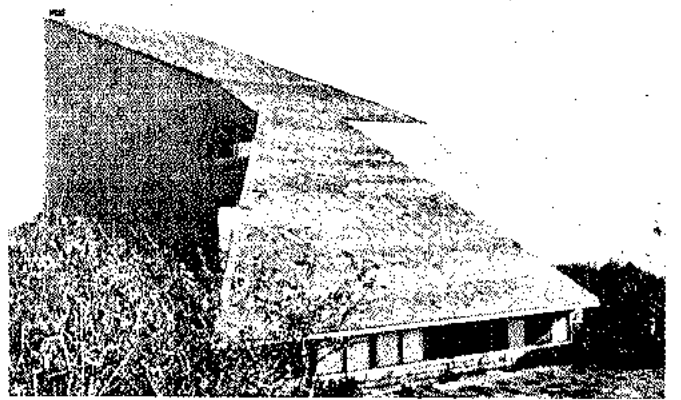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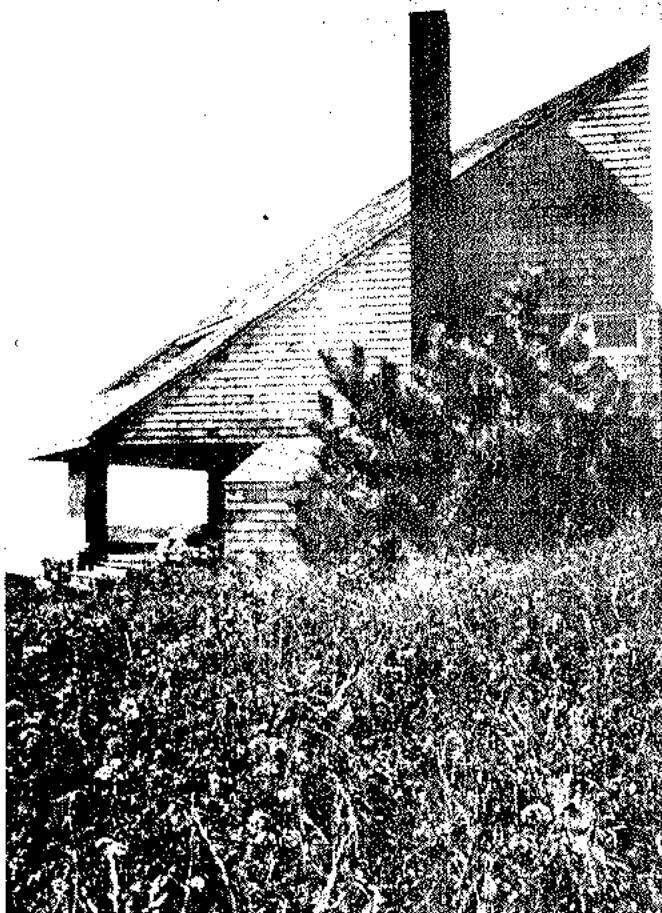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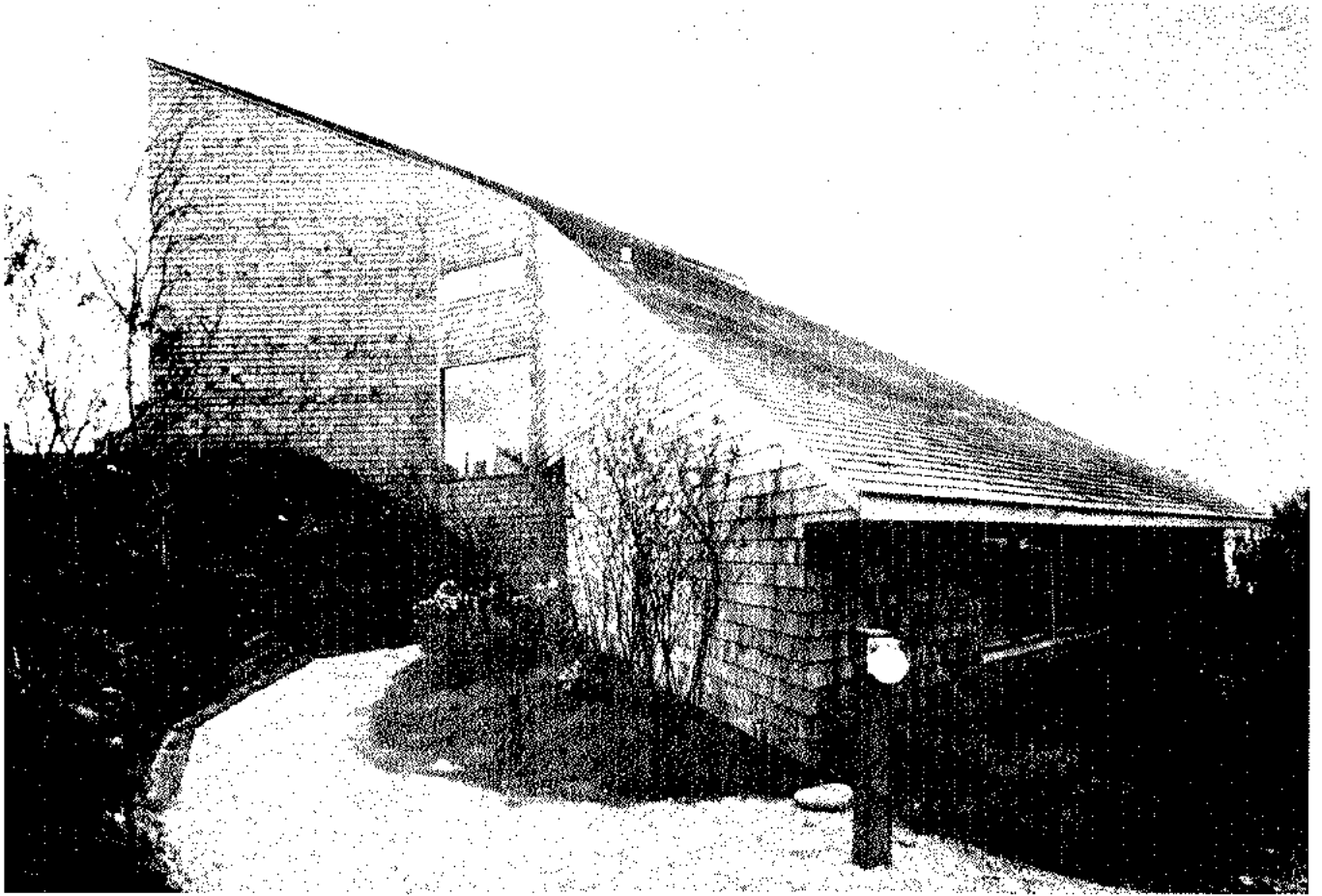
- ②上層平面圖
- ③下層平面圖
- ④斷面圖
- ⑤①周辺狀況
- ⑥北面에 서쪽
- ⑦南東側立面圖
- ⑧北東側立面圖
- ⑨北西側立面圖
- ⑩南西側立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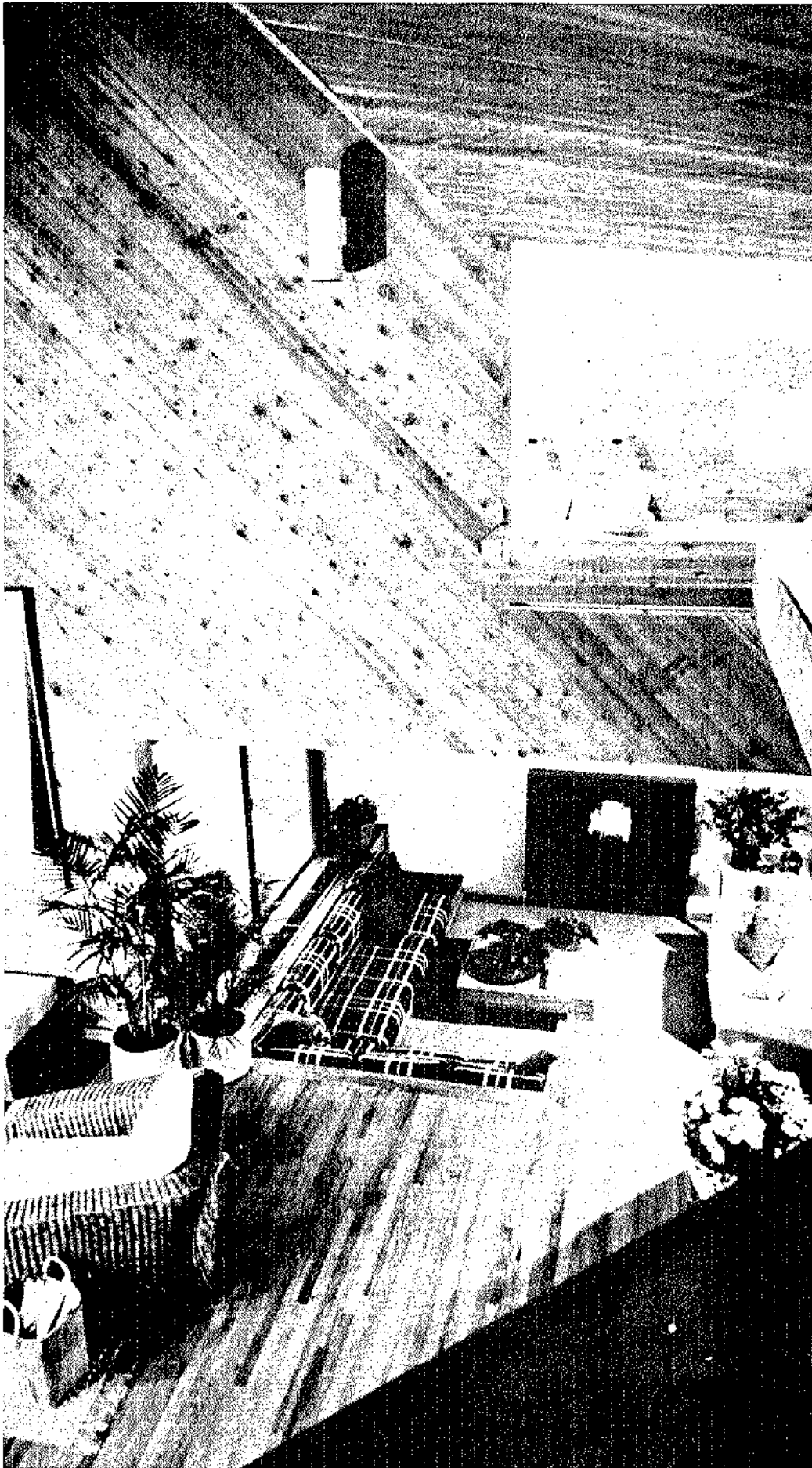


■ 敷地는 外洋을 面하고, 가파른 마루에 있다. 이 週末住宅의 設計意圖는, 敷地나 그 景觀과 強한 對照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들의 要素로의 對決과 同時에 保護되어야 할 側面이 있었다. 즉, 근처에 있는 植物들은 浸食되지 않게 되도록 保存되어졌다. 지붕面은 不規則한 間隔으로 추녀까지 뻗어있다. 추녀가 나와 있는 경우, 開口部에 까지 達한다. 入口는 가장 中間帶로서, 主要한 居室 域의 階段에 나비가 걸려 있다. 主寢室은 추녀저붕部分에 있어 바닥은 그 밑의 음악실 空間을 構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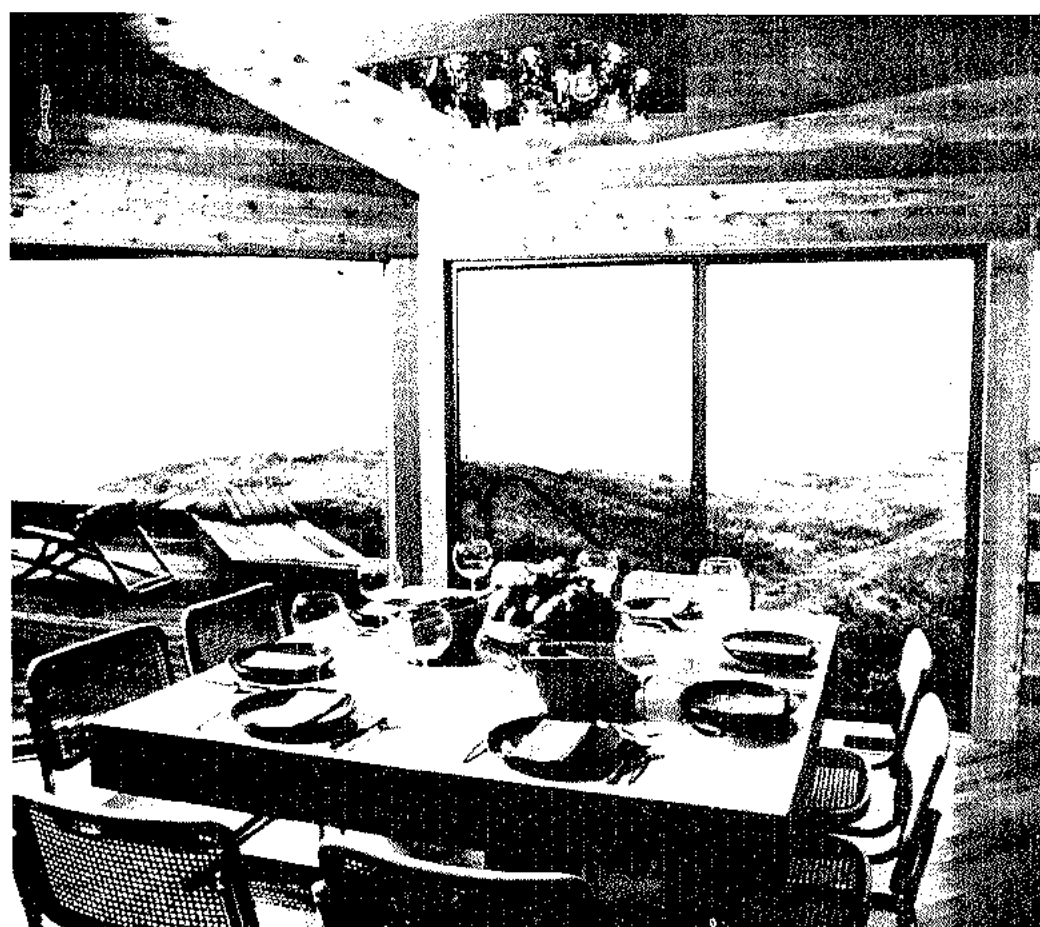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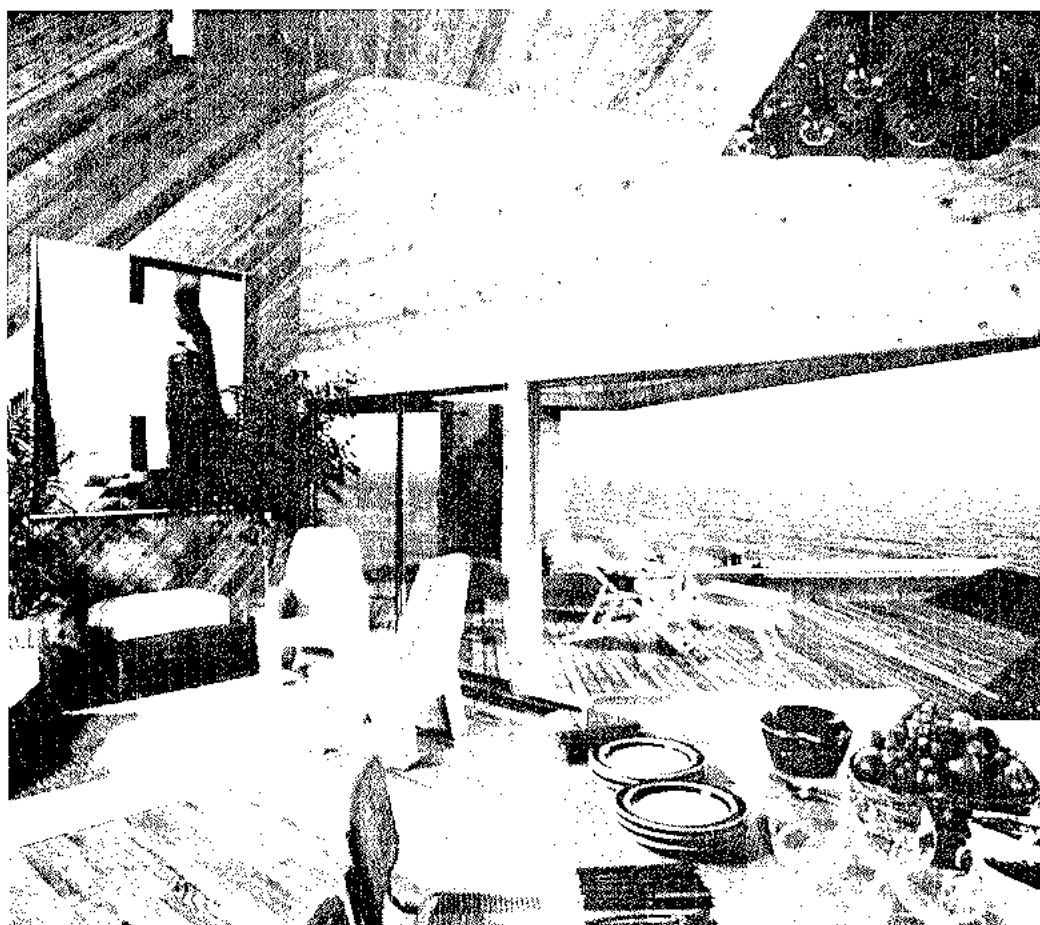






- ⑫아프로치에서볼
- ⑬南東側外觀
- ⑭北側外觀
- ⑮발코니側
- ⑯上層에서 居室을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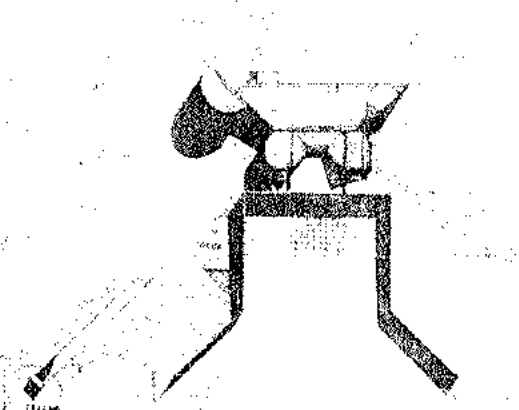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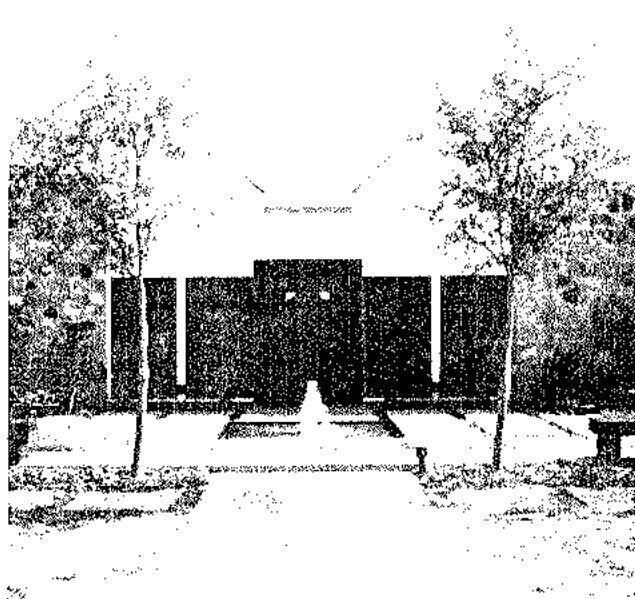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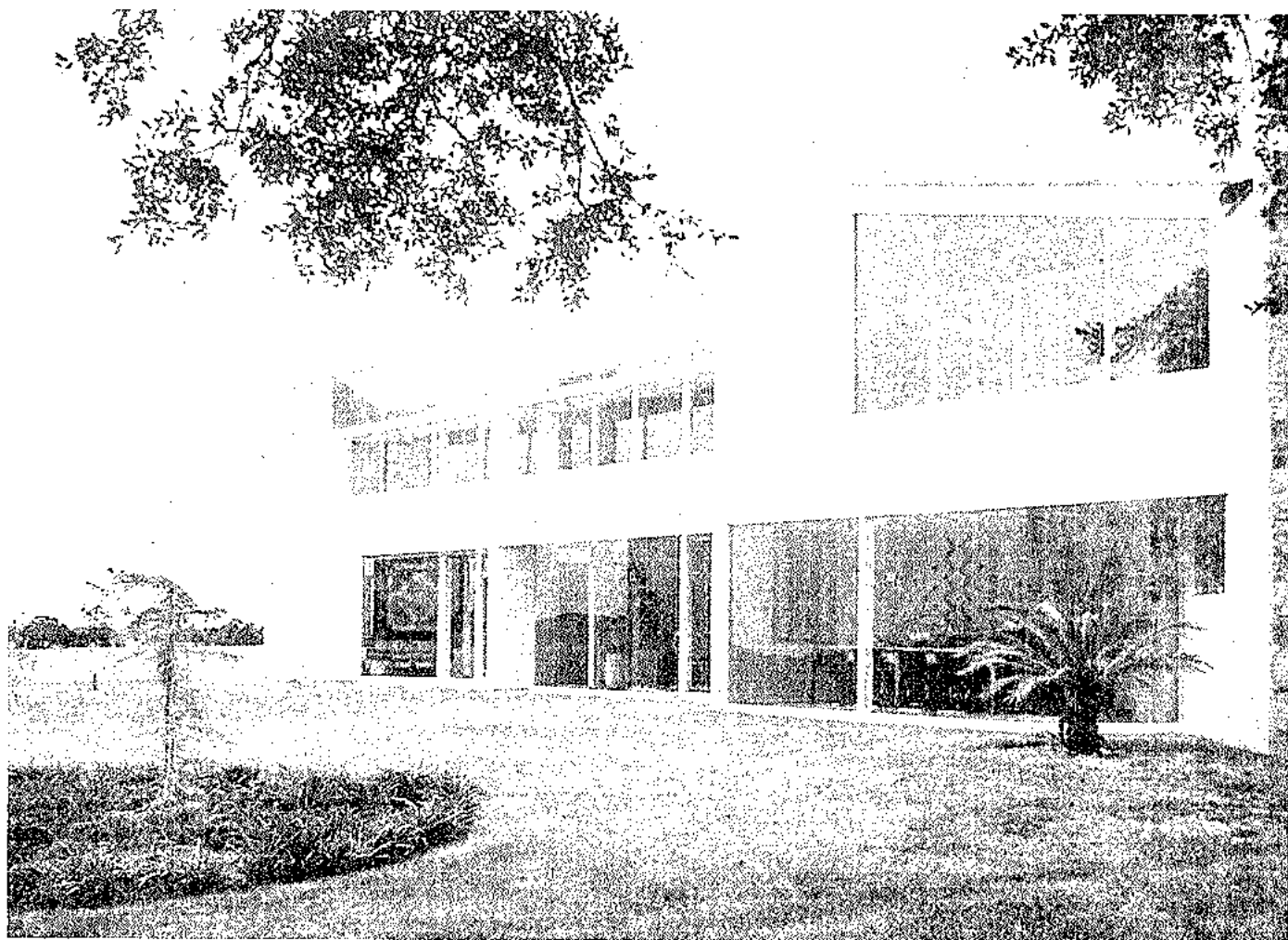
①⑧居室과 食堂은 바다에 面하여
視界가 넓직하게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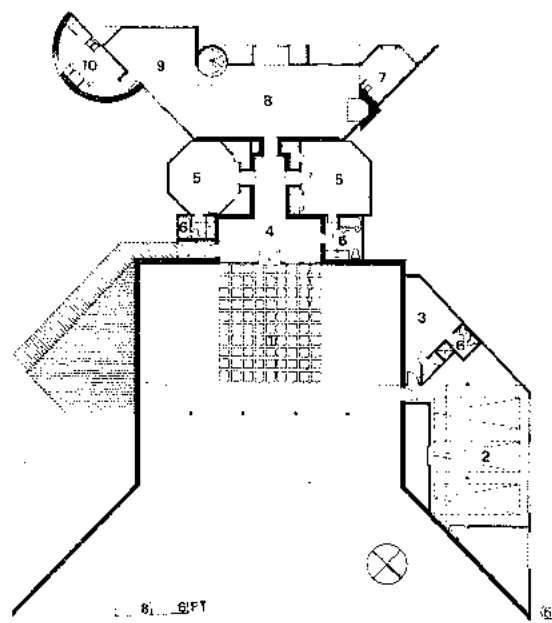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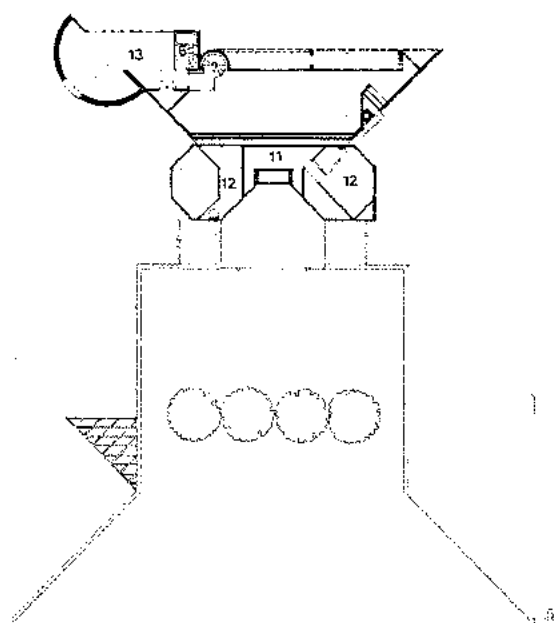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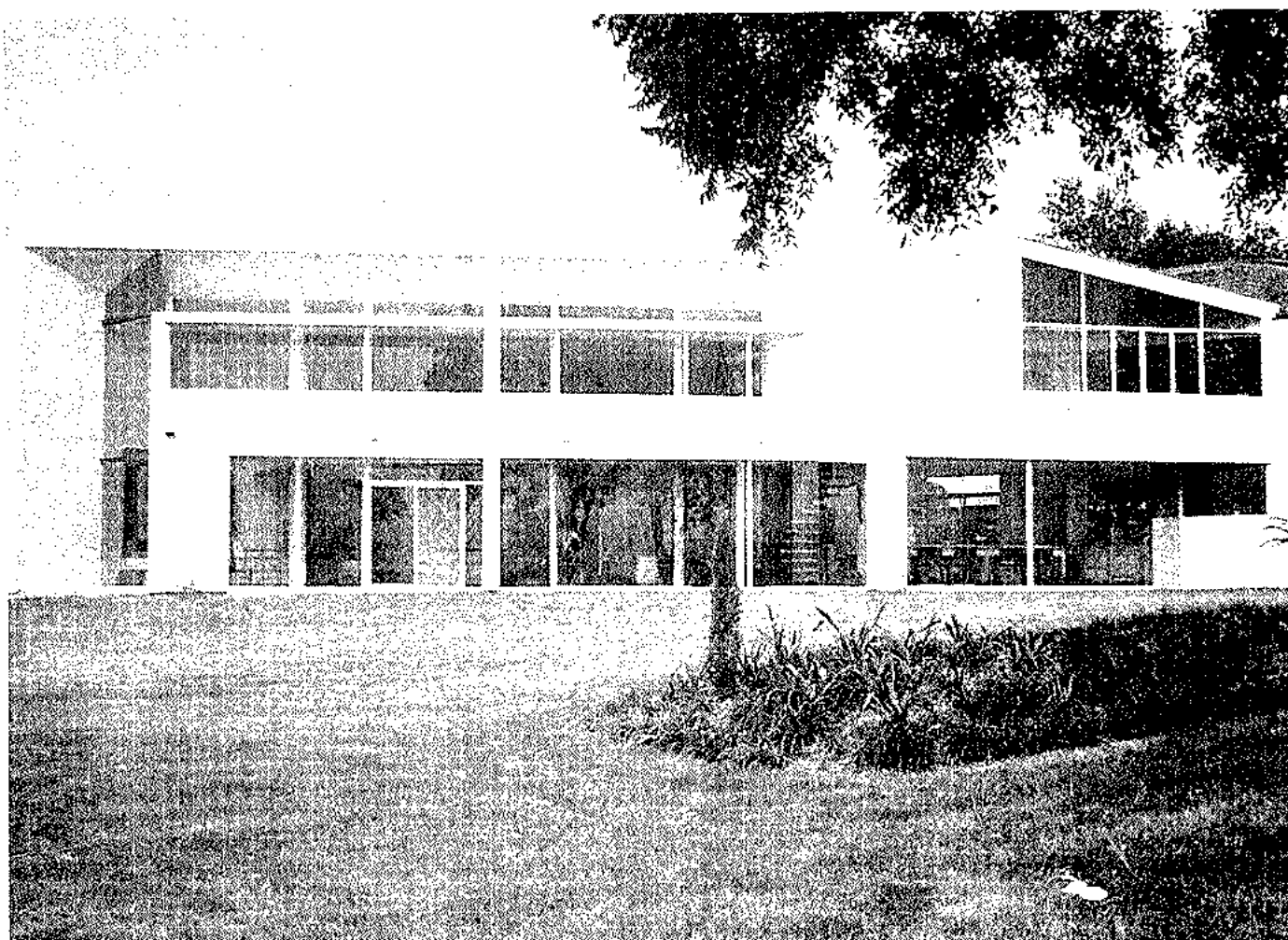
McCormick Country Ho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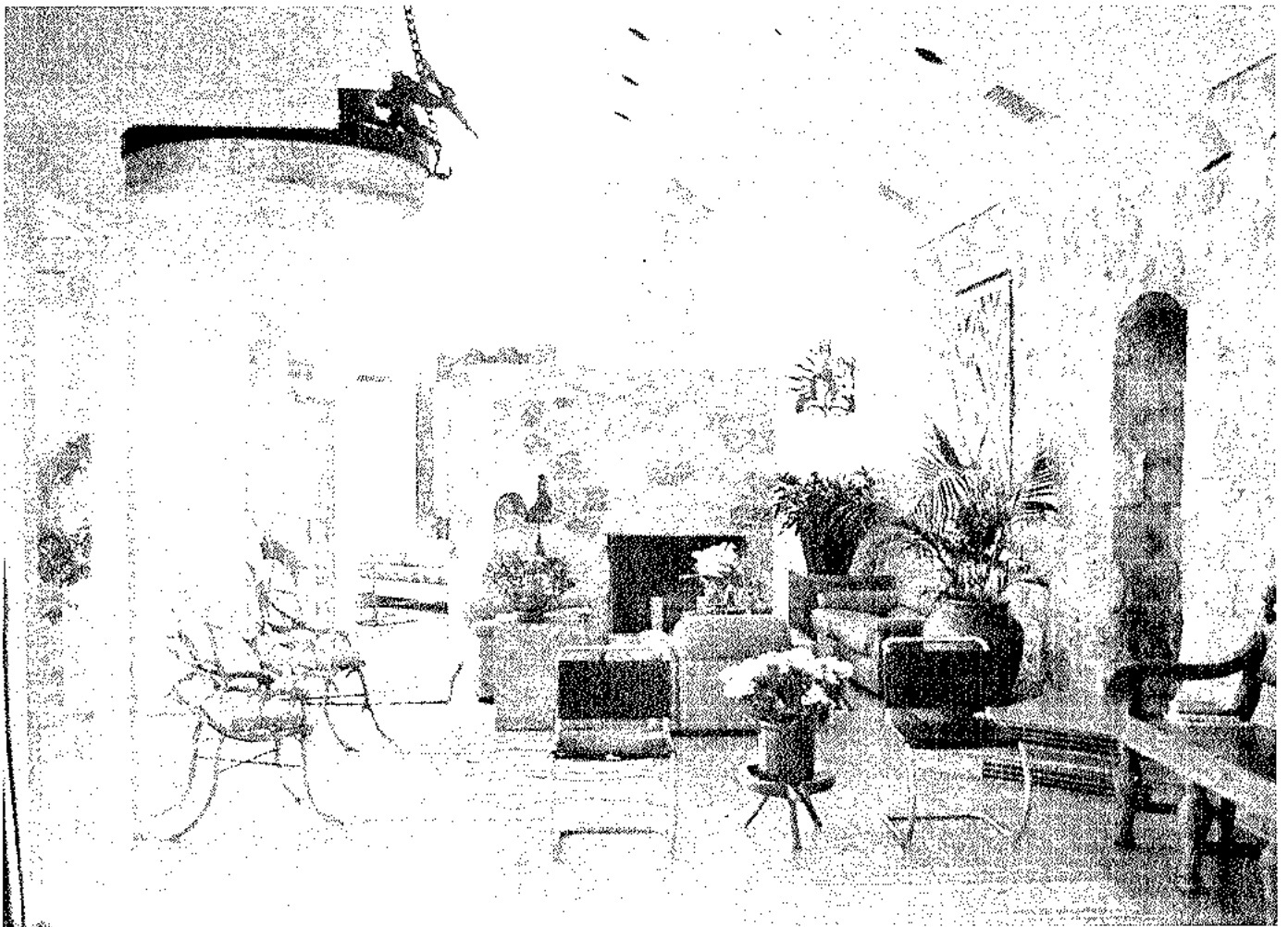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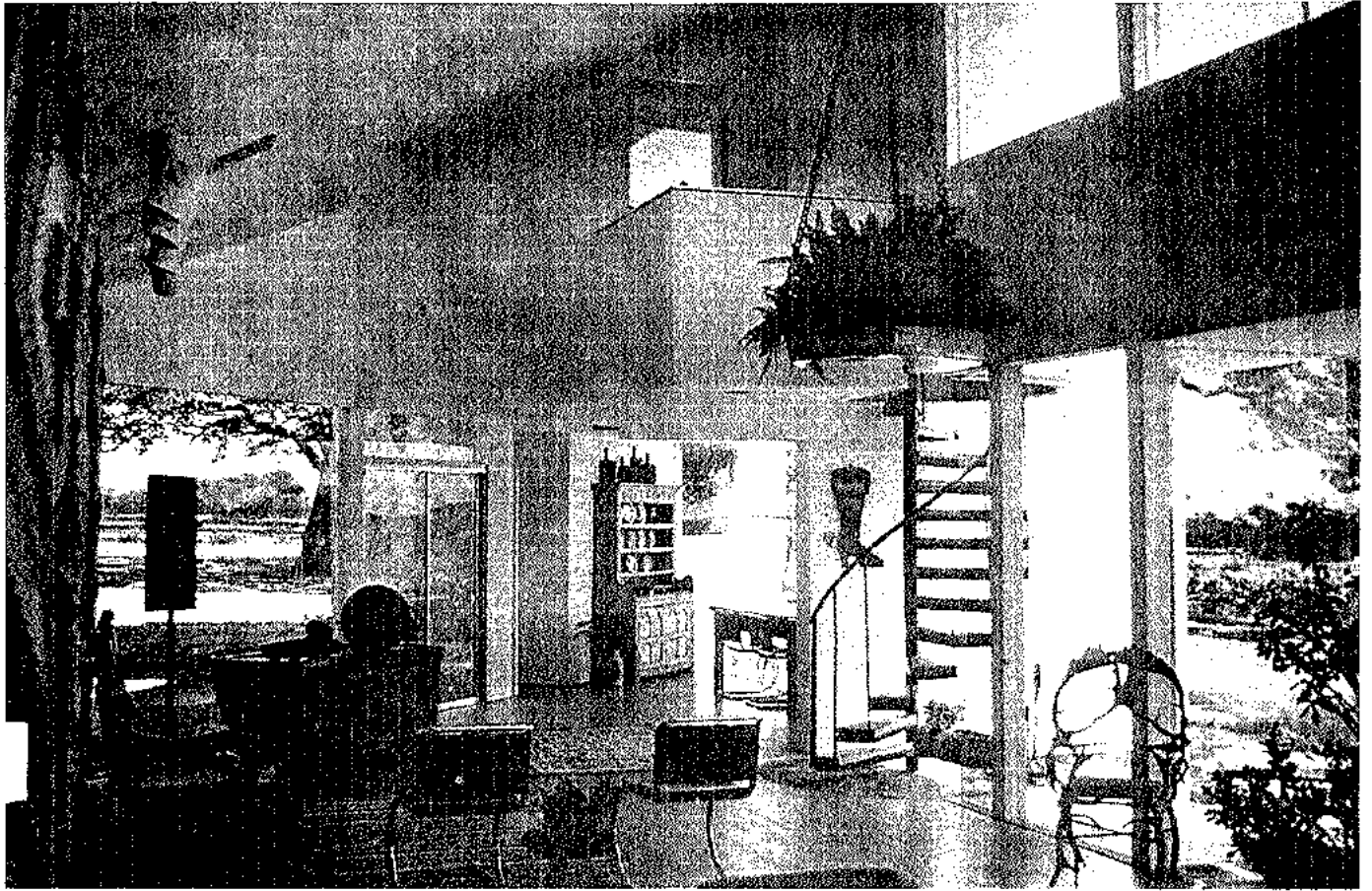
設計：W. Irving Philips (W. 아빙 · 필립스)

位置：Central Texas Countryside, U. S. A



- | | | |
|----------|--------|---------|
| ①西側外觀 | ⑥1層平面圖 | 3. 사용인실 |
| ②配置圖 | 10-부엌 | 2-차고 |
| ③玄關部分을 분 | 9-식당 | 1-아파트-치 |
| ④北西側外觀 | 8-거실 | ⑦⑧精室 |
| ⑤2層平面圖 | 7-서재 | |
| 13-主寢室 | 6-욕실 | |
| 12. 다락방 | 5-어린이방 | |
| 11. 機械室 | 4-현관홀 | |





■ 要求事項

人口 홀, 리빙, 다이닝의 各 空間, 부엌, 서재, 침실 2 (욕실있는) 主침실 (욕실있는), 수납, 家政婦방과 車庫.

■ 計劃과 디자인方法에 대해서

S. 매코믹家的 住宅設計의 依頼는 좋은 機會였으나, 藝術에 對한 建築主의 感性과 評價가 設計者에게, 그의 思考를 革新的으로 表現하는 建築의 作品으로서 創造하는 時間과 責務를 주었다고 본다.

이 依頼는 매코믹家的 一連의 事業中 네 번째인 것이었다. 評論家와 建築家는 住宅을 만들어 내는 經驗을 얻어, 藝術自然이 언제든지 즐거운 記憶을 불러 일으킨다.

敷地는 注意깊게 選擇되며, 불결치는듯한 田園의 背景, 아름다운 숲, 두 湖水, 復元되어진 통나무집과 멋있는 테라스의 하늘이 물들어 있다.

우리들은 이 디자인도입에 있어 마구리트(Magritte)精神이 깃든 農村風의 “고라쥬”라고 별명을 붙였다.

現存하는 田園의 環境은 建築의 要素로서 포함되어지는 一連의 그림(繪畵)로서 取

扱되었다.

形態는 家具가 골라진것과 같이 撰擧되었다.

收集家의 人生에 있어서 생각하는 것이나, 즐거움을 생각하게 하는 收集品이었다.

이들 部分을 모아, 關連시켜, 建築의 作品으로 하는 手段은 純粹한 “고라쥬”이었다.

뒤뜰어져 있는 空間的 現實을 秩序化해서, 新鮮하고 새로운 方法으로 表現하는 일에 注意를 다했다.

그 目的은 原形의 것을 幻想으로서 보이도록 하고, 空間的 幻想을 原形으로 보이도록 하는 것이었다.

“고라쥬”는 많은 部分에서 이루어져 있어, 그 보이는 側面은 과벽한자의 現代, 한편 다른면은 한층 傳統의인 스타일을 생각키워, 고딕風, 테라스의 農家의 部分, 英國風의 庭園 등이 準備되어

있다.

이 住宅에 가까와질수록, 人口의 廣場에 빨려들어가듯한 塼壁에 의해 만들어진 기분 좋은 外部空間에 흘러버린다.

이 庭園을 통해 걸어 들어가며 얻어지는 體驗이 一連의 空間에 있어, 空間의 變化 壁에 둘러워진 空間은 現實의으로, 또한 非現實의인 場面の 連續이 된다. 디자인은 이 두 要素를 空間的인 물에 對置시켜 三次元의 몽타쥬가 된다. 内部와 外部의 空間은 融合해서 幻想과 꿈의 世界를 만든다.

量的인 것이 무게가 상실된것 같이 보여, 構造的인 論理까지도 無視, 아름다운 田園의 風景속에 休息하고 있는것 같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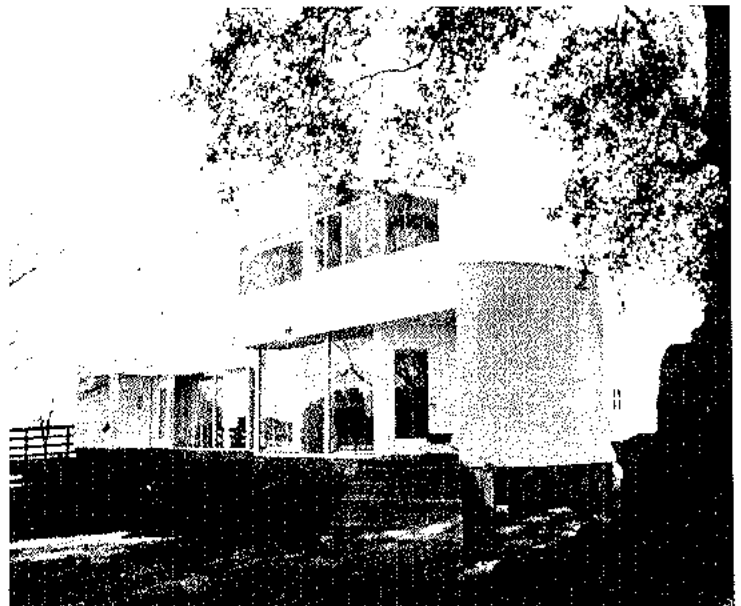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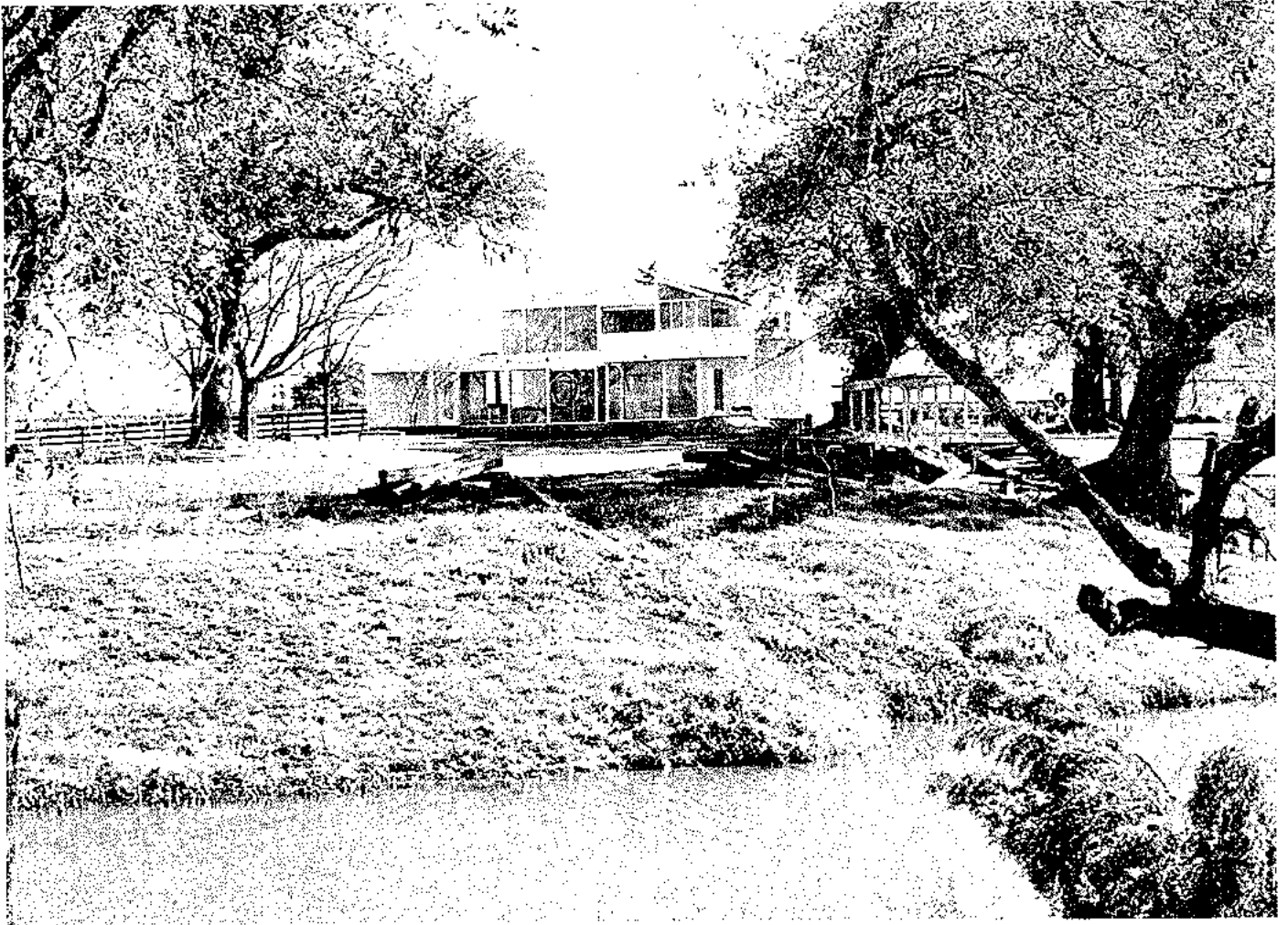
⑨식당
⑩主인침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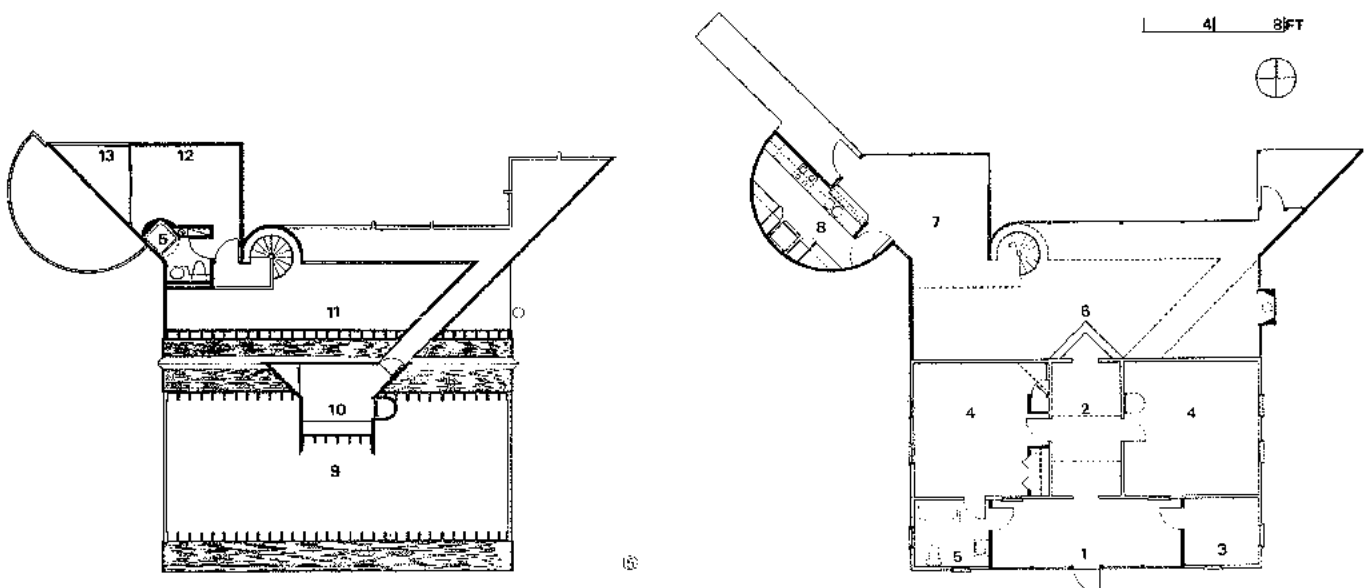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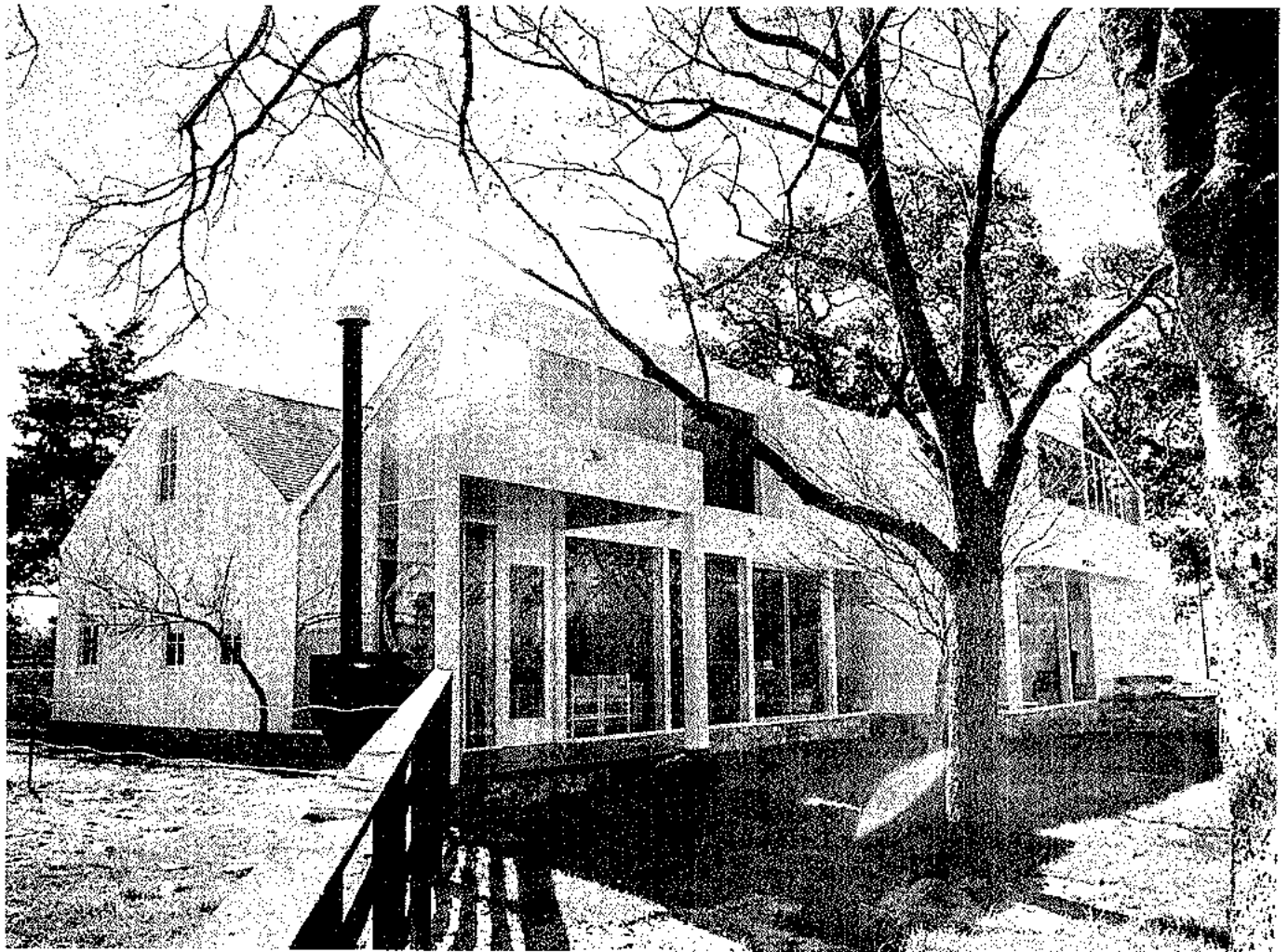
McCormick Country House 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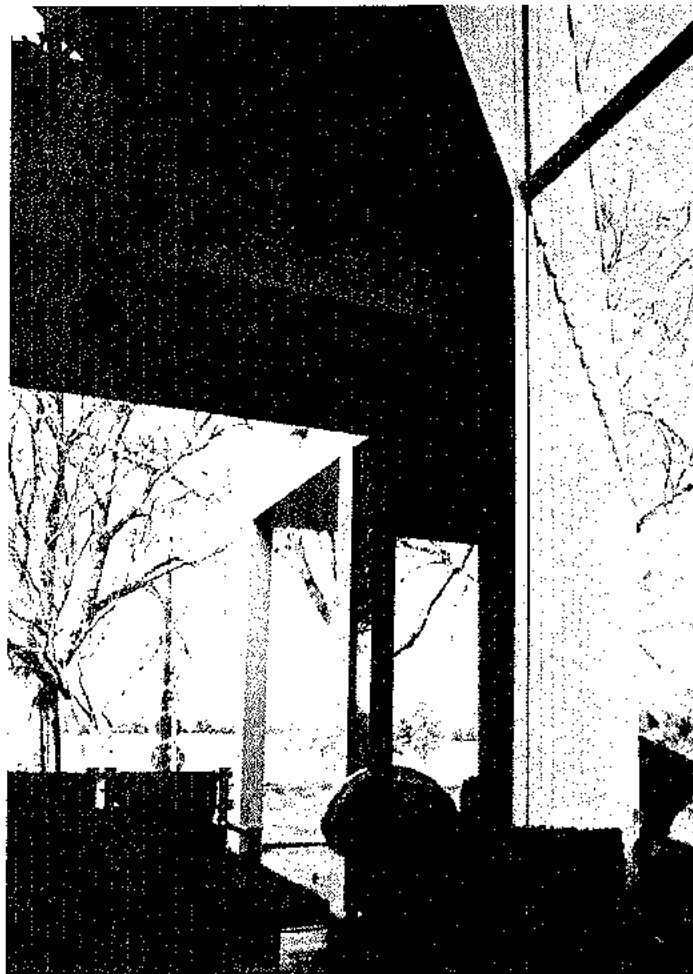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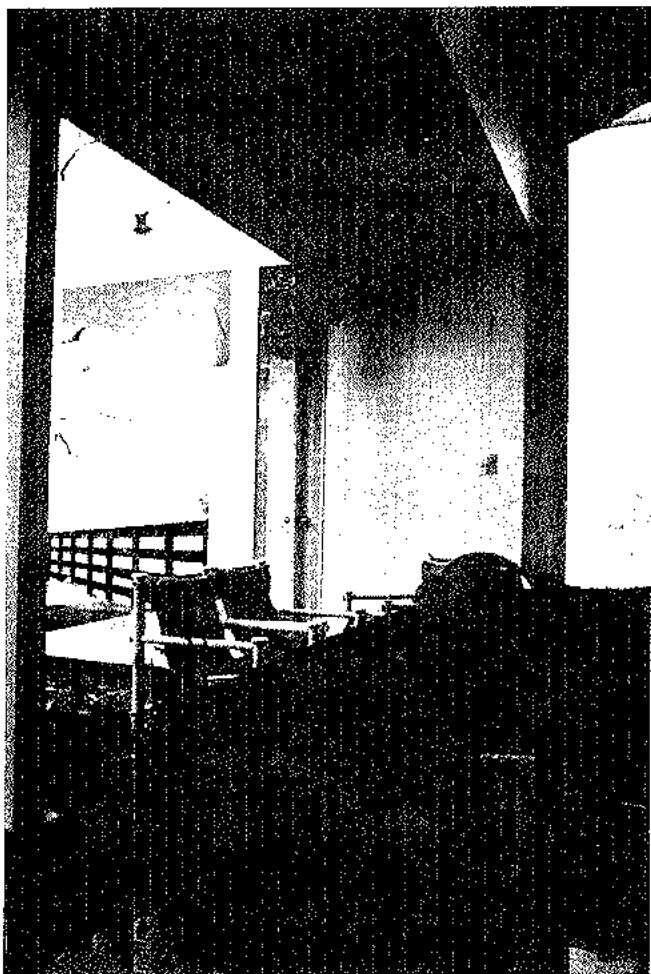
設計：W. Irving Philips

位置：Central Texas U. S. A



- | | | |
|---------|---------|-----------|
| ①北側外觀 | 11-居室上部 | 5-욕실 |
| ②配置圖 | 10-선룸 | 4-어린이방 |
| ③北西에서 봄 | 9-다락방 | 3-식모방 |
| ④北東面 | ⑥1층평면도 | 2-홀 |
| ⑤2층평면도 | 8-부엌 | 1-포-치 |
| 13-발코니 | 7-식당 | ⑦⑧⑨居室을 본다 |
| 12-침실 | 6-거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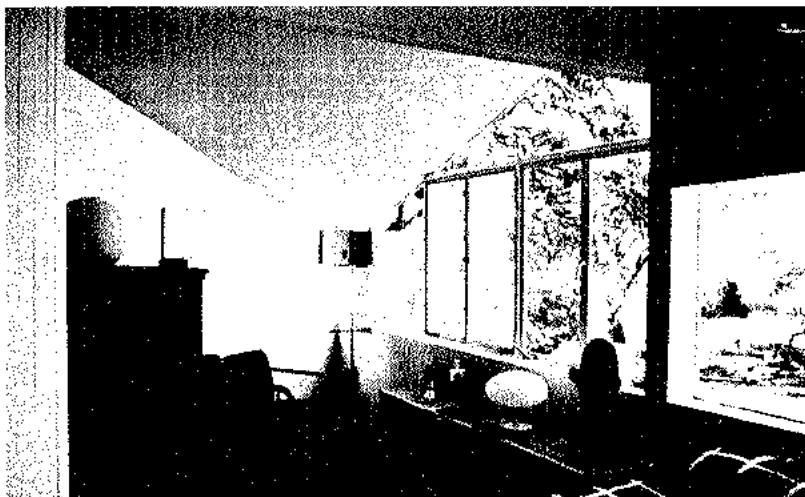


⑩ 2층主人침실
⑪ 居室을본다.

■ 이 農家는 오래 됐다. 커다란 檜木 숲 속에 있어, 두 河川이 접치는 곳에 位置하고 있다. 進入은 높은 位置에 있는 農路에서, 아래쪽에 있는 이 집을 向한다.
30마일에 달하는 울퉁불퉁한 사골風景이 내려다 보인다.
이 住宅을 디자인하는데 있어, 우선 이 古家(24ft×60ft의 矩形)의 單純한 模樣을 半만 増築해, 그 特徵을 表現한 現代의인 型을 形成, 同時에 現代의인 形體를 表現 二重性을 創出하려 하였다.
열棟은 나비지방을 서로 엮매어, 主從

의 役割을 주었다.
두개의 型體가 共通部分을 갖는다는 二重性인 것이다.
새로운 것과 묵은것의 統合은 이와같은 結果를 낳는다.
最初부터, 디자인의 內容은 觀에박은 듯한 精神으로, 놀라운(경악)의 要素, 變形된 透視, 內部와 外部의 空間相互 영향에르는 內部와 外部의 空間이 區別되지 않는 程度였다.
이住宅은 새로운形으로, 흥미와 도전과 낭비感을 만들기위해 意圖的으로 透視를 살짝 歪曲하고 있다.

外觀을 어느視点에서 보려는 立体的인 表現으로 되어 있다.
斜線(45°)의 利用, 지붕의 구배, 表面의 相互關連은 보편적인 인상을 提示하는데 汗뻘을한다.
같은 생각으로, 저 불에 박은듯한 手法이 이 住宅에서도 쓰여져, 歷史的인型의 몇개의 形體를 統合시켜, 같은 立体的 手法이 空間的인 位置와 時間을 구부려 믹스시켜 不協和함과 複合性을 만들어낸다.



會員動靜

경북지부사무소이전

	명 칭	소 재 지	전 화	면허번호	등록번호	월. 일
김 한 필	한남건축	대구시 남구남산동690- 8	45-8783	2-517	2-52	2. 21
안 상 기	안상기건축설계사무소	성주군성주면경산동29-13	2009	2-146	29	1. 10
윤 두 현	삼아건축설계사무소	대구시 남구남산동684-39	44-5989	1-762	1-30	1. 13
김 태 호	"	"	"	2-179	2-12	"
임 대 규	"	"	"	2-712	2-13	"
정 봉 진	세화건축설계사무소	대구시 중구동문동 9-43	44-8737	2-475	2-31	2. 2
양 병 모	동서건축연구소	신산군구마음원평동518-3	2678	1-284	1	1. 30
김 영 길	신도시건축연구소	포항시 죽도동103- 1	2-5976	2-979	2-31	2. 3
김 태 웅	홍한건축설계사무소	"	2-4731	1-131	151	"
김 남 석	삼화건축설계사무소	"	"	1-159	1	"
조 무 환	국민건축기술평단	"	2-4562	2-905	3	"
이 흥 길	한남건축설계연구소	대구시 남구남산동690- 9	45-5500	1-1156	1-19	2. 21
백 정 훈	"	"	"	2-683	2-54	"
이 원 효	"	"	"	2-924	2-55	"
박 재 우	한남건축	대구시 남구남산동690- 8	45-8783	2-749	2-53	"
유 병 득	"	"	"	2-751	2-51	"
석 용 길	우전건축설계사무소	대구시 중구포정동44	23-6978	1-1440	1-39	3. 2

강원지부회원사무소이전

1-756	합동건축사무소	원주시 중앙동12- 1	4278		원주11	2. 20
2-70	"	"	"		" 14	"
2-1269	"	"	"		" 13	"
1-1308	대아건축기술평단	춘천시 중앙로 1 가90- 1	2690 7622		춘천 1	12. 26
2-47	"	"	"		춘천 6	"
2-1569	"	"	"		춘천 2	"

경기지부회원 사무소이전

황·재 성	부천시구건축사합동사무소현대건축연구소	부천시 심곡동586-145	6-4330	1-1309	78	2. 23
-------	---------------------	----------------	--------	--------	----	-------

전북지부회원 사무소이전

송 한 승	한승건축사무소	전북남원읍하정리179	2-1506	2-1814	2-35	1. 26
이 근 성	신흥건축설계사무소	전북부안읍동중리232- 1				"

전남지부회원 사무소이전

	태화건축설계사무소	광주시 동구남동168		2-1108	18	2. 1
--	-----------	-------------	--	--------	----	------

서울지부 재입회원

성명	영 칭	소 재 지	전 화	년허번호	등록번호	월 일
편 기 봉 양 영 호	울산엔지니어링 정한건축	서울서대문구충정로 2가185-10 서울종로구노림동115		1-1071 1-1354	1-783 1-565	2.28

부산지부 재입회원

김 만 석 김 성 달	미전건축설계기술공단 영광건축설계사무소	부산서동구조량동1156-11 부산시부산진구모라동794-8	43-3773 9-7248	1-196 2-1428	1-102	2.23 2.20
----------------	-------------------------	------------------------------------	-------------------	-----------------	-------	--------------

서울시지부 전입회원

임 병 태 이 도 승	주·한신엔진 영창합동건축	서울영등포구신길동477 서울구의동246-19	67-7027 45-5506	1-500 1-219	1-319 1-180	2.10 2.20
----------------	------------------	-----------------------------	--------------------	----------------	----------------	--------------

경기지부 전입

박 봉 술 김 봉 선 박 규 민	유일종합설계박봉술사무소 유일종합설계사무실 대성건축	경기안양시안양 동627 " 경기화성군오산읍월리237	3581 3581	1-282 1-296 2-16	19 20 5	2.1 " "
-------------------------	-----------------------------------	------------------------------------	------------------	------------------------	---------------	---------------

경북지부 전입회원

현 석 홍 신 명 수 김 용 관	시대건축연구소 구미 " 신전건축기술공사	경북포항시죽도동43-16 " "	2-3784 " "	1-62 1-63 2-1238	5 7 6	2.11 " "
-------------------------	-----------------------------	-------------------------	------------------	------------------------	-------------	----------------

충남지부 전입회원

서 인 수	방전건축연구소	충남대천시중구동인동 4가251	45-1262	2-80	2-80	3.2
-------	---------	------------------	---------	------	------	-----

서울시지부 신입회원



본 적: 서울
성 명: 전 병 수
명 칭: 영동제일합동전병수건축설계사
소 재 지: 서울강남구반포동63의 7 무소
전 화: 58~2500
면허번호: 2~239
등록번호: 2~477
년.월.일: 1978. 2

부산시지부 신입회원



본 적: 부산
성 명: 변 규 택
명 칭: 남원건축설계사무소
소 재 지: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396의 8
전 화: 3~2250
면허번호: 1~795
등록번호: 1~101
년.월.일: 78. 2. 17

경기지부 신입회원



본 적: 전북
성 명: 정 병 욱
명 칭: 영은건축연구소
소 재 지: 서울영동포구당산동 3 가228의 3
전 화:
면허번호: 2~882
등록번호: 478
년.월.일: 78. 1. 31



본 적: 경기
성 명: 김 유 철
명 칭: 서해건축
소 재 지: 인천시 남구도화동407
전 화:
면허번호: 2~1644
등록번호: 58
년.월.일: 78. 2. 15



본 적: 서울
성 명: 이 영 복
명 칭: 건암건축연구소
소 재 지: 서울도봉구수유동174의 1
전 화: 90~9042
면허번호: 1~1180
등록번호: 784
년.월.일: 78. 2. 16



본 적: 서울
성 명: 박 봉 술
명 칭: 유일종합설계박봉술사무소
소 재 지: 경기안양시안양 5 동627
전 화: 3581
면허번호: 1~282
등록번호: 1~19
년.월.일: 78. 2. 15

전남지부 신입회원



본 적: 서울
성 명: 손 일 호
명 칭: 상원건축설계사무소
소 재 지: 서울강남구청담동338의 1
전 화: 57~7103
면허번호: 1~893
등록번호: 786
년.월.일: 1978. 3. 3



본 적: 전북
성 명: 유 년 욱
명 칭: 유한건축연구소
소 재 지: 광주시동구광산동81~2
전 화:
면허번호: 1~349
등록번호: 32
년.월.일: 78. 2. 20

충남지부 신입회원



본 적: 충남
성 명: 강 성 덕
명 칭: 정원건축강성덕건축설계사무소
소 재 지: 대전시충구선화동228
전 화:
면허번호: 2~895
등록번호: 48
년.월.일: 78. 2. 24



본 적: 충남
성 명: 박 윤 응
명 칭: 정원건축박윤응건축설계사무소
소 재 지: 대전시충구선화동228
전 화:
면허번호: 1~1496
등록번호: 28
년.월.일: 78. 2. 24



본 적: 충남
성 명: 이 민 수
명 칭: 건축설계사무소
소 재 지: 대전시 선화 1동65
전 화: 3~8432
등록번호: 2~632
등록번호: 49
년.월.일: 78. 3. 11

경상북도지부 신입회원



본 적: 서울
성 명: 김 용 관
명 칭: 신전건축기술공사
소 재 지: 포항시죽도 1동43-16
전 화: 3784
면허번호: 2~1238
등록번호: 6
년.월.일: 78. 1.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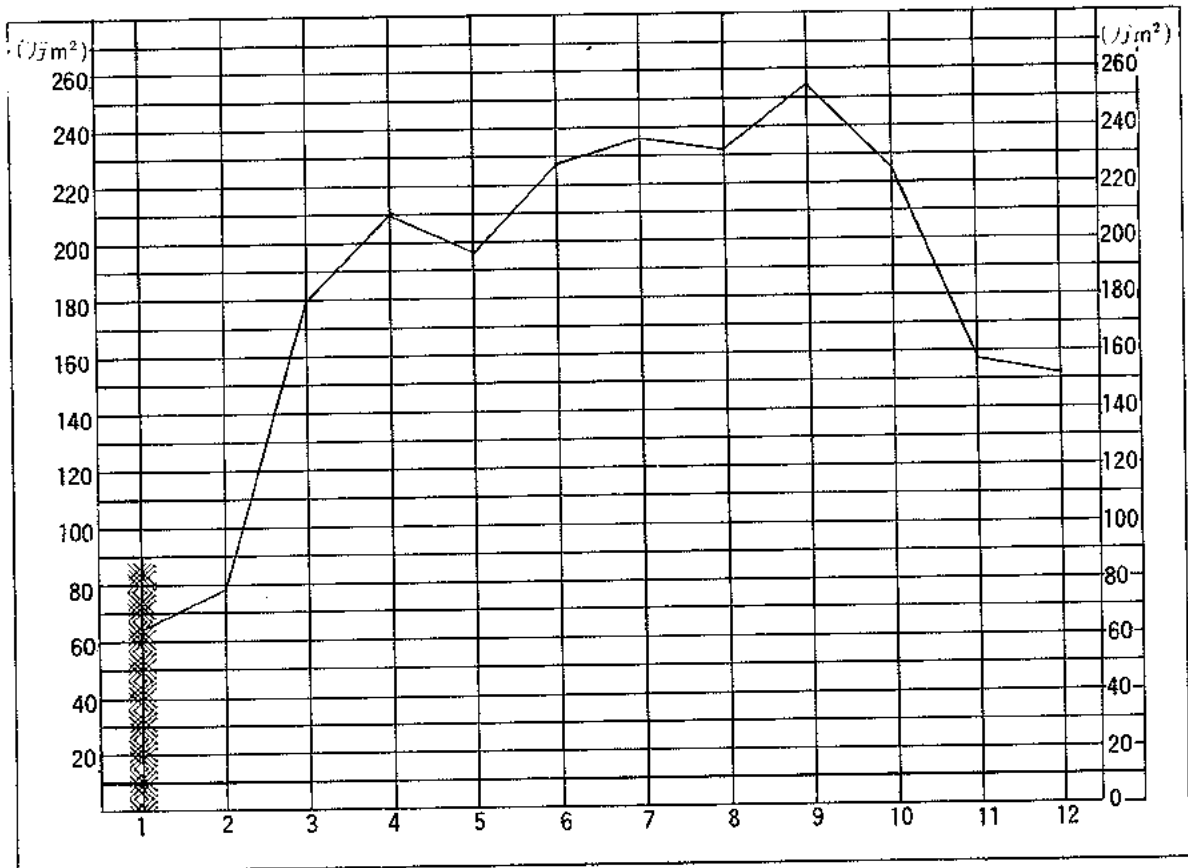


본 적: 경북
성 명: 장 우 식
명 칭: 삼보건축
소 재 지: 대구시충구동문동 9의43
전 화: 44~2729
면허번호: 2~496
등록번호: 2~78
년.월.일: 78. 2.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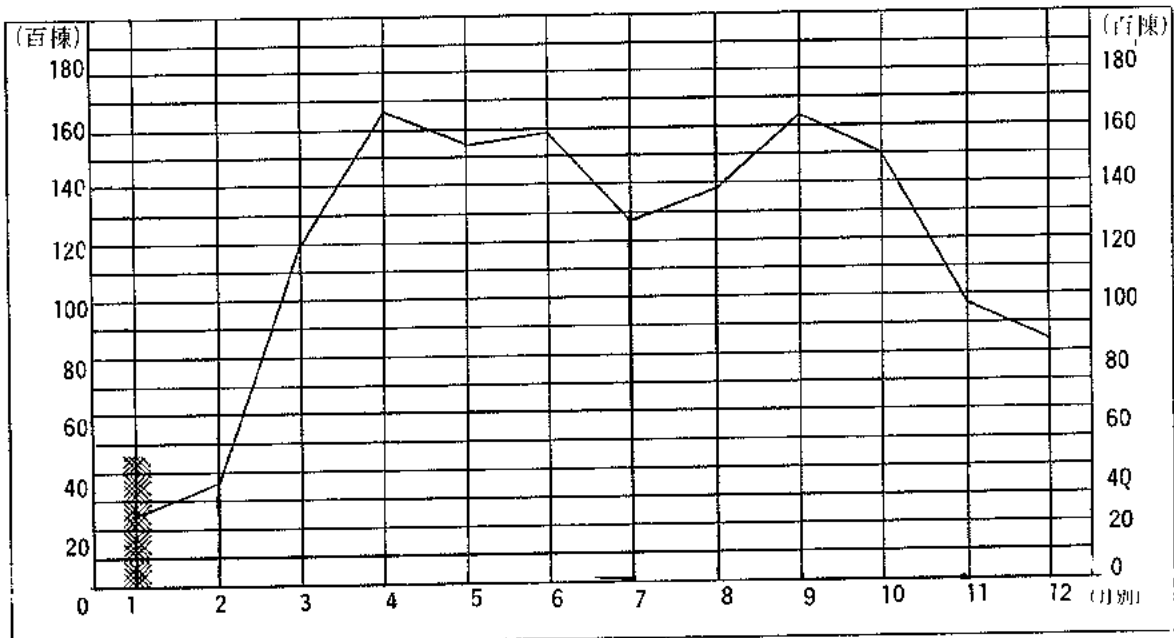
全国建築許可統計

(1978年1月分)

月別建築許可(延面積)統計



月別建築許可(棟数)統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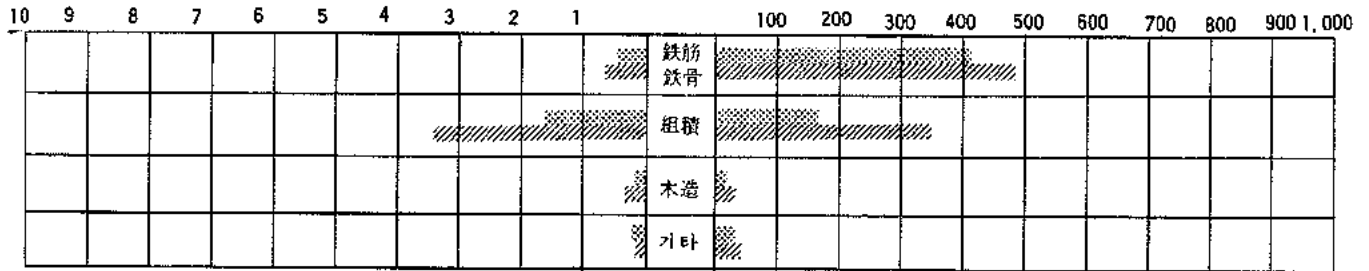


1977 1978

棟数(千棟)

構造別許可統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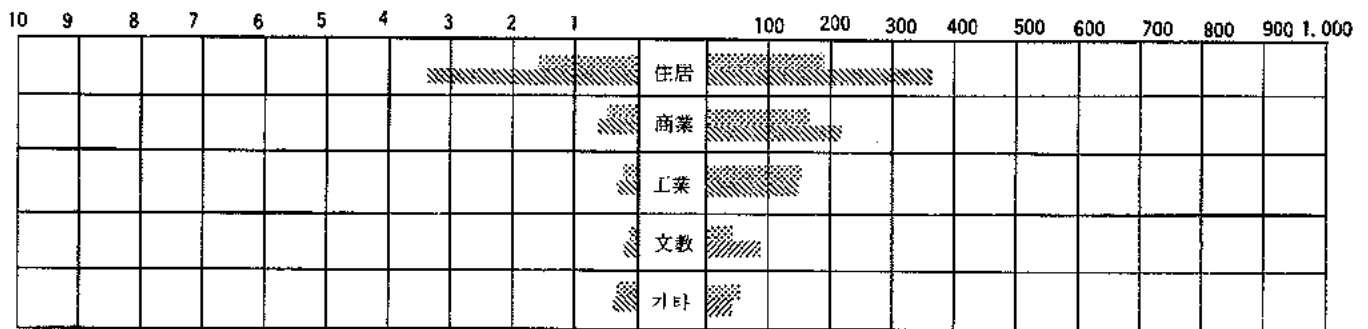
(延面積: 千 m^2)



棟数(千棟)

用途別許可統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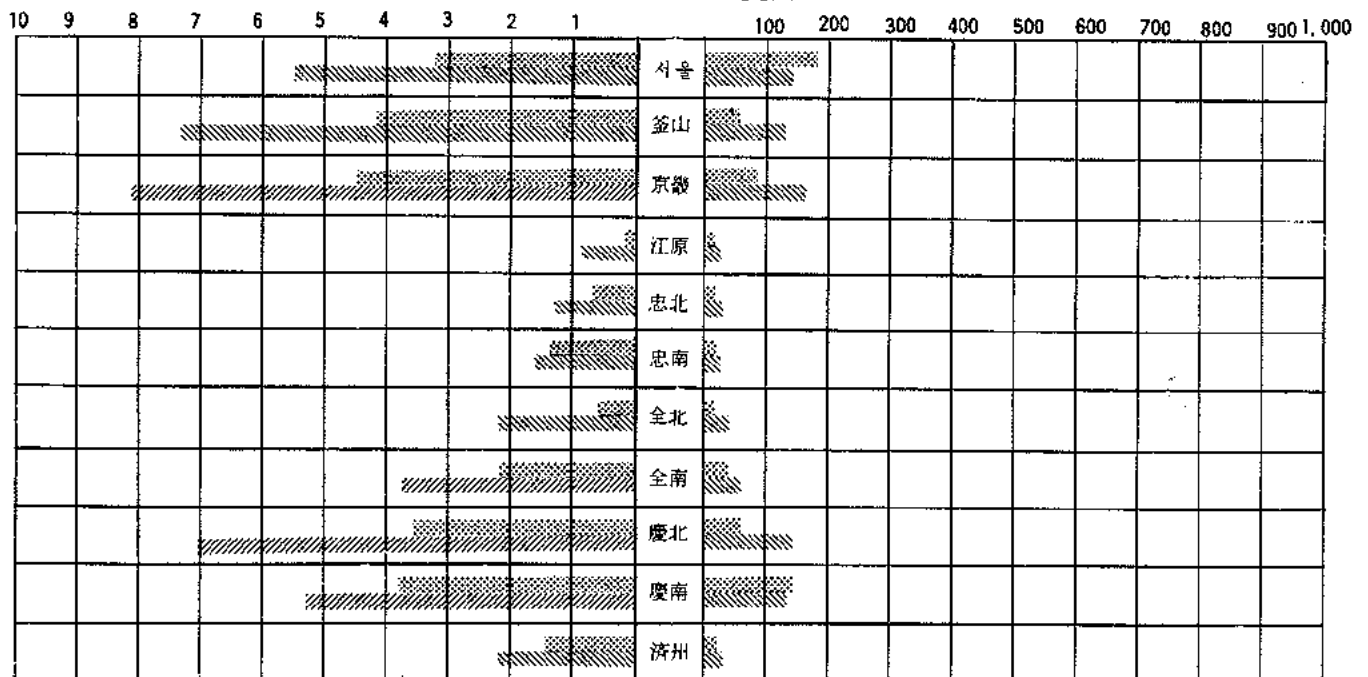
(延面積: 千 m^2)



棟数(千棟)

市道別許可統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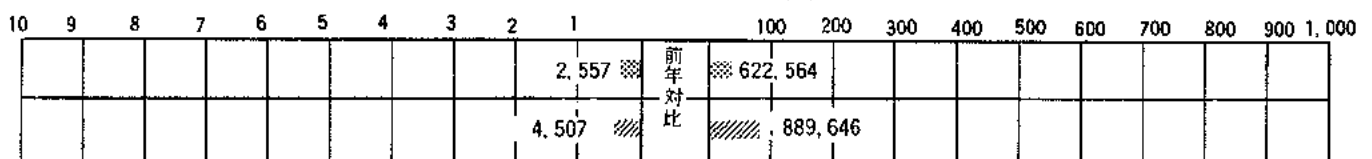
延面積: 千 m^2



棟数(萬棟)

全国許可統計総括

(延面積: 萬 m^2)



142.9%